

우리 문화



특집 우리 역사·문화 재조명
신봉승 유홍준 정양모 이성무

특별기획 생활문화, 이대로는 안된다
초대석 고병익 / 재외동포의 정체성 확립
특별기고 황병기 / 우리 가락에 깃든 정서

통권 제166호 / 2003. 9·10

전국문화원연합회

우리문화 2003 9 · 10



www.kccf.or.kr

표지설명
동강의 나무다리...
옛 그림에 자주 등장하던 나무다리를 한 아낙네가 건너고 있다. 다리 뒤로 보이는 마을과 더불어 옛 정취가 배어나는 풍경이다.
장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을 반지리
사진 : 최 진 연



C O N T E N T

문화숯대	전통문화 대중화는 우리 모두의 몫	김성희	2
초대석	재외동포의 정체성 확립	고병익	4
특별기고	우리 가락에 깃든 한국인의 정서	황병기	6
신작시	외옹치항 소묘 강 민		8
특 집	우리 역사 · 문화 재조명		9
	역사는 정체성을 일깨운다	신봉승	10
	문화유산도 손길이 닿아야 오래 간다	유홍준	13
	자연의 변화에서 터득한 예술과 과학	정양모	16
	정체성 없는 국제화는 식민국 전략	이성무	19
나의 길 나의 삶	역사와 함께, 만해 한용운과 함께		22
	만해기념관 전보삼 관장		
특별기획	생활문화, 이대로는 안 된다		25
	우리 역사를 통해 본 혼례문화	김선풍	26
	풍류와 여가문화	고동우	30
기획취재	2003 한민족문화대제전		34
	민족과 보편적 지평	김우창	
향토지킴이를 찾아서	잊혀진 여성의 역사를 찾는다		38
	한국여성향토문화연구원 차옥덕 원장		
축제를 찾아서	경주세계문화엑스포		41
	세계인이 어우러진 문화 한마당	정경식	
	2003 국제도자비엔날레		44
	도자예술축제 성대한 개막		
문화교감	중년여성들의 문화 갈증 해소해야		46
	대담 / 정정희(충남 당진) · 남성희(대구 북구) 원장		
나와 문화	화가 강석진(CEO컨설팅그룹 회장)		50
	“화폭 앞에 앉을 때가 행복합니다”		
전통문화숨결	북치고 춤추며 소리하는		52
	청춘을 북과 함께... 공민선		
화제의 인물	신사임당상 수상		54
	한국차문화협회 이귀례 이사장		
지역문화네트워크	전국 문화원 사업활동 및 동정		56
문화원 사무국장 연수	제13차 정례사무국장 연수 교육		64
어울림 한마당	비엔날레/연극/공연/전시/뮤지컬		73
신간 소개	지방문화원 발간도서 / 역사 · 문화전문서		76
만나봅시다	문화원은 지역문화의 구심점		80
	서울 광진문화원 이선우 사무국장		
회의도 경쟁력이다 ②		김점동	84

전통문화 대중화는 우리 모두의 몫



김 성 희

중앙일보 문화부 부장

어느 글에서 읽은 이야기다. 우리 사회 원로로 존경받는 김수환 추기경이 석굴암 벽면에 새겨진 불상들을 보니 마음 깊은 곳에서 찌르르한 감동이 우러나 오더라고 고백을 했다.

신앙심 깊은 카톨릭 성직자가 저도 모르게 느끼는 감동, 전통문화란 이런 게 아닐까 싶다. 마치 핏줄처럼, 아니면 유전자처럼 한 민족의 마음 깊은 곳에 면면히 이어져 오는 그런 것 말이다. 평소에는 좀처럼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다른 민족 다른 나라 국민은 이해하지 못해도 그 감동, 감흥이 절로 이는 어떤 문화적 산물이 전통문화라 할 수 있다.

그러니 이런 경우에는, 요즘 흔히 얘기되는 문화소비란 말이 해당되지 않는다 할 수 있다. 어떤 효용을

위해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행위가 아니라 타고나면서부터 즐기도록 운명지워진 것이다.

또한 기업문화니 정치문화니 해서 남루해질 정도로 남발하는 그런 문화와도 차원이 다른 것이 전통문화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전통문화 교감

그런데 바로 그런 전통문화가 위기에 처했다. 비단 음악, 미술, 문학만 문화라 할 것은 아니지만 이 유형적 전통문화의 산물에 대한 푸대접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한국화는 그나마 형편이 낫다. 미술의 한 장르로堂堂히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통음악 그러니까 국악은 다르다. 방송을 비롯한 매스컴에서 국악을 다루는 것은 좀처럼 보기 힘들다. 대학에서 동아리 활동 때 사물놀이를 하는 경우는 더러 있지만 그걸로 그만이다. 린킨 파크며 마릴린 맨슨이 내한공연을 한 대서 화제가 되지만 만일 어느 모임에서 시조를 한 자락 한다면 별난 사람 취급을 받을 건 불문가지다.

국문학 또한 마찬가지다. 대학입시를 위한 것으로 전략해 대학만 들어가면 안녕이다. 루카치가 어떻고 무라카미 하루키며 폴 오스터 등 현대 외국작가의 글은 제법 읽혀도 '전우치전'이나 '죽부인전' 같은 것은 출판도 잘 되지 않거니와 그나마 나온 책도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대중의 탓만 할 수 있을까? 윤도현밴드란 대중음악 그룹이 있다. 아다시피 지난해 월드컵 때 ‘오 필승 코리아’란 노래로 국민가수 반열에 오른 그룹이다. 이들이 최근 6집 앨범을 내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꽃잎이란 신곡에 대금소리를 넣었는데 대금소리가 이렇게 좋은 줄 처음 알았다. 국악에 대해 더 많이 배워야 한다고 느끼지만 솔직히 배울 시간도 없고 갑갑하다. 자라온 환경이 국악에 관심을 기울일 수 없었다.”라고 털어놨다.

국악 관심 있어도 배울 기회 적어

아마 이런 심정은 이들만이 갖는 것이 아닐 것이다. 좋은 줄 알고 배우고 싶지만 기회가 없는 것이다. 아니 즐길 기회도 제대로 없는 것이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문화를 고급문화와 대중문화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서양 고전음악, 미술, 서구 문화를 고급문화로 일컫고 팝송 등 대중가요, 만화, 장르소설 등은 대중문화라 해서 낮춰보는 분류다. 갈수록 현대화하면서 그 분류가 어려워지자 이렇게 분류하는 이들이 생겨났다.

고급문화란 즐기기 위해 별도의 공부나 필요한 것이고 대중문화란 별다른 노력 없이 즐길 수 있는 것이라고. 여기에 글 모두에서 밝힌 김 추기경의 일화를 연결하면 전통문화는 당연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즐길 수 있고 즐겨야 하는 대중문화다. 특별한 배움 없이도 사물놀이 가락을 들으면 절로 어깨가 들썩거리고 ‘흥보가’나 ‘춘향가’ 판소리 한 대목을 들으면 웃음이 나오니까.

그런데도 실정은 그렇지 못하다. 특별한 정성을 기울이지 않으면 전통문화를 접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된 데는 누구라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의 잘못이 작용했다고 본다.

우선은 전통문화 주체들의 무심함이다. 전통을 전통 그대로 간직하는 것도 좋다. 그렇지만 시대는 바뀌

고 사람들의 기호도 당연히 변한다. 여기에 호응을 같이하지 않으면 문화의 숨통이 막힌다. 어차피 문화란 사람들이 만들고 즐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서양화의 비구상 세계도 받아들이고 기법이며 도구에서 끊임 없이 실험을 거듭하는 한국화가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서 사랑 받는 것을 우리 전통문화의 각 주체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문화정책의 편향성 바로잡아야

다음은 문화정책의 편향성이다. 학교 교육에서 전통문화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구색 갖추기에 그치는 느낌이다. 국악만 예로 들어보자. 음악 교과서에 학년별로 민요 한 두 곡씩 끼워 넣은 것으로 그만이 다. 하다 못해 시조며 판소리 아악과 향악 등을 진득히 감상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은 필자만의 경험일 아닐 것이다.

교육 탓만 할 게 아니다. 매스컴도 전통문화를 홀대하기는 마찬가지다. 매스컴의 사회적 기능, 영향력에 비춰볼 때 지금과 같은 전통문화 대접으로는 보통사람들이 전통문화를 접하기란 정말 어렵다.

전통문화, 관심과 정성이 더욱 필요

사정이 이렇다고 문화를 향유해야 할 우리들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실상은 전통문화와 관련한 책이며 음반, 연주회, 전시회 등 조금만 정성을 기울이면 이를 감상할 기회는 있다. 단지 노력하지 않을 뿐이다. 영화를 보는 노력만큼만 기울여도 전통문화는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결국 전통문화의 대중화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달린 의무다. 옛 것을 지키고 간직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지금처럼 무관심이 이어진다면 우리 후손들은 전통문화를 별나라 문화 보듯 할 것이고 그에 따라 민족이란 개념도 흐려질지 모른다. 소름끼치는 일이다.

재외동포의 갈등치유와 정체성 확립

고 병 익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전 서울대 총장



우리 재외동포 7백만

우리 재외동포가 세계 각지에서 거주하는 지역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세계 어디에도 우리 동포가 거주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그 숫자가 늘어나서 대략 150개국에 7백만 명에 이른다는 추산이다. 그 숫자도 많지만 현지에서의 지위도 상승되고 있다.

따라서 이민의 역사가 쌓일수록 현지 주민으로서의 생활에 동화되며 자녀들이 거주국 국민으로 성장함에 따라 본국에서의 문화전통에서 멀어지고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 가게 되는 것도 자연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당사자로서는 자기 정체성을 놓고 곤혹감을 갖기 쉽다. 이럴 때 본국 으로서는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쳐 주는 것이 필요하다.

고국에 대한 향념, 든든한 울타리

재외동포라고 하면 한민족으로서 외국에 흩어져 거주하는 사람들 정도의 뜻이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보면 재외라는 것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와 지역에 거주한다는 말이지만, ‘재’라는 ‘거주’의 기간이나 형태에 구분이 없고, ‘동포’라는 용어에도 혈통을 기준으로 삼겠지만 1세, 2세, 혼혈 등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한편 재외동포로서 거주국에서의 신분이 출장 주재원, 일시 거주자, 영주권 소지자, 귀화자 등 차이가 있다. 그러나 빈곤과 고난을 벗어나려고 이민을 간 사람도 모국을 그리워하고 도우려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 것처럼 보편적으로 한민족은 본국에의 소속감이나 본국에 대한 향념(向念)이 강한 민족이니 이들 모두가 고국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재외동포는 어느 정도 자기의 정체성에 갈등을 느낄 것이다. 즉 거주국의 국적 취득으로 그 나라 국민이 된 한민족도 자기의 정체성을 쉽게 확립하기 어려우리라 짐작된다. 혈통, 언어, 전통문화, 성장환경 등이 다른 민족이 거주하는 타지에



▲ 재외국민 중에 거주국의 국적을 갖고 그 국민이 된 사람은 거주국의 충실한 국민이 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사진은 2002 한일월드컵대회 자원봉사자 발대식 모습.

서 거주국에 충성을 다하고 그 문화에 적응, 동화하면서 고국과의 관련, 전통문화와의 연결을 어떻게 유지해 나가야 하느냐의 갈등이다.

세계화의 경향으로 점차 약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지만 충성심의 대상이 거주국과 모국으로 양분화되는 현상과 이 양쪽을 조화롭게 다루어야 할 어려움이 결코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거주국과 고국, 정체성의 갈등

이민을 둘러싼 거주국의 환경과 조건도 각양각색이다. 미국처럼 대다수의 시민이 이민으로 구성되고 역사가 길지 않으며 개방된 사회로 소수민족도 비교적 공평한 처우를 받는 자원이 풍부한 거대국가라는 점에서 제반 환경과 조건이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는 동포들이 있다.

이에 비해서 거의 반대의 조건과 환경에 있는 곳이 일본이다. 한편 중국 동포는 소수민족 자치주가 인정되어 혜택을 받기는 했지만 자주적인 민족 정체성 추구는 어려웠고, 러시아는 풍토와 역사가 생소하며 한민족은 소비에트 전체주의 시대에 강제 이주되어 민족 정체성은 추구하기 어려웠다.

민족의 자존심... 거주국의 당당한 국민

재외국민 중에 거주국의 국적을 갖고 그 국민이 된 사람은 거주국의 충실한 국민이 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그러면서 거주국의 제도와 문화에 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출신국의 문화전통을 살려나갈 수도 있는 일이다.

더구나 정치, 경제, 사회에서의 세계화의 조류와 압력은 경직된 민족주의를 점차 약화시켜 이민 온 사람들이 양쪽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도 허용하는 경향이 생기고 있다. 또 인터넷의 발달로 출신국과의 항시 접촉을 용이하게 해 준다.

우리의 재외동포들은 본국 회귀적인 요소를 많이 지녔다고 볼 수 있으니 이들이 앞으로 고국 문물과의 접촉, 교류를 긴밀하게 갖게 될 것이 자명하다. 정부와 국민 그리고 재외동포 모두에게 개방적 사고와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세계로 나가 있는 우리 재외동포가 한민족으로서의 민족적 자존심을 깊이 간직하면서도 새로운 국가에 정당한 국민이 되어 자랑스러운 공헌을 하게 될 때 우리 민족은 도처에서 환영받는 식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자연과 합일하는 아취

15세기 조선 성종(成宗) 때의 음악이론서인 악학궤범(樂學軌範)의 서문은 “음악이란 하늘에서 나와서 사람에게 머물고, 허(虛 : 우주의 본질)에서 발(發)하여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사람의 마음으로 하여금 느끼게 하여 혈맥을 뛰게 하고 정신을 윤통케 하는 것이다”라는 말로 시작한다. 이 말에서 우리 선인들은 음악을 얼마나 중요시했는가를 알 수 있다.

예전의 선비들은 책 옆에 항상 거문고를 두고 독서와 음악을 함께 즐겼기 때문에 거문고와 책은 한 짝이라는 뜻으로 금서(琴書)라는 말도 생겼다. 16세기 문인인 송강(松江) 정철(鄭澈)의 시조에 “어디서 연꽃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나의 거문고 소리를 좇

아서 맞추어 주는구나”라는 구절이 나온다.

이처럼 옛 선비들은 음악을 대자연과 합일하기 위한 아취(雅趣)로서 즐겼는데, 이러한 음악을 풍류(風流)라고 한다.

장구의 양면이 일체화된 태극

오늘날 풍류의 대표적인 곡은 영산회상(靈山會相)인데 이 곡을 연주하노라면, 마치 우리의 영혼이 목욕을 하는 것 같은 희열을 느끼게 된다.

또 선비들이 시조시(時調詩)를 엮어 부르던 최고 수준의 노래인 가곡(歌曲)은 말할 것도 없고, 이보다 단순한 형식인 시조창(時調唱)을 한 곡 불러보아도 우리 음악이 얼마나 자연친화적이며 화평하며, 그 선이 얼마나 미묘하고 섬세한가를 즉시 느낄 수

우리 가락에 깃든 한국인의 정서

황병기 이화여대 명예교수,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있을 것이다.

우리 음악은 대부분 장구나 북의 리듬 반주가 붙는 것은 우리 음악에서 리듬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장구에는 북면이 좌우로 두 개 있는데 왼편은 왼손바닥으로 쳐서 ‘궁’ 하는 소리를 내고, 바른편은 바른 손에 쥔 채로 쳐서 ‘딱’ 하는 소리를 낸다.

왼편 소리는 음(陰), 바른 편 소리는 양(陽)을 상징하는데, 모든 장구 장단이 항상 두 면을 동시에 울려주는 합(合) 즉 ‘땡’으로 시작한다. 이 ‘땡’은 음과 양이 일체화된 태극을 상징하는 것이다.

우리 음악은 연주에서의 공력

우리 음악에는 이러한 음과 양의 소리들이 주고받으며 다양한 리듬의 패턴 즉 장단을 이루는데, 판소리에서 쓰이는 중요 장단들을 예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진양조(느리게) - 중모리(중간 속도로) - 중중모리(약간 빠르게) - 자진모리(빠르게) - 휘모리(극도로 빠르게)

우리 음악의 연주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공력(功力)이다. 단순히 곱고 예쁜 소리보다는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 온 힘을 느끼게 하는 소리를 쳐주는 것이다. 흔히 좋은 소리를 ‘아름다운 소리’라고 하기보다는 ‘공력 붙은 소리’, ‘실한 소리’, ‘영근 소리’ 등이라고 한다.

감동적인 연주를 들었을 때 그 연주를 ‘공력이 대단한 분’이라고 찬사를 보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음악사상은 음악이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선하기까지 해야 한다는 우리 민족의 미의식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미와 선을 다한 음악이야말로 악학궤범에서 말했듯이 ‘사람의 마음으로 하여금 느끼게 하여

정신을 유통시키는 음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음악은 사라지는 것 중 가장 순수

가치 있는 것은 불변해야 된다고 하지만,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것들이야말로 우리 영혼의 금선(琴線)을 울릴 때가 많다. 황금은 불변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겠지만 곧 저버리는 꽃, 그 꽃잎에 맺힌 이슬, 심지어 그 이슬의 그림자조차도 우리의 가슴을 몽글하게 하는 가치가 있다.

음악은 사라지는 것 중에서도 가장 순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음악에 몰입한다는 것은 ‘순간에 충실함으로써 순수한 시간을 지니게 되는 것’, 베르그송이 말하는 모든 사물의 근원으로서의 ‘순수 지속’을 지니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음악은 숨결처럼 사라지는 공기 중의 결에 불과하지만 콩바리외(J.Combarieu)의 말을 빌리면, ‘심오한 심리 상태의 주석자이자 창조자이며, 정신의 섬세한 토로이자 윤리생활의 미묘한 동력’인 것이다. 그래서 일찍이 공자(孔子)는 ‘사람은 음악에서 완성된다’(成於樂)고 했던 것이다.

이제 더위와 습기에 시달렸던 가야금을 곱게 닦고 새 줄을 걸면 가을 하늘 만큼이나 맑고 투명한 소리가 다시 울려 나올 것이다. 가을은 책보기에 좋은 계절이라고 하지만, 음악을 하기에는 더 더욱 좋다. 일년 중 악기 소리가 제일 잘 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햇밤과 햇대추를 먹고 밤이 이슬하도록 가야금을 탈 때의 그 운치는 한국의 음악가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라. 귀뚜라미 우는 가을 밤, 가야금의 오동판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들이 장판에 반사된 후 장지문을 통하여 조금은 밖으로 나가고 나머지만 방안에서 맴돌 때의 그 독특한 맛은 우리만의 비밀스러운 것이라.

외옹치港 素描



강민신

지친 몸 쉬리라

찾아온 동해 외옹치港

바닷가 비닐 술청에 앉아 잔 기울인다

갈매기 무심히 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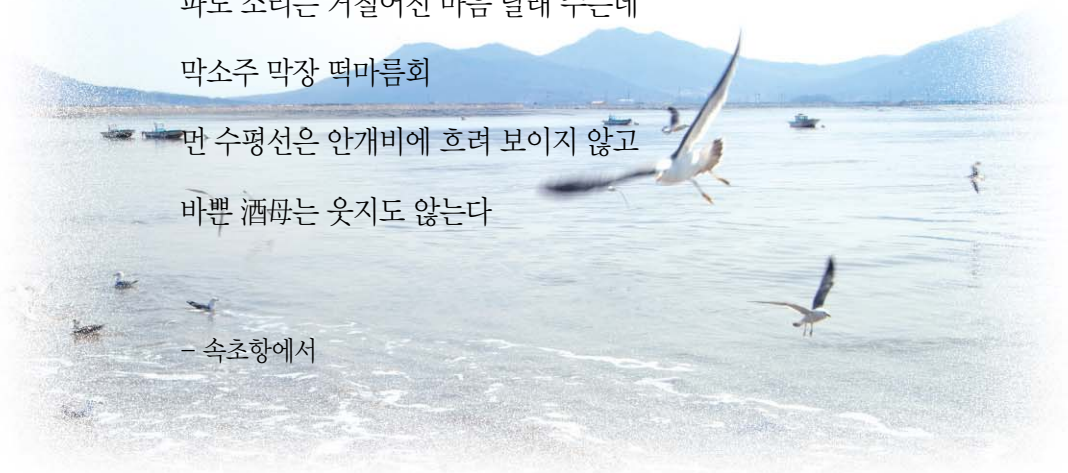
파도 소리는 거칠어진 마음 달래 주는데

막소주 막장 떡마름회

만 수평선은 안개비에 흐려 보이지 않고

바쁜 酒母는 웃지도 않는다

- 속초항에서



특집

우리 역사 · 문화 재조명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희망이 없다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한 중국 북경 6자회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핵 개발의 직접 당사자인 우리나라는 회담의 주빈이지도,
제대로 대우받는 손님도 아닌 채 이상한 모양새로 끝났다.

미국 · 일본 · 중국 · 러시아. 이들 4대 강대국들은 우리 역사에 어떠한 흔적을
남겨왔던가.
과연 그들이 우리 문화와 문명의 발달에 어떠한 기여를 해왔던가.
우리는 냉철하게 역사를 되돌아보며 현실 - 자국 이익 챙기기에 몰두하는 냉
엄한 국제적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희망이 없다’ 고 한다.

대한제국 말기에 제국주의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한 결
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는 우리 역사가 증명해준다.
그런 시련과 아픔의 부담은 이 땅의 힘없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부담한다.

‘역사는 되풀이된다’ 고 한다. 강대국들의 각축이 점차 심해지는 요즘 한반도
주변의 정세는 옛날을 재현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월간 **우리문화** 이번 호에서는 ‘우리 역사 · 문화 재조명’을 통해 우리 문화를
진작시키고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며 우리 민족문화 창달에 대한 진지한 성찰
을 해보고자 한다.

역사는 정체성을 일깨운다



신 봉 승 극작가,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역사검천이불고(歷史劫天而不古)이라 할 수 있다. 즉 역사는 천겁을 지나도 새롭다는 뜻이다. 150년 전 명성황후의 시해사건은 바로 현재 청소년들의 고조할아버지 시대의 이야기이다. 역사는 항상 새롭다. 아버지가 뭘 했는지 아는 것이 좋고 할아버지가 뭘 했는지 아는 것보다 더 좋고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가 뭘 했는지 아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선 국왕의 이름은 세 가지

국왕의 이름은 초휘(初諱), 묘호(廟號), 시호(諡號) 세 가지가 있다. 초휘는 국왕이 태어나면 부르는 이름으로 휘는 돌아간 높은 어른의 이름을 말한다. 세종대왕의 초휘는 도요, 영조대왕의 초휘는 금이었다. 묘호는 국왕이 승하하시면 붙여지는 이름으로 종묘에 위패를 모실 때 구분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지금 우리가 부르는 국왕의 이름은 묘호에 속한다. 세종대왕, 영조대왕의 세종, 영조 역시 묘호이다. 시호는 국왕이 살아있을 때나 승하하신 이후에도 기념할만한 일이 있을 때 올려진 이름이다. 세종대왕은 20여 개의 시호가 있고 명나라에서 올린 시호는 장헌이다. 명성황후의 이름 역시 묘호인데 1885년 명성황후가 시해된 후 1887년 대한제국으

로 국호가 바뀌면서 황제국임을 선언한다. 이에 따라 고종은 태황제라 불린다.

일본은 이후 조선에 대한 지배야욕을 키워 가는 과정에서 조선 문화의 우수성을 조금이라도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씨조선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이조라는 말도 이씨조선이라는 말에서 유래한다. 상감청자는 고려시대에 만들었다고 해서 고려청자라고 부른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백자는 조선백자라고 해야 옳다. 이조백자라는 말은 일본식민사관에 의한 말로 조선백자로 바로 잡아야 할 말이다.

헌종이 승하하고 철종이 즉위하였으나 곧 승하한다. 흥선대원군의 둘째 아들인 고종이 국왕으로 책봉된다. 이후 고종이 결혼할 때가 되자 흥선대원군은 당시 외척세력에 의한 폐해를 우려하여 중전으로 간택되기 위해서는 명문가의 출신이어야 하고, 사가의 부모가 덕망이 있어야 하며, 형제자매들의 우애가 돈독해야 하고, 당사자의 행실이 가지런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당시 가세가 기울 민씨 가문에서 중전을 간택했다.

명성황후는 경기도 여주에서 덕천 군수를 지낸 민치록의 딸로 태어났다. 8세 때 부모를 여의고 어린 시절을 매우 가난하게 지냈다. 고종이 왕위에 오른 지 3년 뒤인 1866년 흥선대원군의 부인인 부대



▲ 경복궁의 동쪽에 위치한 창덕궁. 임진왜란때 불타 없어졌으나 1611년 광해군이 중건했다.

부인 민씨의 추천으로 16세에 왕비가 되었다.

명성황후와 흥선대원군은 고종의 첫 적자가 낳은 지 삼일만에 죽는 사건으로 앙금이 쌓이는 관계가 된다.

개화냐 수구나

당시 근대화의 물결은 주변국들의 국제정세를 보아도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흥선대원군은 수구를 주장하여 척화비를 전국에 세운다. 미국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조선과 교역을 희망하였으나 “우리 그릇으로 식혜를 먹으면 맛이 다르냐”라는 말로 교역을 거부한다.

이후 대원군에 의해 프랑스 신부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는 후 중국으로 도피한 신부의 보고에 의해 프랑스 군함이 강화도를 경유, 일부가 한강유역까지 들어왔다가 철군하여 강화도에서 전투를 벌인다. 두 차례의 외세공격을 막아낸 대원군은 쇄국 정책을 더욱 공고히 한다.

조선은 개화를 하고자 하는 세력과 수구를 유지하려는 세력간의 갈등이 정권을 잡느냐 못 잡느냐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수구에는 흥선대원군이, 개화에는 명성황후가 그 세력을 주도하게 되어 불화의 씨앗을 키워간다.

청일전쟁 이후 명성황후는 일본을 경계하기 위해 러시아와 가깝게 지낸다. 일본은 그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오던 대륙 침략의 기회를 잃지 않기 위해 계획적으로 자국 공사를 교체한다.

비운의 명성황후

1885년 새벽, 일본의 낭인들은 경복궁으로 들어온다. 당시 일본사람 오카모토 류노스케(岡本柳之助)는 흥선대원군과 밀약을 한후 궁을 지키던 흥계훈을 죽이고 민비가 거처하던 건청궁 곤룡합으로 향한다. 총소리를 듣고 명성황후는 상궁의 옷으로 갈아입었으나 끝내 시해되고 만다.

당시 현장에는 외국인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미국인 교관(敎官) 윌리엄 매키 다이였고, 다른 한 사람은 러시아인 기사(技士) 세레진 사바틴이었다. 이들은 일본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현장 근처에 있었던 양관(洋館)에 기거하고 있었기에 그 참상을 목격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결국 이들 두 사람의 보고로 사건의 전모가 알려졌다.

현재 일본에 있는 문서를 통해 알려진 당시의 정황은 그동안 우리 민족에게 일제의 장막이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일깨워준다.

사건 직후 다찌스가라는 공사관이 일본의 법무장

관에게 전보를 쳤는데 그 전보가 남아 있다.

“우리는 칼질을 하고 국부를 검사하고...”

일본 아오야마 외교문서보관서에 보관된 당시 전 문은 일본 외무성 직원이 받아 적으며 놀라움으로 손을 떨며 쓴 흔적이 남아 있다.

잃어버린 주권

민비를 시해한 38명은 체포되어 일본으로 호송되어 가는 중에도 술을 마시고 만세를 불렀고 히로시마의 재판소에서는 증거불충분이라는 판결을 받고 석방되었다.

당시 홍장군 휘하의 몇몇은 일본과 동조하여 민비 시해를 도왔는데 사건 이후 일본공사



▲ 명성황후 민비의 생가.

의 도움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살게 된다. 이중 2중 대장인 우범선은 농학박사로 한국에 들어와 우리나라 농업발전에 큰 기여를 했던 우장춘 박사의 아버지였다.

민비 시해 후 고종은 당시 경상도 감찰사까지 지냈던 고영근을 시켜 우범선을 암살하도록 명령한다. 고영근은 민비의 총애를 입었던 몸으로 일본에 가서 우범선을 암살하고 이후 고종의 탄원으로 고국에 들어와 명성황후의 능을 죽을 때까지 관리하였다. 우장춘 박사는 우범선의 첫째 아들로 아버지의 죄를 씻기 위하여 일본에 4남매를 남겨두고 부인과 함께 당시 밀항하는 한국인을 돌려보내는 곳으로 찾아가 한국에 와서 농업발전에 이바지하게 된다.

일본 NHK방송에서 우장춘 박사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당시 리포터로 활동한 일이 있는데 그의 귀국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었다. 당시 MBC회장을 지냈던 최석채 선생을 통해 우장춘 박사가 ‘아버지의 죄를 면하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왔

다’라는 말을 하더라는 얘기를 전해들었다.

민족 정체성을 찾아야 희망 있다

역사는 언제나 새로운 것이다. 지금 우리는 2만 불 시대로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세계 12위이고 1인당 국민소득은 54위이다. 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의 단면을 나타내준다. 경제규모에 비해 국민은 잘 사는 것이 아니다.

일본은 1만 달러 진입 후 2만 달러 진입하는데 4년이 걸렸다. 우리나라는 1985년 1만 달러 진입 후 1987년 IMF로 인해 6,600달러로 떨어졌다가 2002년에 1만 달러를 회복했다.

도약하지 못하면 퇴보한다. 한승희 한국은행 총재는 지금 이대로 내버려두면 남미사태가 된다고 말했고 삼성 이건희 회장은 몇 년 후까지 그대로 내버려두면 대한민국 산업이 위협해진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김성우선생은 문화칼럼에서 “왜 안 되느냐? 낭비 천국 한국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아니냐.”는 독설을 통해 경고하였다. 우리나라 결혼문화를 보자. 결혼식장을 찾은 직장 동료들의 행태가 가관이다. 부하직원에게 부조금을 내게 하고 식당으로 직행한다. 이런 잘못된 문화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 우리 문화가 바로 서야 한다. 문화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 21세기의 변동은 2020년에 틀림없이 찾아온다. 세계정세가 뒤바뀐다. 세계은행에서 2020년에는 중국의 경제가 미국경제를 추월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21세기의 대변동이 아닐 수 없다. 그때가 되면 지금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경제의 주역이 된다. 지금 영어를 잘 하는 것만이 최고가 아니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가르쳐야 한다. 우리 모두가 정체성을 스스로 일깨울 수 있는 생활문화를 소중히 하고 향유해 나갈 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을 수 있다.

〈정리 정경식 기자〉

문화유산도 손길이 닿아야 오래간다



유 홍 준 명지대 교수

문화재보호라고 해서 무조건 ‘들여가지 마시오’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집은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망가지지 않는다. 추울 때는 불을 때주고 더우면 문 열고 환기시켜 주면서 같이 들어가서 살아주는 것이 제일 좋은 보존 방법인 것이다.

불편해도 인간적인 것이 좋다

문화유산을 생활 속에 머물 수 있도록 하자. 그러려면 불편해도 인간적인 것을 지켜나가야 한다.

한국에 온 외국인이 호텔에 묵고 있어 ‘아침식사 전에 선릉에 다녀오면 좋을 것’이라고 얘기했더니, 그는 선릉에 다녀와서 ‘이런 좋은 코스를 활용하면 좋겠다’고 얘기했다.

서양사람들은 조깅을 생활화하고 있으니 롯데 호텔이나 프라자호텔에 투숙하는 사람들이 덕수궁을 산책하고 식사를 하면 좋을 텐데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도 지하도를 통해 가야 하기에 먼 길이 된 게 현실이다.

이렇듯 우리 문화가 편리하기만 하면 최고인줄 알았는데 이제는 세월이 변해서 불편하더라도 인

간적인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아는 정도는 되었다.

우리 문화를 보는 눈

우리문화에 대한 특질을 외국인들이 바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 지난 94년 광주비엔날레가 열렸을 때 커미셔너로 참여해서 경험한 일이다.

당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커미셔너 4명과 함께 일하게 되었다. 그들은 한국에 와서 넓은 한강과 도심 어디에서도 자연이 감지되는 산의 능선이 보이는 것이 신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사실 자체가 우리 건축과 자연과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중국의 자금성에 비해 경복궁이 작다고 하지만, 자금성이 장면의 변화가 없는데 비해 경복궁은 모서리만 돌아도 다른 환경과 만나게 되는 장면 변화가 있다.

우리도 필요에 따라 크게 짓기도 하고 높게 짓기도 했다. 몽고난 때 불타버린 서라벌 황룡사 9층탑이 66미터였고 상륜부라고 하는 첨탑까지 합치면 85미터의 높이로 22층 아파트 높이에 달했다. 당시 서라벌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위



▲ 유교수의 강연 모습.

용을 갖춘 탑이었을 것이다. 이후 사찰이 산에 지어지면서 높게 지을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외국인이 본 우리의 자연

광주비엔날레를 준비하는 동안 함께 했던 커미셔너들이 세 번 놀랐다. 첫번째는 3월에 회의를 하면서 허허벌판을 가리키며 그곳에 건물을 지어 9월에 오픈한다는 계획에 놀랐고, 6월에 왔더니 건물이 다 지어져서 놀랐고, 개막 일주일을 남겨 놓고 일주일 이상 걸려야 정리가 될 일을 30사단 1개 연대가 와서 세 시간만에 청소를 다 해놓자 놀랐다고 한다.

비엔날레 개막 후 그들과 선암사에 갔다. 우리나라 산사의 자리가 산 속에 묻히는 형태가 있고, 부석사처럼 더 넓은 산세의 전망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선암사는 전자에 해당한다.

곡성을 지나 보성강에서 케시 관장이 사진촬영을 하기에 무엇을 찍는가 물었더니

“산 넘어 산이 있어 산자락이 겹치는 모습을 시카고에 살면서 본 일이 없어요. 동양화에서 산수화를 첩첩산중으로 그리는 모습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산에 얽힌 얘기 중에 불상을 연구하는 미국인에게 한국에 있는 절은 일본이나 중국과 달라서

깊은 산 속에 있는 것을 0먼저 알아야 불상 연구에 도움이 될 거라 했더니 “강물이 깊고, 산은 높을 뿐이지, 왜 산이 깊으냐”고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를 해 주니까 웃으면서 한국의 산에 대해 수필로 써보겠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다.

선암사로 들어가는 길은 계곡을 따라 나 있다. 동행한 영국인이 “길이 옆으로 휘어져 있어 어디론지 가지만 그 길이 멀 것 같지 않고 힘들지 않을 거라는 편안함을 주며, 모퉁이를 돌면 어떤 모습일까 기대감으로 길을 걷게 하는 것이 한국의 자연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라고 했다.

손길이 닿아야 지켜지는 문화유산

선암사 앞에 있는 무지개다리라고 하는 승선교는 사용하지 않아 돌멩이 하나가 빠져나오면서 무너져 보수공사를 할 때가 많다. 학생들과 답사를 가면 이 다리를 몇 번이고 왔다갔다 한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의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겨울에 얼었다가 해동이 되면 돌과 흙으로 지어진 건축물은 밟아주어야 좋다.

고창읍성에는 삼월 삼진날 여자들이 머리에 돌덩이를 이고 성을 한바퀴 돌면 복이 온다고 해서 ‘성 밟기’를 했다. 해마다 성 밟기를 할 때 그냥 돌기도 힘든데 돌덩이 하나씩을 머리에 이고 무게를 더해서 성을 도는데, 이를 축제 형식으로 즐기는 지혜를 엿볼 수 있다.

영남대 박물관장으로 있을 때 안동댐과 임하댐으로 수몰된 한옥 1,700여 채 중 여섯 채를 옮겨 왔는데 보존 방법의 일환으로 46칸 짜리 집을 동료 교수에게 분양을 해주었다. 집은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망가지지 않는 법이다.

선암사 들어가는 길을 2차선으로 해놓은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 차밭을 지나 일주문까지 20분 정도가 소요되는데 매표소에서 일주문까지가 사

실상 선암사 정원인 셈이다. 이 길을 자동차로 들어가면 편리하겠지만 고건축의 참맛을 느낄 수 없다.

2차선을 해놓으니 절은 아늑한데 길이 넓어 결국 절이 작아 보이게 되었다. 오솔길보다 약간 넓은 옛길로 선암사를 들어가야 어울리는데 아쉬운 일이다.

선암사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연못은 삼인당이라고 하는데 마음의 그림자가 비추어진다는 뜻이 담겨 있다. 장마 때 빗물을 담아서 계곡으로 흘러가게 하는 기능을 한다. 연못 안에는 작은 타원형의 섬을 만들어 놓아 연못을 크게 보이게 하는 한편 아늑한 맛을 더해 준다. 작은 섬이 있으면서 물이 돌고 고임이 없어 깨끗해지는 것이다.

옛날에는 동경(銅鏡)이나 석경(石鏡)이라고 하



▲ 선암사로 들어가는 길목.



▲ 문화유산을 보는 안목을 한 차원 높여준 유홍준 교수의 <문화유산답사기>.

는 거울은 작아서 전신을 비춰볼 수가 없는 시절에는 이 연못에 와야 전신을 비춰 볼 수가 있었을 것이다.

자연과 건축의 조화

우리 건축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일주문으로 들어가면 육조고사라고 하는 현판이 붙어 있는 만세로가 있고 그 옆을 돌아서야 절 마당과 대웅전으로 연결이 된다. 선암사에는 매화가 피는 3월말부터 단풍철까지 1주일 단위로 풍경이 달라진다.

선암사에 함께 간 캐서린은 본인도 건축사를 전공했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보아 온 유명한 건축물은 단일 이미지를 갖고 있어 그 디테일을 보는 것이 건축의 묘미를 보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본 절은, 다 돌아보고 난 후에도 '전체가 산과 어울려 있어 전체 평면을 잡아내기 힘들 정도였다'면서 '건축에 자연이 주는 영향이 긴밀함에 놀라 깊은 건축'이라는 말로 이해했다. 이렇게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건축인 것이다.

광풍각 같은 작은 건물에 있는 툇마루 역시 겨울이면 난방하기에 적합하고 여름이면 문을 처마에 매달아 방과 툇마루를 함께 사용하여 넓은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도 큰 지혜이다.

우리 문화유산을 잘 보전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문화유산만을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보다 중요한 문화유산과 함께 어우러진 전체를 보존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정리 정경식 기자)

자연의 변화에서 터득한 예술과 과학



정 양 모 문화재위원회 위원장

우리는 한국문화를 세계에 알려야 한다. 그런데 한국문화를 연구하는 사람이 없다. 외국에 한국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

세계 여러 박물관에는 우리문화를 알릴 수 있는 전시물이 많지 않다. 이는 한국문화를 연구하는 연구자가 없음을 의미한다. 우리 문화의 우수성은 여러 나라와 견줄만하다. 이러한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세계에 산재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많은 조사가 있었지만 아직도 부족한 느낌이 든다. 문화를 알리는 일은 국력을 키우는 일과 같다.

우리는 자연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사계절이 뚜렷한 자연을 통해서 미술을 배우고 광대한 자연을 통해서 과학을 배웠다. 에밀레종은 과학에 기초하여 형상화된 아름다운 미술을 담고 있는 세계에 자랑할만한 보물이다.

자연에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

는데 이런 자연을 변하는 자연과 변하지 않는 자연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연에서 배우는 예술과 과학

우리의 자연은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다. 이 변화를 배우면서 발전한 것이 우리 미술이다. 이 중첩의 그림도 아름답지만 자연이 더 아름다울 수 있다. 들판에 형형색색으로 아름답게 핀 꽃을 직접 보고 산에 가서 아름다운 주위 경관을 보면서 시원한 바람을 맞는 것이 더 아름답다.

자연에서 아름다움을 배우는데 외형적인 것은 수시로 변한다. 법칙을 갖고 변화를 한다. 기압에 의해서 바람이 불고 계절의 변화에 따라 나무에 영양분 공급과 기후변화로 인해 가을이면 아름다운 단풍이 든다. 우리는 자연에서 배운 것이 많다. 산의 형태, 꽃, 동식물의 모습에서 미술을 배웠다.

우주의 광대함과 태양계의 조화로우름을 통해 오랜 시간 동안 자연계의 변하지 않는 원칙을 발견

했다. 이 원칙을 통해 우리는 과학을 발전시켜 왔다. 문화유산 중에도 세종 때의 측우기, 해시계, 물시계 역시 과학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이 외에도 세계 최초로 목판활자와 금속활자를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 역시 과학적인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우리 문화유산 세계에 널리 알려야

박물관에서 일하던 시절, 경주에서의 두 차례 박물관장을 한 경험을 통해 우리 미술과 우리 문화의 자랑스러움을 얘기하고자 한다.

경주는 신라 천년의 문화유산이 많은 문화도시이다.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이제는 세계에 알리고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

최근 들어 중국이 그들의 문화유산을 다시 사들인다는 소식을 들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중국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세계에 알려졌기 때문이다. 대만은 중국의 문화유산을 소중하게 여긴 장개석 총통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문화, 역사를 배우고자 하는 세계의 많은 석학들을 대만으로 불러들일 수 있었다.

우리도 이제 우리 것을 찾고 알리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가 스스로 알리지 않고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

산사 새벽예불의 아름다움

선암사를 갔을 때 일이다. 일행 중 한 사람이 대단한 풍경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새벽 2시경 선암사 종각으로 갔다. 동자승이 북을 치고 있었다. 무명 형질으로 짠 북채를 들고 북소리를 읊미하기 위해 눈을 지그시 감고 잠시 북 치는 것을 멈추었다가 다시 북을 칠 때 ‘둥둥둥’, ‘두웅두웅두웅’ 큰 소리 작은 소리를 번갈아 내면서 10



▲ 국립경주박물관에 있는 성덕대왕 신종(에밀레종)

여분을 계속 친다. 그 다음 촛불을 들고 종각으로 간다. 잠시 종을 쓰다듬다가 종을 치기 위해 타종을 천천히 시계추처럼 반복해서 움직인다.

이윽고 종소리가 경내와 고즈넉한 산 속으로 퍼져간다. 동자승은 종에 손을 대고 밖으로 퍼져나가는 소리를 연주하듯 소리의 강약과 장단을 조정하면서 종을 친다.

우리는 동자승이 종치는 아름다운 광경을 지켜보다가 3시경 노전스님에게 갔다. 노전스님 방 앞에는 종이 있었다. 노전 스님이 종을 치면서 불경을 외운다. 오랜 세월 동안 불경을 외운 탓일까 불경을 외우는 소리가 웅장하게 법당 앞을 퍼져나간다.

불가에서 종을 치는 이유는 그 소리를 듣고 지옥의 혼들이 극락왕생하기를 빈다는 뜻이다. 불경이 일반인들에게 어려울 수 있으니 종소리를

통해 불심을 전하는 의미도 있겠다.

에밀레종 소리는 스님의 불경소리 보다 더 웅장한 소리가 난다. 새벽녘에 에밀레종을 치면 ‘웅’ 하고 길게 울려 퍼지는 소리가 너무나 아름답다. 이렇게 좋은 소리를 내는 에밀레종은 두께가 최고 23cm, 최소 11cm로 상단에 음관을 갖고 있는 최고의 종이라 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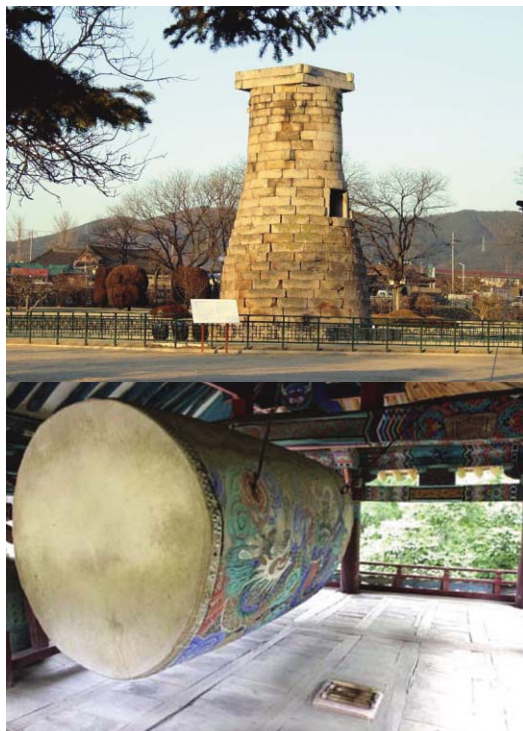
현대과학도 풀지 못하는 선조의 지혜

경주국립박물관으로 이전을 준비하면서 20톤이 나가는 에밀레종을 옮겨야 했다. 안전한 이전을 위해 당시 포철과 대한통운의 도움으로 28톤의 철근을 달아두었는데 5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되자 걸어둔 고리가 벌어지고 철봉이 휘어지는 일이 벌어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선조들의 과학의 심오함을 알게 되었다. 당시 금속학을 전공한 전문가들과 이 문제를 상의하는 과정에서 그때의 기술로 에밀레종을 걸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래서 에밀레종이 전에는 어떻게 걸려 있었는가를 조사했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당시 기술로는 종을 매달아 두는 철봉이 직경 15cm가 되어야 했는데 고리에 끼워놓을 수 있는 철봉의 직경은 7cm를 넘으면 안되게 되었다.

예술과 학문 정진 강조한 성종

그전에 종을 지탱한 철봉은 강판을 여러 겹으로 겹쳐가면서 만든 것임을 알게 되었다. 여러 겹으로 겹쳐진 철봉은 20톤이나 나가는 종을 오랜 시간 동안 아무런 이상 없이 지탱하고 있었다. 우리는 결국 그 철봉을 사용하여 지금의 경주국립박물관에 에밀레종을 안전하게 이전할 수 있었다. 조선의 임금 중에 성종은 그림을 좋아했다.



▲ 경주 첨성대(위)와 사찰에서 쓰는 큰북(아래)

회원들에게 많은 그림을 그리게 했다. 당시 성종이 그림을 즐겨하자 신하들은 임금님이 백성을 생각하고 학문에 정진해야 한다며 성종의 예술에 대한 열정을 막았다. 문치시대인 당시에는 신하들의 뜻을 무시할 수 없던 시절이었다. 성종은 신하들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였다.

성종은 어려운 경학을 공부하면서 여가에 그림을 그림으로써 정신을 맑게 하여 더 학문에 정진할 수 있다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이 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는 문화유산을 배워 우리 문화 역사에 대한 자긍심과 자존심을 지켜나갈 수 있다.

〈정리 정경식 기자〉

정체성 없는 세계화는 식민국 전략

북방지역에 대한 관심 증대시켜야



이 성 무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역사는 민족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취미가 아니다. 현재는 시장경제, 민주주의가 주를 이루며 세계화를 지향하고 있다. 세계화 속에 영어 공용화와 기술지상주의는 선진국에 의해 주도되는 게 현실이다. 세계의 군소민족이 세계화를 추종만 할 경우 그 나라 그 민족은 문화지배의 시대에 새로운 식민지로 전략하게 된다.

세계화 속에 한국역사, 민족주의가 설 자리가 있는가. 단지 세계화에 맞지 않다고 해서 이를 폐쇄주의, 국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세계화에 잘 대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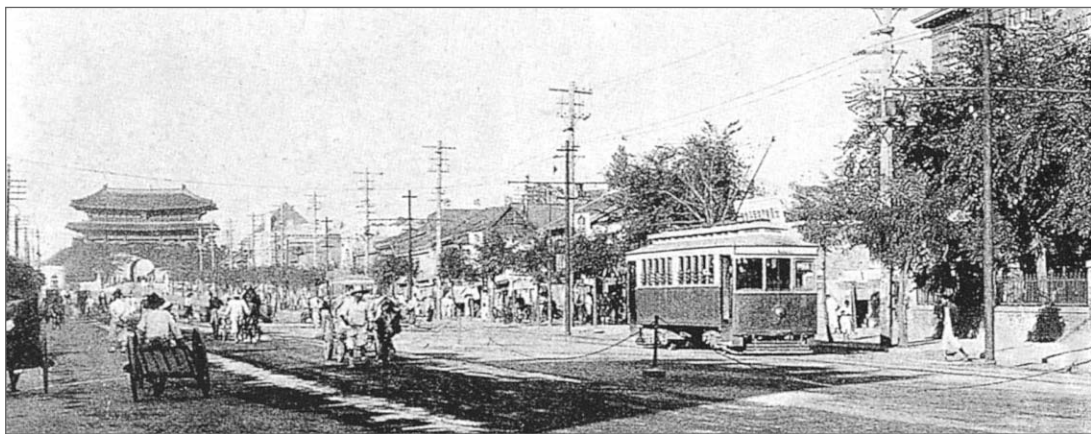
우리 지분을 갖고 세계화를 이루자

우리 지분을 갖고서 세계화에 동참하여야 한다. 여기에 우리 문화, 역사의 중요함이 있다. 정체성이 없는 세계화가 가져올 미래는 과거 식민지와 다름 없다. 외국유학을 통해 자기 주체성을 잃은 잘못된 현실관이나 정신이 바로 서지 않은 채 기술의 발전을 지향하는 것이 현재에 이르러 많은 병폐를 낳게 하는 원인이다.

호화롭게 사는 것은 우리 자신을 망치는 일이다. 우리가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바로 알기 위해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이 중요하다. 역사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될 수록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이 더 중요하다. 역사를 토대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인문학을 중시했던 선조들의 정신이다. 인문학을 바탕으로 한 도덕의 중요성이 우리 문화의 가치이다.

동아시아에 대한 이해

우리 역사를 이해하려면 동아시아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 동아시아는 진시황 때부터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이룩한 중국과 무인사회를 중심으로 한동이족(東夷族)이 서로 패권을 다투는 역사를 갖고 있다. 은나라는 완전한 동이족이었다. 중국과 동이족의 패권 다툼은 대등하게 전개되어 갔다. 고구려, 백제의 멸망은 이러한 두 세력에 변화를 주는 역사적인 계기가 된다. 우리 역사 역시 그 후부터 지금



▲ 1920년대의 광화문 앞 모습.

까지 만주라는 넓은 별판을 잃었다.

역사는 있는 그대로를 말한다. 고구려, 백제의 멸망은 작은 나라의 멸망이 아니었다. 이때부터 우리 민족은 만주라는 대평원을 잃게 되었다.

당시 동서세력인 당나라와 신라, 남북세력인 고구려, 백제, 일본의 충돌은 결국 당나라와 신라가 패권을 장악하고 이후 당나라가 한반도에 대한 지배를 위해 안동도호부와 웅진도호부를 설치하자 신라는 이에 대항하였다.

당나라 지방에서 절도사의 난이 일어나자 당은 신라와 협정을 맺게 된다. 당시 당나라는 실크로드가 말해주듯이 세계제국을 건설하였다. 당나라는 주변국가를 포용하는 책봉정책(冊封政策)을 펴나간다. 주변국가를 침략하지 않으면서 당나라가 중심이 되는 정책이었다. 동아시아의 정치체제는 평화를 우선하는 중앙집권적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신라는 이러한 당나라의 정책을 받아들였다. 김춘추는 당나라에 가서 당시 3천명 정도가 공부를 했던 국자감을 보고 신라 사람들이 당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폈다. 신라 사람들은 이후 당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된다. 당나라에서 외국인을 위해 실시하는 빈공과에 합격한 신라인이 56명이 있었다는 문헌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많은

신라인이 당나라에서 공부했음을 알 수 있다.

신라 이후부터 중앙집권적인 통치체제가 싹이 터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중앙집권체제를 완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중국, 동북아시아 연구에 3조원 투입

통일신라 이후 중국에서 실시하는 외국인인을 위한 빈공과에 많은 신라인들이 시험에 응시함으로써 중국문화를 받아들이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1982년 하버드대학에 갔을 때였다. 한국 교수 7명과 중국 교수 40명이 하버드대학의 초청을 받았다. 중국 교수들과 교류를 하면서 영국사를 공부하는 후단대학(後旦大學)의 뛰어난 교수를 만나 중국과 한국의 역사를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고구려에 대해 말하자 뛰어난 교수가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정권이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다.

향후 동아시아에서 우리가 바로 세워야 할 역사 문제는 국제교류가 더 늘어나는 현시대에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뿐 아니라 앞으로 중국의 역사인식에 대한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 최근에 중국이 동북아(만주)지역에 대한 역사를 체계화하기 위해 3조원을 투입한다는 소식은 우리가 북방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반증하는

사례다. 총칼로 싸우는 시대에서 역사적 사실과 근거로 싸워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지난 역사의 흐름

고대사는 칼을 든 사람이 지배하는 사회였다. 고구려의 무인들, 신라의 화랑들 역시 무사들이 중심이 된 사회를 엿볼 수 있다. 이 무인사회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 중앙집권적인 문치시대를 열어가는 역사적 변화가 계속되어 왔다. 광종 이후부터 조선초기까지 문치주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다. 광종 때에는 호족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그 세력기반이 되는 노비를 해방시켰다. 이후 호족은 향리가 되어 조선초기까지 이어진다.

이이(李珣), 이황(李滉) 시대에 이르러서는 조선이 문치시대를 꽃피우는 시기이다. 17세기에 중앙집권적인 문치주의가 꽃을 피우는데 조선의 중앙집권적 문치주의는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독특한 정치체제라 볼 수 있다.

서양세력의 동아시아 진출은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는 계기가 된다. 일본은 다이묘가 정권을 잡는 무인정치시대였기에 서로 자기 영토를 지키기 위해 쉽게 개화를 이루고 외국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조선의 중앙집권적 문치시대의 현실은 개화의 계기를 쇄국정책으로 잃고 만다.

당시 흥선대원군은 남종삼이라는 천주교 신자에게 프랑스 기술을 이용하여 철선을 건조하게 했으나 배가 침몰하자 개화의 꿈을 접는다. 이어 전국에 척화비를 세우고 두 차례의 외국군함을 무찌르고 쇄국정책을 강화한다.

오랜 문치주의가 문화를 융성하게 했지만 야성과 기개가 부족하여 결국 제국시대 무력의 힘에 조선이 망하는 계기가 된다.

역사는 생존의 논리이다. 국제관계에서 바른 역

사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중국과 조선이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을 때 ‘중국과 조선의 경계를 토문강으로 한다’는 문구가 있었다. 이 토문강을 두고 연변지역의 토문강과 함경북도의 두만강이라는 논쟁이 있었는데 당시 일본에 의하여 그들이 남만주철도를 놓는 조건으로 두만강을 토문강으로 인정함으로써 지금에 이르렀다.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을 통해 잘못된 우리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

현대사의 교훈

해방과 6·25전쟁을 겪으면서 반일, 반공은 우리 역사의 핵심이 되었다. 개발군사독재시대에는 유약했던 문치시대가 이 나라를 식민지로 전락시킨 주범이라 선언하고 농업사회에서 중공업사회로 전환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한다. 개발군사독재를 통해 나타난 경제발전과 민주화운동은 한국현대사의 바탕이 되었다.

이후 개혁을 주장하는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가 들어섰지만 개혁을 성공리에 이끌지 못하고 많은 부패를 낳고 말았다. 이는 정신이 바로 서지 않은 까닭이다. 인문학을 통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전통과 역사를 현실에 맞게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조선시대의 과거제도는 도덕을 중요시한 인간됨을 가리는 시험제도였다. 돈이 최고인 현실에 도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역사의식을 통해 진정한 개혁주체가 될 수 있다.

국론의 분열은 주변국을 이롭게 할 뿐이다. 국론이 분열되지 않아야 한다. 우리 민족은 위기 대처능력이 뛰어난 민족이고 슬기로운 민족이므로 지혜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정리 정경식 기자〉



역사와 함께, 만해 한용운과 함께

이 세상에는 길도 많기도 합니다.

산에는 돌길이 있습니다. 바다에는 뱃길이 있습니다. 공중에는 달과 별의 길이 있습니다.

강가에서 낚시질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발자취를 냅니다. 들에서 나물 캐는 여자는 밭초(芳草)를 밟습니다.

강원도 강릉. 꿈 많고 신세계에 대한 동경으로 가득 찬 소년 전보삼(全寶三). 포교당(관음사)에 들르는 객승(客僧)이 들려주는 바깥세계는 마냥 신기하기만 했다. 그 중 어느 객승이 들려준 ‘님의 침묵’은 어렵게만 여겨졌던 불교 철학을 어렵풋이나마 이해할 것 같은 기분이었다. 벼락처럼 깨닫는 오도송(悟道頌)처럼 님의 침묵을 통해 반야심경을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때의 깨달음으로 그의 길은 정해졌다고도 할 수 있다. 한용운 선생과 관련된 자료는 무조건 모으고 공부를 해 나갔다. 심지어 포교당에서 못모르는 친구들과 선생 기일에 맞추어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 고교 3학년 첫 시간에 친구들의 추천과 선생님

의 후원으로 ‘알 수 없어요’를 주제로 1시간 강의(?)를 하기도 했다.

그 후의 길은 만해 선생과의 동행으로 이어졌다. 선생의 발자취를 뒤따르며 그 웅대하고 심오한 사상과 철학을 연구하고 자료를 모으는 일에 모든 정성을 바쳐 왔다.

악한 사람은 죄의 길을 좇아갑니다.

의(義)있는 사람은 옳은 일을 위하여는 칼날을 밟습니다. 처산에 지는 해는 붉은 놀을 밟습니다.

‘잘 살아보세’라는 슬로건이 전국을 휩쓸고 ‘하면 된다’는 의지로 산업화 바람이 불면서 화공학을 전공했다. 당시 공과대학을 가는 것이 큰 자랑이자 자부심이었던 때였다. 졸업 후 유수의 기업에 들어갔지만 창의력 개발과 발현은 엄두도 못내는 상황이었다.

불과 몇 달만에 그만두고 교육대학원에 진학, 교사의 길을 가기로 했다. 그러나 마음 속은 언제나

만해 선생이 자리잡고 있었다. 때문에 야간고교 교사로 재직하는 한편 주간에는 ‘만해사상연구회’를 조직, 만해에 관한 저술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체계적인 불교철학 공부를 위해 다시 대학원에 들어갔다.

봄 아침의 맑은 이슬은 꽃머리에서 미끄럼타입니다. 그러나 나의 길은 이 세상에 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님의 품에 안기는 길입니다.

만해기념관은 남한산성 주봉이라 일컬을 수 있는 수어장대(守禦將臺) 바로 밑에 위치해 있다.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산성리 912번지에 대지 520평, 연건평 120평(지상 2층) 규모로 기획 전시실(60평), 교육관(40평), 자료실(20평) 등을 갖추고 있다. 전시관은 전통 한옥의 건축 양식을 현대에 조화시킨 보기 드문 건물이다.

전보삼 관장(54·신구대학 교수)은 “학생 때부터 가졌던 희망이어서 아주 행복하다”고 말한다. 땅을 물색하고 기념관을 짓는데 무려 8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온전히 전 관장의 사재로 형편에 따라 차곡차곡 쌓다 보니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화두를 풀기 위해 용맹정진했던 고승의 참선처럼 ….

만해가 좋아 40년 동안이나 연구 노력했고 주위의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혼자 힘으로 해왔다는 전보삼 관장은, 이곳 남한산성이 호국의 상징이자 삼학사(三學士) 유적도 있어 정신적, 문화적, 역사적으로 뜻깊은 곳이라면서 아주 만족스런 마음이다.

전 관장이 생각하는 만해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님의 침묵에서 ‘님’은 이제까지 일중다핵(一中多核) 개념으로 문학적으로만 풀이했다면 이제 다중일핵(多中一核), 철학적으로 분석해 그 개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아니라면 죽음의 품에 안기는 길입니다. 그것은 만일 님의 품에 안기지 못하면 다른 길은 죽음의 길보다 험하고 괴로운 까닭입니다. 아아, 나의 길은 누가 내었습니까.

그가 조사한 바로 만해 관련 석·박사 논문 700여편이 대부분 문학적으로 분석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현상론적 접근방식이며, 만해의 본질적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철학적 접근을 해야 한다는 풀이.

그가 볼 때 “만해 선생은 암흑기에 태어나, 할 일 많은 시대에 많은 일을 하고 간 행복한 사람”이라고 평한다. 만해 선생이 일제 경찰에 의해 교도소에 갔다 온 후 “극락에 갔다 왔다”고 말씀하신 것에 근거를 둔다.

또 만해적(萬海的)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 만해는 대단히 행복하고 늘 활력에 가득 찬 사람이었다. 그 활력을 민족과 국가를 위해 쏟았기에 더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분석이다.

전 관장은 “그런 분을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큰 행운이었다”고 밝힌다. 인생을 사는데 활력과 에너지, 열정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만해 덕분이었다는 것이다. 그게 그에게는 큰 소득이고 자신의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설명.



▲ 만해기념관 전경. 기념관 잔디밭에서 만해와 남한산성과 관련된 세미나를 열기도 한다.



▲ 기념관에 소장되어 있는 '님의 침묵' 초판본



▲ 만해기념관 내부. 전 관장이 사재를 털어 수십년간 수집해온 자료들이다.

아아, 이 세상에는 님이 아니고는 나의 길을 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길을 님이 내었으면 죽음의 길은 왜 내렸을까요.

만해는 온 몸을 던져 국가와 민족을 사랑했던 선각자. 전관장은, 그래서 기념관을 통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겸손해 한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지 돌아볼 때가 되었다면서 “기념관을 돌아보며 만해 선생을 통해 참된 삶과 민족과 이웃을 위한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며 기념관 방문의 의미를 되새겨 줄 것을 당부한다.

기념관은 작년 3월 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되었다. 많은 학생들과 교사들이 방문하지만 여건이 따르지 못해 항상 고민중이라고 한다. 또 '님의 침묵' 등 만해 선생의 사상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의미와 위대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일을 계속해보고 싶다고 밝힌다.

전관장은, 21세기 정보화사회에는 아이디어와 창의성이 부가가치를 만든다면서 “만해의 시를 떠올리면 많은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으며 문화적 생활이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길러낸다”고 강조한다. 만해 사상은 지금에도 유효한 사상이라는 것이다.

성공이나 물질적 축적보다는 풍요로운 삶의 질을 추구하고 문화적이고 자연적 삶에 충실했으면 한다면서, 기념관 운영이 어렵지만 외부 강의 수입 등으로 운영에 보태기도 하고 가능한 한 혼자 힘으로 하려고 한다고 의지를 보인다. 좋아서 하는 일이라 자발적 기부 외에는 후원 등을 권유하거나 그런 모임을 계획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는 기념관 옆 작은 잔디공원에서 만해 관련 모임을 가지기도 하고 외부강사를 초청, 세미나를 열기도 한다.

그는 오는 9월말 그가 모은 '님의 침묵' 등 각종 만해 관련 서적 130여 종으로 판본특별전을 가질 계획이다. 또 '만해와 그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만해의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400여명을 조명해보는 특별전을 내년 5월쯤 전시할 계획도 세우고 있는 중이다. 김구와 만해, 단재와 만해 등의 유품과 함께 전시한다는 것이다.

전보삼 관장은, 만해 사상은 정중동(靜中動) 동중정(動中靜)으로 열정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으므로 상당 시간 우리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며 만해 사상 예찬을 한다.

* 본문 중간의 인용문은 한용운 선생의 시 '나의 길'
(박전걸 기자)

특별기획

생활문화, 이대로는 안 된다

세계화 시대에 맞춰 국제표준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것은 세계를 무대로 활동을 하는 기업들만의 경우는 아니다. 사회 전반에 걸친 강력한 세계화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는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국제조류에 발맞춰 숨가쁘게 적응해 가야 하는 입장이 돼 버렸다.

더구나 팍스아메리카로 상징되는 유일 초강대국 미국과 기타 다른 서구문화의 유입은 날로 심화돼 가고 있는 형편이다. WTO(세계무역기구)의 문화부문에 대한 제한 없는 개방 압력은 날로 드세지고 있고 머지않아 전 부문에 대한 개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그에 따른 문화부문의 소비현상도 날로 서구화돼 가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문화정체성마저 흔들리게 만들고 있다. 외국 유명 오페라의 공연에는 수많은 관객이 몰리는 반면 지방문화는 점차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게 현실이다.

외국의 유명 공연을 감상하면서 국제 트렌드를 따라 문화적 격조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세계문화시민으로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외국 공연이나 영화에 등장하는 그 나라의 각종 생활문화를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어 매우 우려할 상황이라고 하겠다. 마치 외국 문물만이 우수한 것인양 여기는 풍조가 번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일부 계층의 명품 수집 바람이나 외국 잡지 패션 따라하기가 좋은 예라 하겠다.

월간 **우리문화**는 이러한 일부의 세태에 경종을 울리고 왜곡된 우리 생활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이번 9월호부터 사계 전문가들의 진단을 실은 연속시리즈로 <생활문화, 이대로는 안 된다>를 신는다. 음식문화, 주거문화, 의복문화, 여가문화, 장례문화, 혼례문화, 효 문화 등을 2개 부문씩 다뤄 나간다. 이번 호에는 계절적 요인을 고려해 혼례문화와 여가문화를 게재한다. <편집자>

우리 역사를 통해 본 혼례문화

결혼은 분리의례이자 통합의례



김 선 풍
중앙대 민속학과 교수

결혼은 경제적 측면의 상호보상 행위

후한서(後漢書) 동이전(東夷傳)·예전(濊傳)에 보면 예국 사람들은 ‘같은 성을 가진 사람끼리는 결혼을 하지 않는다(同姓不婚)’는 기록이 있다. 이처럼 까마득한 날에 이미 우리 민족은 혼인에 대한 예법을 정립해 왔던 민족이다. 프랑스의 민속학자 아놀드 반 겐넵(Arnold van Gennep)은 그가 쓴 통과의례(Les rites de passage)에서 인생의 고비마다 행해지는 의식을 분석해 보면 쉽게 분리, 전이, 통합이라는 세 단계로 분류된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세 하위 범주가 모든 민족이나 모든 의식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분리 의례(rites of separation)는 장례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통합의례(rites of incorporation)는 결혼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전이의례(transition)는 약혼식이나 입사식(initiation)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결혼식 자체도 한 사회적 범주로부터 다른 사회적 범주로 옮겨가는 집단 행위이기 때문에 전이뿐 아니라 분리 의례와 통합의례를 포함하고 있다고 본다.

결혼은 경제적 측면의 상호보상 행위

결혼은 항상 경제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상호 보상(ransom) 행위가 뒤따른다.

한 가족이나 한 집단에 속한 생산적 구성원이 분리될 때 그 집단에 대한 보상은 필연적인 것인데 우리의 데릴사위제도나 서옥제(婿屋制) 등이 그것이다.

삼국지(三國志) 위지 동이전에 의하면 고구려에 사는 혼인이 결정된 뒤에 신부의 친정집 뒤에 작은 집을 지어 서옥(婿屋)을 지어 놓고 신랑을 데려다가 살게 한 뒤 그 사이에 자식이 생기면 여자를 데려가게 하였는데, 이 사위가 있는 집을 서옥 곧, 사위집이라고 불렀다.

중국 소수민족 중에는 문 앞에 집을 짓고 살기도 하는데 이 과정을 ‘문의의 경배(拜門)’라 한다. 장인을 만나기 위해 문에서 기다리며 장인이 문 열기를 기다리는 행위는 결혼 승낙을 얻어내려는 행위로서 한 사회의 성원이 다른 사회로 들어가기 위한 처절한 기다림의 통과의례이다.

조선 중기까지 데릴사위제도 성행

데릴사위제도(술서혼)도 조선 초기 또는 중기까지 많이 행해졌는데, 이는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사람이 사위를 맞이하여 동거하는 것을 말한다. 특



▲ 현대의 젊은이들이 색다른 취향으로 전통결혼식을 올리기도 한다. 이런 의례를 통해 결혼의 의미를 되새길 수도 있다.

히, 외손봉사는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사람이 사위와 동거하고 자기가 죽은 뒤 제사를 외손이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후대에 오면서 외손봉사가 적어지고 딸만 있는 집에서는 딸을 출가시키고 가까운 친족으로부터 양자를 받아들여 제사를 계승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유교적 가족제도의 보급으로 부계중심이 강화되어 처가살이하는 남자는 정신적 고통이 많았다. 이것을 비유하여 속담에서는 ‘단지에 보리 석 되만 있으면 처가살이하지 않는다’ 라고 했다. 이와 같이 고통스러운 데릴사위는 지체가 낮은 사람이 하여 왔다. 이러한 혼인 외에 ‘신들의 결혼(Hieros Gamos)’도 있어 흥미를 더한다.

반겐넵은 이를 일러 ‘나무와의 결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옛날 강릉현 최돈목네에 동래 정씨인 정현덕네가 살고 있었던 바, 그 집에는 과년한 딸이 있었다. 하루는 꿈에 대관령 성황신이 나타나 정씨집에 장가들기를 간청했다. 그러나

사람 아닌 성황을 사위로 삼을 수 없노라고 거절했다.

어느 날 정씨의 딸이 노란 저고리에 치마를 입고 단장하고 뒷마루에 앉아 있는데 범이 와서 엮고 달아났다. 소녀를 엮고간 범은 산신이 보낸 사자였다. 대관령 국사성황이 소녀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은 것이다. 범에게 물려간 것을 안 정씨 집에서 국사성황을 찾아가 보니, 성황나무에 붙어서 있는데 벌써 정신은 없고 몸만 비석처럼 서 있었다. 가족들이 화공을 불러 화상을 그려 세우니 처녀의 몸이 비로소 떨어졌다고 한다. 호랑이가 처녀를 데려다 혼백한날은 4월 15일이다.

이상은 신들도 외로움을 견디기 어려워 여인을 데려다가 부부신이 된다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한국적 결연방식의 한 가지 예로 볼 수 있다.

많은 위대한 상징들은 이른바 결합(conjunction)이나 원한 종합 속에 있는 두 성(性)의 화해를 재현한다. 융의 심리학에 의하면 이 결합은 한 개인의

정신 속에서 순수한 심리적 의미를 띠는 바, 그것은 상이한 두 존재 사이의 플라톤적 사랑이 성취하는 종합을 대리하거나, 그런 종합을 구성하는 두 짝의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결합 속에는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절대적 평화와 휴식의 유일한 가능성이 있다. 원시종교나 점성술적 종교 속에 나타나는 하늘과 땅, 천상과 지상의 결합이 그렇고, 공주를 구원해 준 왕자가 그녀와 결혼하는 전설 역시 비슷한 문맥이다.

혼례는 사회적 의례, 권리 의무의 표현

이러한 혼례의 상징성은 결합과 결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개인의 결합을 강조하는 사회에서는 개인간의 의사가 혼인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혼인을 하고 나서 둘 사이는 독립된 가계(家計)를 영위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혼례가 별로 중요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절차도 비교적 간소하다.

한편 혼인의 가족적 결합을 강조하는 사회에서는 반대의 현상을 보인다. 혼인에 있어서 두 개인의 의사보다는 가족의 의사가 강하게 반영되고, 혼인한 뒤에도 공동가계(共同家計)의 한 부분을 형성한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의례 그 자체를 중요시하며 격식을 따라야만 혼인이 인정된다.

따라서, 혼인을 통해서 두 가족간의 권리와 의무가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혼례는 두 개인이 결합하여 부부가 되었음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의례일 뿐 아니라 두 가족의 권리와 의무의 표현이기도 하다.

조선조의 혼례절차는 예서에 따랐으나 실제 관행과는 차이가 있다.

일제시대 이후, 이러한 가례에 익숙하지 않거나 서구적 교육의 영향을 받은 계층에서는 지나치게

형식적, 전통적인 혼례를 반대하고 이른바 신식결혼식을 만들게 되었다.

신식결혼의 시초는 예배당 결혼

신식결혼의 시초는 1890년대에 생긴 '예배당 결혼'이다. 이와 함께 1900년대에는 불교계에서도 불식화혼법(佛式花婚法)이 등장하였으며, 1930년대에는 계명구락부(啓明俱樂部)를 중심으로 오늘날의 예식장에서 행하는 사회결혼이 보급되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조선총독부에서 1934년에 발표한 〈의례준칙〉과 1961년의 〈의례준칙〉, 1969



▲ 결혼식 전에 예복을 입고 고궁이나 공원에서 웨딩사진을 찍는 것은 오래 전부터의 유행이다.

년의 <가정의례준칙>은 전통혼례의 변화를 초래하게 하였다.

조선총독부의 의례준칙은 주자의 '가례'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1969년의 가정의례준칙은 1961년의 의례준칙이 별다른 효과가 없자 처벌규정을 추가하여 발표한 것이다. 특히, 이 준칙은 사치스러운 약혼식과 청첩장의 남발, 혼인잔치, 호화로운 혼례식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조선총독부 시절에 나온 의례준칙에 보면 약혼연령은 남 20세, 여 17세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약혼→연길→납폐→초례(醮禮) 순으로 되어 있다. 더욱이 혼례장소는 신부의 집, 또는 신사(神社), 사원, 교회 등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씁쓰름한 일제 당시의 상황을 엿보게 하고 있다.

전통적인 한국인의 혼례의식은 연애혼인으로부터 신들의 결혼, 중매혼, 조혼, 연혼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집안간의 결합형태 성행

그러나 조선조를 넘어와서는 유교의 효도관에 의해 자손번창이란 면을 강조하게 되었다. 따라서 개인 의사에 의한 결합이라기보다는 집안간의 결합형태의 결혼이 지배적이었다. 이 같은 사회적 상황 때문에 이들 간의 협의에 의한 중매결혼이 성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사회적 상황은 아직까지도 가문을 따지는 결혼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통혼권을 살릴 때 지위가 높은 이들은 높은 이들과 끼리 결혼하는 세태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으며, 생활권의 확대에 의해 가까운 곳에서 배필을 구하기도 하나 먼 곳에서 배필을 구하기도 한다.

책임감 있는 젊은이들이 뒤흔친 신랑 신부

오늘날 고급매파가 등장하여 상당량의 돈을 받고

학벌이나 집안이 좋은 배필을 소개해 주고 있지만 성공사례는 별반 없는 것 같다. 동상례를 치르다가 저 세상에 간 이들도 있다.

이것이 구세대 혼례의 결함으로 치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조강지처를 헌 신작처럼 버릴 수 없는 조항도 있어 이혼율이 적었던 점은 구혼례의 장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오늘날은 신혼여행 후 이내 결별하는 '멤비부부'도 많이 생겼고, 살아보고 나서 좋으면 사는 계약부부까지 생겼으니 혼례가 아닌 혼(昏:어둠)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이 시점에서 어느 준칙을 세운다고 따라 줄 젊은이도 없는 세상이고 보면 그런 대로 연애혼(戀愛婚)만이 그 대안책이 아닐까 한다.

모름지기 젊은이들은 신라 김춘추(金春秋)와 아지(阿之)의 혼인설화를 귀감 삼길 바란다.

김유신(金庾信)이 춘추와 뜰에서 놀다가 춘추의 옷끈을 떨어지게 하고 이것을 자신의 누이동생인 아지를 가까이하여 부모에게 고하지도 않고 아지를 임신하게 하였다. 김유신은 남편 없이 임신한 누이동생을 태워 죽이기 위하여 불을 피웠고, 이것을 본 선덕여왕이 김춘추에게 아지를 구하라고 하여 왕의 뜻을 알아차린 김춘추는 아지와 혼례를 올렸다.

바로 이것이다. 책임을 질 줄 아는 연애관을 지닌 젊은이들만이 이 시대의 뒤흔친 신랑, 신부임을 새삼 강조하고 싶다.



풍류와 여가문화



고 동 우 대구대 교수, 여가심리학박사

속세를 떠나 자연과 예술을 가까이 하는 품격 높은 활동을 풍류(風流)라고 불려왔다. 동양에서 풍류는 최고의 인생 가치로서 그것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고매한 잠재력으로 인식되었다. 역사 흐름에 따라 그 의미가 약간씩 달라지긴 했어도 세속을 떠나 여유와 멋을 즐기는 것을 목표로 하는 풍류의 의미는 변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선조들의 풍류야말로 현대적 의미의 여가 본질을 가장 잘 대변하는 말이 된다.

많은 문헌들은 풍류도라는 사상을 선조들의 인생관으로 표현한다. 어떤 학자는 풍류도야말로 우리 민족의 문화와 사상이며, 멋과 재미이고, 전통의 골수이자 한국인의 얼이며 영성(靈性)이라고 말한다.

풍류도의 근원이 단군을 포함한 신선사상에 닿아 있고, 신선의 모습은 풍류도의 이상향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삼국유사에는 “진황왕은 생각하기를 나라를 일으키려면 반드시 풍월도를 해야 한다고 하고 다시 명령을 내렸다. 양가의 남자 중에서 덕행이 있는 자를 뽑아 명칭을 고쳐 花郎이라고 했다...”

라는 표현이 있다.

그래서 풍류도와 화랑도는 동일한 사상적 궤(軌)를 지니고 있었다고 하겠고, 화랑이 신라 시대의 문화 선도 계급임을 가정한다면 풍류 사상이야말로 그 시대 여가 문화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풍류사상은 선조들의 여가문화 본질

이러한 풍류도는 고려시대에 들어 팔관회와 같은 국가적 의례 행사를 통하여 추구되었으나, 조선시대에는 이성주의(理性主義)를 표방하는 유학의 영향으로 외형적으로나마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소위 '한량'이라는 부정적 어의를 가진 단어가 풍류를 즐기는 사람의 대표명사가 되었다. 그러나 풍류도가 외형적으로는 해체의 수순을 밟았지만 실제적으로는 개개인에 의해 지향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팔관회 같은 종교 의식이나 화랑도 같은 공개적이고 집단적인 명산대천 유람이 사라졌지만 시간과 금전의 여유를 지닌 양반들은 기방이나 계곡에서

시와 음악을 즐겼다는 증거가 많기 때문이다. 결국 조선시대에는 유학의 영향으로 풍류를 즐기는 사람을 한량으로 치부하여 공식적으로는 이를 거부하였지만 개개인의 삶에서는 풍류를 최상의 생활로 여겼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풍류에 대한 이중적 가치가 지배하던 시기였다고 하겠다.

물론 전통적인 농경 사회에서 풍류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아침해가 뜨기 전에 밭으로 출근하고 해가 떨어진 다음에야 집에 들어오며, 저녁을 먹기가 바쁘게 잠자리에 드는 것이 농부의 생활임을 감안하면 풍류를 즐기는 것은 한량에 다름 아니었다. 농촌사회에서 일과 여가(놀이)는 구분하기 어렵다.

노동의 고단함을 덜기 위하여 노동요가 불려지고, 길쌈놀이나 차전놀이, 쥐불놀이와 같은 전통 여가라는 것들도 노동의 생산성과 협동심을 고양하기 위한 수단적 가치를 지니는 것에 불과했다. 여가 생활이라는 것이 독립적인 영역으로 분류되기는 어려운 사회였다. 그래서 전통적인 농경사회는 일과 여가가 미분화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일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하고, 일을 위하여 놀이가 곁들여져야 할 뿐이었다.

그래서 일을 하는 중간에 ‘짬’이나 ‘틈’을 내어 간간히 여유를 즐겼을 것이라는 주장은 할 수 있어도 ‘놀이를 위한 풍류’를 전통 농경사회의 여가 문화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오랜 역사를 두고 신선사상에 뿌리를 둔 풍류사상이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개인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로 내재되었을 것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산업사회 이행으로 ‘풍류’ 즐길 기회 사라져

경제가 발전하고 농경사회가 산업사회로 진행되면서 일과 여가의 미분화 상태는 분화상태로 전환

되었다. 일터와 가정이 구분되지 않던 과거에는 노는 것이 일이고 일하는 것이 노는 것이 되어야 했지만 직장생활이라는 조건에서 노동 시간과 여가시간은 구분된다.

일을 하는 동안 소담을 나눌 수도 있고 회식 자리를 가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개인에게 의미 있는 여가 기회이거나 풍류는 아니다. 산업사회에서는 주말이나 휴가를 이용하여 여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산업사회에서 경제적 의미의 생산성을 강조하는 기업 내·외부의 분위기는 노동의 피곤함을 가중시켰고, 따라서 여가 목표는 직장 생활로부터 남겨진 피곤함을 씻는 것이었다. 그것이 거의 유일하고 공통적인 여가였다. 이런 상황에서 ‘풍류’를 즐길 수 있는 여가 기회를 가지기는 어렵다.

그러나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전통적인 풍류의 흔적이 우리의 내면 속에 자리잡고 있다는 증거는 많다. 최근에 많이 줄었다고는 하나 직장의 회식 문화가 우리만큼 발달한 나라도 찾기 어렵다. 회식을 하면 반드시 2, 3차를 가서 만취해야 하고, 단체로 지하실에서 노래를 불러야만 직성이 풀린다. 혼자서 술을 마시거나 혼자서 노래부르는 사람이나 혼자서 여행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술, 노래, 유람이 전통적인 풍류의 한 종류이지만 현대인들에게 있어 이러한 풍류는 마치 보여주기를 위한 가식적 풍류일 뿐이다. 술자리를 통해서 자신이 술을 잘 마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 솜씨를 보여주어야 하고, 여행을 가되 어디를 갔다왔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할 뿐이다. 이런 여가 활동을 통하여 자신이 풍류가(風流家)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 좋고 경관 좋은 계곡에서는 더 심한 경우를 보게 된다.

그들의 풍류는 더 이상 시와 음악을 통하여 자연과 합일되는 그런 경험을 추구하는 게 아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연과 동떨어진 기계음에 취해 자연을 짓밟기 일쑤이고, 조금 나이가 든 사람은 예외없이 고기 굽는 즐거움에 빠져있을 뿐이다.

풍류사상의 본질은 없고 형식은 왜곡

여름을 보내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의 똑같은 질문을 받는다. “이번 여름 휴가는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나는 휴가를 집에서 보냈지만, 사람들의 머릿속에 휴가는 다른 사람들이 갈 때 어디를 다녀와야만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외국여행이라도 하면 여행에서 무엇을 하였는지를 말하는 것보다 어디를 다녀왔는지를 먼저 말한다. 유명한 동굴이나 계곡에는 다녀간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지곤 한다. 전통적인 풍류사상에서 추구되던 자연동화의 체험이나 순례, 심신수양의 본질은 사라진지 이미 오래되었다. 현대인에게 여가는 더 이상 잠재력을 배양하고 실현하는 풍류의 기회가 아닌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여가 문화가 이런 가식적 풍류의 모습으로 자리잡게 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 경제적 생산성을 사회의 최우선 목표로 하는 가치관 때문이다. 노동 생산성을 강조하는 국가 정책이나 사회의 분위기에서 여가 생활은 피해야 할 요소로 간주된다.

설사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노동 생산성의 보완적 기능으로서 일의 연장선에서 조금 허용될 뿐이다. 그러므로 직장회식이라는 것이 허용 좋게 회사 차원



에서 여가 기회로 제공하지만 그것은 단지 직장의 생산성과 협동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몇 년 전만 하여도 주말에도 출근하는 사원을 최고로 꼽던 시절도 있었다.

둘째, 현대인의 가슴속에 풍류의 형식은 남아있되 풍류의 본질은 제대로 전승되지 못한 탓이 있다. 일제시대라는 역사적 단절과 급박한 산업화 정책으로 인해 개개인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전통적인 행복보다 시대 환경에 적응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들이 여가 혹은 풍류의 본질을 왜곡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에게 전통적인 풍류생활의 매력이 남아 있으므로 그 형식은 전승되었으되 본질은 왜곡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진정한 여가, 풍류사상 본질 수행하는 것

그렇다면 진정한 여가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전통적인 풍류 사상이 내포하고 있던 가치에서 찾을 수 있다.

자연이 세계의 일부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연의 모습과 자연의 소리를 깨닫고 즐기는 것이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게 풍류라면 이런 풍류의 본질을 수행한 것이야말로 여가의 진수인 것이다.

그러나 이런 풍류를 즐기기 위해서는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야 한다. 과거 화랑 교육이 그러했던 것처럼 어린 시절부터 입시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풍류를 즐길 수 있도록 그 능력을 키워준다면, 아이들의 풍류 기회가 많아질 뿐 아니라 미래 사회는 행복한 사람들로 가득 찬 사회가 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여가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목표’라는 표현도 이와 다르지 않다.



▲ 자연이 세계의 일부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연의 모습과 자연의 소리를 깨닫고 즐기는 것이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 풍류라면 이런 풍류의 본질을 수행한 것이야말로 여가의 진수인 것이다.

재외동포 문화예술인 한민족네트워크 구축

재외동포들의 문화예술축제인 2003 세계한민족문화제전(이하 한민족제전)이 지난 9월 1일부터 5일까지 서울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병현)과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가 공동주최하고 외교통상부가 후원하며 국제방송교류재단 아리랑 TV(사장 김충일)이 주관한 이 행사는 올해 3회째 열렸다.

이번 문화제전은 연어의 모천회귀 본능을 재외동포의 귀향심에 비유, 모천제(母川祭)라 명명하고 다양한 분야의 재외동포 문화예술인들을 초청했다.

재외동포재단 관계자는 “이를 계기로 내외 동포간에 ‘한민족 공동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민족 문화예술의 뿌리에 대한 애착심과 가치를 일깨우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민족제전은 개막행사, 재외동포 저명음악인 초청 특별공연, 재외동포 전통예술 경연대회, 재외동포 청소년미술·서예전, 한민족 문화공동체 대회, 재외동포 문학상 시상식, 문화기행 등으로 꾸며졌다.

□ 개막행사

1일 호텔롯데 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개막행사에는 재외동포 민족교육자, 문화계 인사 등 250여명이 참석해 문학상 및 청소년 미술서예전 시상식과 축하공연을 가졌다.





▲ 2003 세계 한민족문화제전에서는 한민족 정체성 회복을 위한 전통예술경연대회도 개최한다.

□ 재외동포 저명 음악인 초청 특별공연

2일 예술의전당 음악당에서 열린 이 공연에는 수원시립교향악단(지휘 강석희)과 스위스에서 활동하는 소프라노 정민희, 유럽 언론에서 극찬을 받은 테너 정의근 등과 세계적 바이올리니스트들이 후원을 자청할 만큼 뛰어난 첼리스트 김두민, 12세로 국제음악콩쿨에 상위 입상한 바이올리니스트 김사라가 협연한다.

□ 제3회 재외동포 전통예술경연대회

3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열린 이 대회는 한민족 정체성 회복과 전통문화예술 계승에 이바지하기 위해 기악·성악·무용·사물놀이 등 4개 부문에서 열렸다.

△ 제3회 재외동포 청소년 미술·서예전

1일부터 5일까지 금호아트갤러리에서 열린 미술·서예전은 세계 각국에 살고 있는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그 곳의 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보고 느낀

바를 바탕을 화선지에 옮긴 작품작 가운데 서예 20점, 회화 55점이 전시되었다.

□ 제3회 한민족문화공동체대회

문화예술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매년 장르를 달리해 열리는 이 행사는 올해 1일부터 5일까지 서울 강남 아미가호텔에서 '디아스포라, 아이덴티티, 그리고 문학'이라는 주제로 국제펜클럽한국본부(회장 성기조)와 대산문화재단(이사장 신창재), 재외동포재단이 공동주최했다. 재외동포 문인 50명과 국내 문인 50명이 참가해 한민족문화포럼 등을 통해 한민족 문학네트워크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회에서 김우창 고려대 명예교수가 '민족과 보편적 지평'이라는 주제로 행한 기조강연을 다음과 같이 요약 소개한다.

재외 발제자로 이회성(일), 아나톨리 김(러), 명계웅(미), 박선석(중), 감기청(미), 안우식(일), 아스트리드 트로치(스웨덴), 일레인 김(미), 현월(일), 임창현(미), 김학천(중)씨, 국내 발제자로는 김문환·김우창·최원식·안정효·김성곤·고은씨 등이 참여했다.

민족과 보편적 지평



김 우 창
문학평론가, 고려대 명예교수

“나를 반성해야 내 삶을 소유한다”

‘도덕경’에서 노자(老子)가 그렸던 이상적인 나라는 사람들이 문호를 닫고 작고 오붓하게 사는 소국과민(小國寡民)의 나라였다. 오늘날 세계의 불행은 이런 자족적인 사회가 불가능해진 데 있다. 서로 다른 문화들의 충돌이 사회와 윤리를 혼돈에 빠뜨리는 상황에서, 변화 확대하는 세계에 적응하는 것만이 살아남는 방법이 됐다. 오늘의 세계의 실상은 변화 확대하는 세계에 적응하는 것만이 살아남는 방법이 되게 하고 있다. 그리하여 소국의 이상이나 대국의 힘의 추구냐 또는 문화적 단일성이나 그 복합화냐—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바른 대답이 무엇이나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되었다.

한국은 세계에서 드물게 소국의 이상을 받아들여 왔던 사회였다. 그 나뭇의 자족적 사회의 이상을 구현하려 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세계에 활짝 열린 사회가 됐다. 이러한 외부적 조건의 변화에는 의식의 변화가 따르지만 그것은 간단히 이뤄질 수 없다. 의식 변화의 느린 속도는 사회 혼란의 원인이 된다.

인구의 세계적 분포와 확산이라는 점에서는 아마 세계에서 중국인, 인도인 그리고 유태인과 더불어 가장 널리 그리고 많이 퍼져 있는 민족의 하나일 것이다. 물론 한민족, 조선족 또는 고려인의 이러한 확산과 분포는 단지 한국의 개방적 에너지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 상당 부분이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로 인한 것이 사실이다.

‘보편성’이란 우리가 삶과의 관련에서 지닌 막힘 없는 상태의 느낌, 즉 무애(無碍)의 존재론적 바탕을 이룬다. 민족이나 국가의 팽창적 에너지는 물질 생활의 번영, 민주, 인권과 같은 보편적 이념을 낳았다. 민족주의는 한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이념이지만 세계사적 관련 속에서 보편화로 나아가는 한 단계로서 이해해야 한다.

한 사회의 의식의 습관이나 존재방식이 바뀌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손바닥 뒤집듯이 간단히 이뤄질 수 없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회 변화—그리니까 모든 것의 모체로서의 정신, 정신과 감성의



▲ 풍기군수였던 이항의 건의로 '소수서원'이라는 사액과 사서·오경·성리대전 등을 하사받아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으로 공인 교육 기관이 된 소수서원 전경. 서원은 조선 중·후기에 걸쳐 많은 인재를 배출, 학문과 정치의 요람이 되었다.

습관, 인간관계의 규칙 이러한 것들의 변화는 정신의 많은 것이 그러하듯이 그 나름의 속도--느린 속도를 가지고 변화할 수밖에 없다. 의식 변화의 느린 속도는 사회 혼란의 원인이 된다.

한 국가나 민족이 당당하게 세계 속에 서기 위해선 역사에서의 성취가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 상승은 문화적 정체성을 돌아보게 했지만, '한국문화의 우수성'과 같은 강박적인 말은 어색하다. 이런 우수성을 늘 내걸어야 하는 상황은 우리가 보편적 차원에 이르지 못했음을 말해준다. 자유·평등·휴머니즘과 같은 이상과 우월감이 모든 일에 배어 있는 미국과 유럽 역시 그들의 보편성의 토대를 삶 속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이념들이 자신들에게만 있다는 주장은 그들의 의식이 다른 지역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나는 학교에 재직하면서 업적 보고서 제출 요구에 늘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외적인 업적을 통해 자아를 인식하는 사람은 자유로운 주체로서의 자신을 손상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을 돌아보는 반성적 서사를 통해 나는 보다 고양된 삶의 차원에서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수 있다. 집단의 경우에도 이런 반성적 자기회복은 주어진 삶을 소유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한국의 역사에서 지금처럼 자아 의식이 높았던 때는 없었을 것이다. 이것은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다음 단계는 우리의 이야기를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관점에서 되돌아보는 일이다. 한국인이 단일 민족이라는 말이 맞든 그렇지 않든 오랫동안 다른 민족과 문화에 폐쇄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민족과 국가의 일치도 다양성을 경험할 기회를 축소시켰다. 그런데 20세기에 이르러 민족과 국가가 불일치된 것, 즉 같은 민족이 여러 국가로 흩어진 것은 평화적인 연대와 보편적 의식을 향한 문을 열어놓은 것이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한국은 인간의 삶에 대해 윤리적 관점을 지니고 강하게 유지해온 나라라는 점에서 특이하다. 미국의 한국사학자 에드워드 와그너 교수의 지적처럼 조선조의 체제가 그렇게 오래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나름대로의 현실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직의 청렴도는 높았고 군대·경찰에 의존하지 않고도 평화적 체제를 유지했다.

앞으로의 세계가 평화와 공존·번영을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궁극적으로 인간의 윤리에 대한 철저한 의식이 필요하다. 정치적 힘과 윤리의 불가분성에 대한 철저한 의식은 미래를 위한 우리의 위대한 유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리 박전걸 기자〉

잊혀진 여성의 역사를 찾는다

한국여성향토문화연구원 차옥덕 원장-“역사연구에 문학적 상상력을 보탠다”

향토문화를 연구하는데 남녀의 구분이 있을 수는 없다. 심지어 남성 영역이라고 치부했던 부분까지 여성으로서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 사례도 많다. 이제는 격렬한 스포츠로 알려진 격투기에도 여성선수가 있고 ‘철인’ (鐵人) 반열에 오른 여성도 등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토연구자 중에 여성이 거의 없는 게 기이한 현상이다. 예술공연이나 문화강좌 같은 곳에 여성 고객이 없다면 모르긴 해도 그 공연이나 강좌는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일 것이다.



▲ 여성의 역사를 찾기 위해 회원들과 정기적으로 현장답사를 한다.

잊혀진 여성인물 발굴에 온갖 노력

차옥덕(53·문학박사) 원장은 그런 면에서 특이(?)한 존재이면서 향토사 연구와 발굴에 남성 이상의 능력과 열정을 발휘하고 있다. 그는 특히 여성의 입장에서 남성 중심의 역사관에 끊임없는 이의(異議) 제기를 하며 나선다. 여성학자로서 대학 강단에도 서지만 그보다 더 열정을 불태우는 작업은 여성역할의 ‘역사적 복원’이다.

“고구려의 역사는 인정하면서 왕비를 인정하지 않고 배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면서 그 당시의 상황을 마치 영화를 본 것처럼 상세히 설명한다. “고구려 건국의 실질적인 주체가 소서노(召西奴)라는 여성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부여에서 도망나온 주몽이 결혼했을 당시 소서노는 전 남편 소생인 비류와 온조라는 두 아들을 둔 여덟 살 연상의 여인이었지요. 소서노가 없었다면 스물한 살의 망명자에 불과한 주몽이 어떻게 토착세력의 뒷세를 극복하고 고구려를 건국할 수 있었을까요.”



▲ 향토문화연구원 연구자들과 함께. 왼쪽 두번째가 차원장, 세번째는 김현 부원장 (단국대 공예학과 교수).

“고구려 · 백제 개국 산파역 소서노(召西奴)”

그에 따르면 주몽의 고구려 건국은 소서노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이다. 소서노의 도움이 절대적이었을 거라는 근거는 소서노의 ‘奴’에서 찾는다. 노는 고대어에서 영역을 뜻한다는 설명. 즉 서쪽 영역을 지배하는 자이므로 부족장의 자제 신분이었을 거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망명자인 주몽이 소서노와 결혼함으로써 그 부족의 자원을 이용, 고구려를 건국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추론이다.

“고구려가 훗날 비류와 온조 대신 주몽의 전처 소생인 유리왕이 왕위를 물려받자 아들 온조를 데리고 백제를 건국한 것도 역시 소서노였습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 한강 유역에 도읍을 정한 것도 현명한 그녀의 아이디어였겠지요. 이미 고구려를 건국했던 경험과 노하우가 있었으므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업적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습니다. 남성 중심의 역사 기술 때문이지요. <삼국사기>에 그녀의 죽음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다른 왕비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녀의 업

적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란 반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길’ 개척한 여성 역사적 조명

차 원장은 여성으로서 두 나라를 세운 소서노의 업적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소서노가 당시 동북아시아의 중심적인 인물이라는 것이다. 소서노는 평화와 생명 존중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백제가 찬란한 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토대를 일찍 마련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차 원장은 소서노를 비롯해서 16세기의 허난설헌, 18세기의 김삼의당, 19세기의 김금원 등에 관한 자료수집과 연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자신의 길을 가고자 하는 열망에 넘친 여성들에 대한 역사적 명예 회복을 시도하는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고대시대부터 조선시대, 근대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에 대한 발굴작업은 쉽지 않은 작업일 터이다. 자료가 남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기록을 남기지 못한 여성들은 더욱 많았을 것이다. 차 원장



차 원장은 “우리 상고사가 이렇게 짧아지게 된 것은 식민사관의 영향이 크다. 무조건 사료의 뒷받침이 없다고 외면할게 아니라 찾아서 채워 넣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은 그 자신이 터득한 ‘역사 문학적’ 방법으로 정검 다리를 놓듯 하나 하나 복원해 나갔다고 한다. 중간 중간 끊어진 맥락을 역사연구방법론에다 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해 하나씩 조각그림을 끼워 넣는 방법이다. 차 원장은 “우리 상고사가 이렇게 짧아지게 된 것은 식민사관의 영향이 크다”면서 “무조건 사료의 뒷받침이 없다고 외면할 게 아니라 찾아서 채워 넣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성 향토사학자 지원제도 필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향토문화대전> 편찬작업에도 적극 나서서 역사·향토사에 여성들이 외면당하지 않도록 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발굴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차 원장은 “앞으로 여성 향토사학자들이 많이 늘어나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문화원 등에서 지원을 해주었으면 한다”고 제안하면서 문화와 감성을 중시하는 시대에 여성의 예민한 감수성이 향토자료 발굴과 육성에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여성향토문화연구원에는 회원이 150여명이고 이중 여성회원만 110명에 달한다. 이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정기모임을 갖고 중국어, 일어 등 어학스터디를 하거나 향토 역사를 함께 공부한다.

또 한달에 한 번 유적지 답사와 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들만의 특별한 경험을 나누기도 한다. 차 원장은 (사)백제문화연구회 공동대표와 용산향토문화사학회 회장도 맡고 있는 맹렬 여성향토사학자. 성신여대 및 천안대학 외래교수, 서울시 여성학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저서로 <여인들의 향기> <백년전의 경고-방한림전과 여성주의> 외 다수가 있고 곧 <허난설현 평전>도 낼 예정이다.

〈박전결 기자〉

천년의 고도 서라벌

세계인이 어우러진 문화한마당

천마의 꿈을 신라 천년의 소리로 공연

웅장한 북소리를 시작으로 백결공연장에 2003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이하 경주문화엑스포) 주제공연인 총체음악극 '에밀레-천년의 소리' 공연이 시작된다. 객석에는 빈틈없이 자리한 관람객들이 공연을 보고 있다. 행사기간 동안 매일 2회씩 공연되는 박진감 넘치는 공연은 다수의 신라 백성을 위해 희생된 한 어린아이의 맑은 영혼으로 탄생된 신비의 소리 '에밀레중'에 관한 감동적인 설화를 바탕으로 꾸며진 음악극이다.

전통무예인 택견과 선무도를 활용한 박진감 있는 군무와 이야기의 변화에 따라 이어지는 북소리와 판소리는 우리 문화를 더 실감있게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이 공연은 중견연출가인 김아라씨가 총연출을 맡아 30여명의 출연진을 비롯해 제작, 스텝, 진행 등 모두 80명이 어우러져 만든 음악극이다.

공연의 내용은 성덕대왕신종의 신비한 소리,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이다. 성덕대왕신종은 신라 35대 경덕왕이 선대왕인 성덕대왕과 왕후 소덕태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구리 12만 근을 들여 만들어 오던 나라의 큰 불사였다. 경덕대왕 때에 몇 번에

걸쳐 종을 주조했으나 실패 끝에 승하하고 어린 혜공왕이 즉위한다. 혜공왕 역시 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던 끝에 흠 없는 어린아이를 공양하면 좋은 종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스님을 통해 어린아이를 공양하여 마침내 성덕대왕신종을 완성하는 과정을 50분 동안 담고 있다. 이 공연은 개막 기간 동안 140회 정도 공연된다.

다채로운 행사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및 경주시 일원에서 펼쳐지는 72일간의 행사가 말해주듯 볼거리와 참여 프로그램이 가득하다.

경주문화엑스포는 경상북도(도지사 이익근), 경주시(시장 백상승)가 공동주최하고 문화관광부 외 17개 정부기관 및 단체들이 후원하고 2003경주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위원장 이익근)가 주관하는 대표적인 문화축제이다.

'천마의 꿈'을 주제로 '함께 그러나 다르게'를 부제로 하여 새로운 문화비전과 화합하는 문화적 이상을 제시하고 있다. 3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재미있고 감동적인 행사내용, 편안하고 즐거운



관람환경, 경주시가지 행사의 대폭적인 확대, 문화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어 치러지게 된다. 문화엑스포는 주제행사, 공식행사, 국제행사, 참여행사, 특별행사, 시가지행사로 나뉘어진다.

세계 신화전 - 함께 만드는 꿈과 사랑

행사의 핵심적인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주제 행사에는 천년의 세월을 이어온 신비의 소리 '에밀레중'의 탄생설화에 얹힌 이야기를 한국적 몸짓, 전통가락과 현대음악, 영상으로 풀어낸 에밀레 천년의 소리가 공연된다.

이 외에도 '신화-함께 만드는 꿈과 사랑'을 주제로 한 세계신화전이 신라설화 중 가장 신비로운 인물인 기파랑과 전설의 피리 만파식적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화랑영웅 기파랑전'이 매일 16회씩 상연된다.

세계인의 문화한마당

8월 13일 엑스포의 서막을 여는 개막제를 공식행사로 하여 세계인의 문화한마당 국가의 날, 문화로 교류하는 시·도의 날이 행사기간 중에 다채로운 내용으로 세계 여러 나라와 각 지역의 문화와 공연이 펼쳐진다.

폐막제는 오는 10월 23일 행사에 참가했던 각국의 공연단과 관람객이 한자리에 어울려 72일간의 문화축제를 마무리한다.

11개국 13개 공연단의 예술축제

11개국 13개 공연단이 펼치는 세계무대예술페스티벌, U대회 세계대학생 춤 페스티벌이 세계공연 예술축제로 열린다. 세계꼭두극축제는 일본의 금도끼 은도끼, 멕시코의 신기한 거품, 중국의 인형극, 베트남의 수중인형극, 스페인의 줄인형 댄스극 등을 내용으로 한다.

문화의 다양성과 공동가치를 주제로 열리는 국제학술회의는 국내외 석학, 전직 국가원수, 세계적 지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다.

지난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린 경주국제청년문화축제는 30개국 200여명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 다양한 문화축제 프로그램과 문화유산 탐방, 워크숍 등으로 진행되었다.

참여행사 - 천마에서 마시마로까지

체험의 즐거움을 주는 참여행사는 신라 저자거리로 구성된 난장뜨기, 직접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컴퓨터 게임관, '천마에서 마시마로까지'라는 주제로 열리는 세계 캐릭터 애니메이션전, 대학문화축제, 도민참여마당, 지역문화예술인의 기획전시, 참여 길놀이 마당이 있다.

특별행사

특별한 감동, 특별한 느낌을 전하기 위한 특별행사로 영상컨텐츠 상영, 신과 인간, 에로스의 미학을 주제로 한 세계성문화예술전, 세계 최고의 기예를

자랑하는 러시아 볼쇼이 서커스가 볼거리이다.

이 외에도 세계의 풍물을 한곳에서 볼 수 있는 세계버룩시장, 야외조각 심포지엄, 토요일특별무대인 멀티 이펙트쇼 등이 펼쳐진다.

시민참여 시가지 공연

문화엑스포 기간 중 문화축제가 엑스포공원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주시내에서 경주문화원, 문화단체 등의 주관으로 다양한 시가지공연이 펼쳐진다.

지난 8월 12일 저녁 열린 경주문화엑스포 전야제는 경주시내 천마총에서 2만여 명의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 전야제를 시작으로 행사기간 중에 경주시내에는 상가축제, 제31회 신라문화제가 열리고 홍보행사로 남산유적 답사가 열렸고 초롱등 달기 행사가 진행된다.

전시·공연행사로는 시가지 야간공연, 낙동가요제, 대한민국 관악제, 신라유적 시화·그림·사진 전시회,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이 펼쳐진다.

체험행사로는 신라토기 제작 및 탁본 체험장, 국궁체험장, 설화의 현장 따라 경주기행을 통해 문화체험을 할 수 있다.

특별이벤트로 야간특별공연, 야외오페라, 야외창작극이 열려 72일간의 문화축제를 이어간다.

모두 함께 즐기는 문화축제

규모가 클수록 하나된 축제를 이루어내야 한다. 2002년 월드컵의 성공 역시 한마음으로 월드컵을 즐겼기에 세계 여러 나라의 부러움을 샀다. 문화엑스포 역시 지역민과 관람객, 문화엑스포를 진행하는 사람 모두가 문화축제로서 즐기며 서로 배려할 때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조직위측은 경주문화엑스포를 찾는 사람들을 위해 경주 문화유산 10곳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록 배려하고 있다.

문화도시 경주에서 펼쳐지는 문화축제를 즐기고 문화유산을 알차게 관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ultureexpo.or.kr>)나 홍보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행사장을 찾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정경식 기자〉

세계 68개국이 한 자리에 도자예술축제 성대한 개막

우리 도자문화의 전통과 우수성을 알리는 제2회 경기도세계도자비엔날레가 국내 대표적 도자 본산지라 할 수 있는 경기도 이천(세계도자센터), 광주(조선관요박물관), 여주(세계생활도자관) 등 3개 지역에서 지난 9월 1일 성대한 막을 올렸다. 이 행사는 10월 30일까지 계속된다.

이번 비엔날레는 도자선진국이라 일컫는 중국, 일본, 영국을 비롯, 전 세계 68개국에서 전통 및 첨단 도예 작품 2,400여점이 행사장 3곳에 전시되었다. 인류의 도자문화 역사의 흐름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함으로써 교육적 흥미를 줄 수 있게 많은 신경을 쓴 흔적이 보였다.

또한 권순형 한국커미셔너를 비롯, 세계적 커미셔너와 큐레이터 등 외국의 유명 전문가들이 대거 참가하는 학술행사도 동시에 개최되어 현대 도자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천 세계도자센터 이곳에서는 제2회 국제공모전 입상작들을 전시한다. 총 2,454점이 응모하였으며 이중 215점이 입선작으로 선정되었다. 공모전 대상은 한국계 미국인 여선구(48) 작가의 ‘알프레드 섬머’가 선정되었다. 금상에는 스티븐 몽고베리(미국), 가즈고 나카시마(일본) 작가가 각각 수상했다.

이곳에서 열리는 기획·특별전으로 ‘NOW & NOW’-세계현대도자전이 있다. 한국을 비롯 아시

아, 미주, 유럽 등 17개국 작가들이 출품한 가장 현대적이고 국제적인 도자미술의 정수를 보여준다.

‘스페인도자전’은 1세기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시기별 주요 작품 80점을 전시한다. 스페인의 도자 역사를 국내 최초로 전시한다.

▽광주 조선관요박물관 ‘조선도자 500년’은 조선도자에 깃든 아름다움을 보여줄 명품을 전시하고 있다. 국보 2점과 보물 5점을 포함한 247점이 전시되고 있다. 아무 장식이 없는 순백자, 왕실에서 사용한 백자 청화용문항아리를 비롯한 진사백자, 청화 백자 등이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도자특별전’은 우리 고유의 도자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현대 전통도자의 새로운 미학을 파악해보는 전시. 분청, 백자, 옹기를 현대화시킨 22명의 작가가 110점을 출품했다.

‘중국 광둥성 불산도자 인형전’은 경기도와 광둥성간의 문화교류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광둥성박물관 소장 도자인형 78점을 전시. 명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불산 도자인형의 전통과 역사를 한자리에 볼 수 있다.

▽여주 세계생활도자관 ‘세리믹 하우스’는 도자기나 세라믹 소재의 제품들을 이용, 실제 생활 공간의 인테리어와 함께 배치되는 새로운 형식의 기획전. 도자기 제품들을 이용한 다양한 공간 연출과 활용범위를 보여줌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 도자의 아



▲ 기획 및 특별전시에 참가한 각종 도자 작품들.

름다움과 효용성을 재발견할 수 있다.

‘피카소 도자 특별전’은 현대미술의 거장 파블로 피카소의 자유로운 예술정신과 다양한 표현기법, 도예가로서의 색다른 모습 등을 살펴보는 자리. 또 스페인 출신의 세계적 거장인 호앙 미로의 작품도 함께 전시되어 두 거장의 작품 비교도 좋은 감상포인트.

‘세계 10대 도자기업 명품전’은 100년 이상 도자기업 활동을 해온 오스트리아의 아우가르텐 등 유명 도자 브랜드 10개사의 명품과 그들이 생산하는 생활도자기의 다양한 디자인과 스타일, 도자기의 문양과 전자기법 등을 엿볼 수 있는 기회.

▽**학술행사** 이천세계도자센터에서 열리는 ‘국제도자학술회의’는 국내외 23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창조성을 주제로 현대도자-재료와 개념, 도자문화의 지역성과 국제성, 전승과 혁신-새로운 가능성을 이란 3개 소주제로 나누어 도자예술과 창작의 문제를 논의한다.

광주조선관요박물관 다목적실에서 열리는 ‘조선관요 연구 학술세미나’는 광주 분원 도요지 발굴 성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문제점과 방향, 과제 등을 전망해 보는 자리. 조선백자와 분원 관요의 역사라는 주제로 한국 미술사학계가 중심이 돼 10여명의 학자가 참여한다.

이천세계도자센터 도예공방에서 열리는 ‘이천국제도자워크숍’은 미주,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등 대륙별 주요 작가들과 한국 작가들이 참여해 예술적 교류와 작품 제작에 대한 토론과 실연을 펼친다. 도자와 조형, 도자와 전통, 도자와 회화 등의 주

제로 국내외의 36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특히 국내 작가들의 작품 전시와 함께 일반인 참여 프로그램도 있다.

광주조선관요박물관에서 열리는 ‘광주 전통가마 워크숍’은 현재까지 발굴된 백자가마 자료와 전통가마를 직접 제작 사용하고 있는 도예가들의 경험을 모아 가장 효율적인 전통가마를 제작 공개하는 행사. 구전으로 전수되어온 전통가마의 제작기술을 최초로 발굴, 정리하는 의미도 있다.

▽**지역축제 한마당** 을 세계도자비엔날레는 이천, 광주, 여주의 지역 도자기축제와 함께 어우러진다. 제17회 이천도자기축제, 제6회 광주분원왕실도자기축제, 제15회 여주도자기박람회 등이 일제히 동시 개막되어 도자비엔날레를 찾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주고 있다. 또 각 지역축제별로 갖가지 풍성한 민속공연과 예술제, 참여이벤트 등으로 관람객들을 흥겹게 해주고 있다.



▲ 제2회 국제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한국계 미국인 여선구 작가의 작품 ‘알프레드 섬머’.

〈박전걸 기자〉

정정희 당진문화원장과 남성희 대구 북구문화원장의 대담

중년여성들의 문화갈증 해소해야

여성의 사회참여라는 말이 요즘처럼 인구에 회자된 적이 없다. 그러나 전국 216개 지방문화원 가운데 여성 원장은 정정희 원장(충남 당진)과 남성희 원장(대구 북구) 두 분뿐이다. 지역사회에서 여성운동가로 혹은 시민운동가, 교육자로 활동하고 있는 두 분이 어렵게 자리를 같이하고 여성 특유의 시각으로 문화원 운영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2003. 8. 8(금) 10:00~12:00 전국문화원연합회 <편집자>

말처럼 쉽지 않은 여성의 사회 참여

정

정정희(이하 정) : 저는 평소 문화원 임원으로 참여를 해왔는데 남원장님은 영입케이스군요.

남

남성희(이하 남) : 예, 몇 차례 사양을 했지요.

정

여성의 사회참여가 말과 같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여권신장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나름대로 열성을 가지고 일해 왔습니다마는 남원장께서는 학교나 시민단체 일 등으로 해서 시간 배분에 어려움이 많으시겠군요.

남

예, 그래도 문화원과 학교가 지근 거리에 있어 큰 불편은 없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바랍니다.

정

문화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정보교환을 위해 연락체계가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

전국 216개 문화원 중에 여성 원장이 둘 밖에 없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압니다. 우리 북구문화원은 원장인 저를 비롯해서 사무국장과 간사가 전부 여성 일색이라 업무 처리도 훨씬 세심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 원장님께서서는 혹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정

우리 당진만 해도 보수성향이 강한 곳으로 저의 문화원장 취임은 하나의 사건으로 많은 시선을 받게 되었는데 지역문화 활동에 대한 관심과 기대보다는 능력과 자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나 봅니다.

오히려 주목을 받는다는 것은 장점이 될 수도 있지요.



▲ 정정희 당진문화원장



▲ 남성희 대구 북구문화원장

문화 분야는 여성이 보다 많이 진출해야

남 문화 쪽은 세심한 주의력을 요하는 분야이고 또 많은 여성들이 진출해 있어서 여성 문화원장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정 젊은 세대는 남녀 구별 없이 모든 것을 공유하지만 중년 이상의 세대는 여성들이 문화의 수요자로서 더 많은 감증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당진은 전통문화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충효예의 고장입니다. 그래서 문화의 세기를 사는 우리 앞에 당진은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인 당진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남원장께서는 어떤 동기에서 시작하셨는지요?

남 대구 북구라고 하면 서울 쪽에서 초입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요. 대구 중에서도 소외되고

낙후지역으로 척박한 곳이지만 문화란 그 지역 특성이나 지역 사회성에 맞게 생성되고 이어져 오는 것이라고 볼 때 그 실상에 접근하는 지역문화를 창달해 나가는 것이 문화원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해서 기꺼이 맡게 되었습니다.

흔히 지방을 외곽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라고 했듯이 옛 문화를 후세에 전하는 일 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당진에는 450년 전통의 기지시 줄다리기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 당진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내년에 한·일 줄다리기축제를 준비 중에 있고 두레농악의 발굴과 보존 등 미래의 서해안시대를 대비한 문화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담

저희는 폐교를 원사로 활용하고 있어 운동장에서 영상물을 상영해 보니까 주민들의 반응이 참 좋아요. 앞으로는 국악이나 클래식, 전시회 등의 문화행사를 비롯해서 국제행사도 유치하려고 합니다.

문화강좌나 행사는 지역실정에 맞게

정

문화행사나 강좌는 지역정서에 맞는 것을 선별적으로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요.

향토사에 대한 얘기인데요. 내포문화권(內浦文化圈)에 들어 있는 우리 당진은 선사시대의 유물을 비롯해서 한말의 의병활동에 이르기까지 향토사 연구의 범위가 넓어서 이를 체계화해 나가려고 노력합니다마는 ‘달구벌’이라는 옛 이름에서 유래하듯이 대구지역에도 많은 유적지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담

예, 삼국시대부터 정치적으로도 중요하게 인식된 지역으로 금호강 유역에 많은 유적이 분포되어 있어요. 이 유적지를 보존하고 발굴하는 것을 토대로 향토문화지를 매년 발간해 오고 있는데 특히 청소년들의 교재로 활용토록 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지방문화원의 활성화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주민 곁으로 좀 더 다가가는 문화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자면

우리 문화원을 알리는 일 못지 않게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보여 줄 것조차도 마땅치 않아요. 마케팅을 포함해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문제가 선결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

그렇지요. 문화원이 다양한 문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비해 근무환경도 열악한데다 홍보는 뒷전으로 밀려나기 마련인데, 한 번은 택시기사분들을 상대로 간단하게 당진의 역사와 문화재를 소개하는 조그마한 문건을 만들어 돌리면서 ‘사실은 이 내용을 저 자신도 잘 모르지만 주민을 위해서 우리 당진을 찾는 분들이 혹 필요로 하거든 전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우선은 지역 주민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열린 문화원이 되어야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극히 초보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충남 당진문화원에서 재현한 450년 전통의 기지시 줄다리기 재현 모습

삼국시대부터 정치적으로도 중요하게 인식된 지역으로 금호강 유역에 많은 유적이 분포되어 있어요, 이 유적지를 보존하고 발굴하는 것을 토대로 향토 문화지를 매년 발간해 오고 있는데 특히 청소년들의 교재로 활용토록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지방문화원의 활성화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주민 곁으로 좀더 다가가는 문화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남성희>

남

제가 원장을 맡고 보니까 일부에서는 문화원을 개혁의 측면에서 보려는 시각도 있는데, 이것은 종래의 일회성 혹은 가시성 위주의 문화원 운영에서 발미를 준 것도 없지는 않겠지만 오해의 소지도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를 연구하고 개발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성을 갖춘 분들로 채워져 나갔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정

당진문화원은 건전한 보수로서 존재하려고 합니다마는 우리 문화인들의 결속이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내부의 취약점을 보완해 가는데는 문화의 중앙기관인 문화관광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망됩니다

남

우리 조상들은 생활을 통해서 문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앞으로 공부하는 마음으로 직분을 수행함으로써 문화창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문화가족 여러분들의 도움을 바랍니다.

우선은 지역 주민들과 가까워 질 수 있는 열린 문화원이 되어야 합니다.

한 번은 택시 기사분들을 상대로 간단하게 당진의 역사화 문화재를 소개하는 조그마한 유인물을 만들어 돌리면서 '사실은 이 내용을 저 자신도 잘 모르지만 주민을 위해서 우리 당진을 찾는 분들이 혹 필요로 하거든 전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았어요 <정정희>



▲ 대구 북구문화원에서 연 시민과 학생들을 위한 도예체험 모습. 많은 외국인들도 참여해 우리 문화를 알리는데도 좋은 기여를 했다.

정

일부이기는 합니다마는 문화를 경제적인 논리로 바라보려는 시각은 잘못된 발상입니다. 우리 문화가족들이 역경을 무릅쓰고 문화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 해왔기 때문에 이만큼이나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흔히 문화인을 선비라고 하지요. 우리 함께 선비로서의 자세와 거기에 걸맞는 자질을 갖추으로써 우리 문화를 세계 속에 끌어 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집시다.

CEO컨설팅그룹 강석진 회장

“화폭 앞에 앉을 때가 행복합니다”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성공한 CEO’로 꼽히는 강석진(전 GE 코리아 회장) CEO컨설팅그룹 회장. 그는 지난해 말 22년간 맡아왔던 GE코리아 CEO를 물러났다. 미술에 전념키 위해서였다.

강회장은 그림을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한다. 즉 현재 맡고 있는 경영컨설팅그룹의 일과 화가로서의 일이 다 본업이라는 것이다.

로 동화되기 때문입니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가 그림에 입문한 것은 지난 70년대 후반. 박기태, 고차일두, 박덕순 화백 등에게 사사했다. 그리고 10년 전 이미 한국미술협회 정식 회원이 되었다.

“먼 산자락 구비 어디에선가 빠꾸기 소리와 함께 들려 올 것만 같은 삶의 슬픔과 기쁨이 묻어있는 애환의 가락들, 슬픔을 감추고 사는 사람들의 소박한

민족정서를 표현하는 화가

그는 매일 두 번 출근한다. 프레스 센터에 있는 컨설팅 그룹 사무실을 거쳐 화실로 출근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사무실에서는 CEO로 쌓은 경험과 노하우 등을 전수하는 사회적 소명감으로 일하고, 화실에서는 순전히 ‘나’에게로 돌아오는 시간이라고 표현한다.

강회장은 두 번째 펴낸 그의 작품집에서 “캔버스 앞에 앉아 작품에 몰두하고 있는 시간은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하고 소중한 부분입니다. 아름다운 산하의 모습을 화폭에 옮기는 동안 저 스스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 그 속의 하나



강석진 회장의 ‘석양의 가을 들녘’

웃음,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세상의 모든 사랑스러운 모습들을 그리고 싶습니다”라고 작가노트에서 밝히고 있다. 그래서인지 그의 그림은 자연풍경화가 많다. 인물화도 있지만 대부분 아름다운, 그러나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살아 있는’ 아름다움을 화폭에 옮기는 작업을 일관되게 진행하고 있다.

미술사상가 김영재 박사는 그를 낮익은 우리의 산하, 하늘이 비치는 물논, 그 속에서 일하는 아낙네 같은 우리의 정감이 느껴진다면 ‘민족정서를 화면에 담는 화가’로 평했다.

강화장은 수시로 스케치여행을 떠난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여러 나라로 스케치여행을 다니면서 각국의 전통악기를 수집하는 취미도 있다. 그러면서 그 악기의 연주법도 익혀오고 있다. 어릴 때부터 익힌 하모니카, 클래식 기타와 함께 외국 전통악기 연주도 그의 작품 완성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 화실에서 휴식을 취할 때면 수집해 온 전통악기를 연주하며 작품 구상을 가다듬는다. 특히 잉카족 전통악기인 잠포니아를 즐겨 연주한다.

그는 “우리나라 화가들의 수준은 높지만 해외에 잘 알려져 있지 않다”면서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일에 정부와 기업 등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나 선박의 수출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문화를 수출해야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다는 충고다.

원칙과 기본을 지키는 모임도 주도

CEO건설팅 업무와 작품 완성에 몰두하면서도 몇 년째 사회가 제자리를 찾고 맑아지도록 하기 위해 시작한 ‘기본을 지켜 바르게 살려는 사람들의 모임’ (약칭 태평로모임) 공동대표로 모임을 이끌고 있다. 강지원 변호사, 권영빈 중앙일보 부사장, 문용린(공동대표) 서울대 교수, 손봉호 서울대 교수,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신봉승 작가, 윤병철 우리금융그룹 회장, 이정숙 숙명여대 총장, 이시형 사회정신건강연구소장, 차범근 MBC 축구해설위원, 권용태 전국문화원연합회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태평로모임은 ‘우리부터’, ‘나부터’ 기본을 지켜 바르게 살려는 모임이다. 이 모임에서는 여러 가지 중에 탈세하지 않는다, 뇌물을 주고받지 않는다, 공사 구분을 철저히 한다, 사람 차별을 하지 않는다, 건강한 가정을 가꾼다, 환경을 지킨다, 봉사활동을 생활화한다 등 일곱 가지를 반드시 지키고자 다짐한다. 한국 사회에서 기본을 지키고 도리를 다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절감한 사람들의 모임이기도 하다. 설명에서 우리 사회가 좀더 밝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화가 강석진의 소망을 읽기도 했다.

미술에 전념키 위해 CEO 자리를 미련 하나 없이 떠났지만 경영노하우를 전수받으려는 기업과 교육계의 열망에 그는 더욱 바쁘게 살고 있다. 그림 속의 아름다운 우리 산하와 함께.

〈박전걸 기자〉



▲남부 러시아의 해바라기 평야 스케치 여행.



▲우즈베키스탄 스케치 여행 도중 동포들과 함께



▲백두산 스케치 여행.



청춘을 복과 함께 공민선

두둥둥 울리는 신명난 북소리에 맞춘 역동적인 춤사위, 그리고 끊어질 듯 이어지는 소리, 진도북춤의 매력이다. 보통북춤은 한 손으로 채를 사용하여 공연을 하지만 진도북춤은 쌍북채를 이용해 무용을 하게 된다. 그리고 장고가락과 같은 굿거리, 자진모리, 휘모리가락으로 감정을 풀어나간다. 풍물의 흥겨움과 신명에다 아름다운 춤사위가 돋보인다.

북춤은 리듬을 그대로 유지한 채 아름다운 멋을 더해 소리와 몸짓이 하나되어 이루어진다. 일반춤은 대개 무용에 음악을 더해야 하지만 북춤은 음악 자체가 필요 없다. 소리와 춤이 수 백년 동안 흐르면서 일상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

농경사회 시대에 농사일뿐만 아니라 마을 단위의 축제나 행사 등에 북춤을 여러 가지 공연으로 연출해 축제를 더욱 신명나게 하는 등 갖가지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남성적인 다이내믹한 율동

중요무형문화재 제21호 승전무 이수자 공민선(孔敏宣·37). 그는 이 매력에 빠져 북춤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하루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공민선 이수자는 대학에서 창작무용을 배우면서 우리 춤에 대한 공부를 하다가 우연히 진도북춤을 알게 되었다면서 그때부터 사사를 받기 시작했는

데, 배우는 도중에 ‘춤사위가 좋다’는 칭찬을 듣기도 했다고 한다.

공민선씨는 전에는 그냥 잘 모르고 춤만 추었는데, 이제는 ‘춤이 나에게 많은 것을 주고 있구나’ 하며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며 진도북춤 예찬론을 편다.

진도북춤은 여성적인 면도 있지만, 운동효과를 유발하는 동작이 많아 심폐기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춤사위를 보면 간단히 할 수 있는 동작은 아니다. 더구나 양손을 사용해 북을 쳐야 하고 소리도 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칼로리가 소모된다.

또 홀로 추는 춤은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지만, 북춤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선 참여하는 사람들과 호흡을 맞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관객들과의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므로 전체를 헤아리는 마음이 절로 생기게 된다는 설명이다. 그래서 북춤을 계속하다보면 타인을 배려하는 넉넉한 마음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넉넉한 마음을 가지면 북소리도 틀려

공민선씨는 “지금도 그러한 마음을 키울 수 있게 해준 스승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면 북소리도 힘차게 들리지만, 욕심이 많으면 경직되므로 북소리가 다르게 들린다”고 강조한다.

공민선씨는 “진도북춤이나 다른 국악 분야에서 약간의 지식을 얻은 사람들이 강사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걱정한다. 일반 국악강습소들이 체계적인 지식 전달보다는 기능적 역할 부여에만 매달려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복지관이나 구민회관 등에서 활동하는 강사들에게 일정한 자격에 대한 급수를 부여해 체계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야 수강생들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문화원 강사 수준과 기준 마련해야

그래서 공민선씨는 문화원에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수료증을 주고 다음에는 일정한 자격증을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국악 분야에서 제대로 배운 사람들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민선씨는 “대학원 졸업자들이 사회교육원에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대학 지도교수들이 본인의 개인발표회에만 신경을 쓰고 제자들 미래에 대해 등한시하는 풍토 때문에 많은 후배들이 고생을 한다”고 후배들을 걱정한다.

그는 15회 국악대제전 무용부문 우수상, 제24회 전주대사습놀이 무용부문 차상 등을 수상했고 97년 중국 산둥성 공연을 비롯, 99년 인간문화재 박병천 선생과의 ‘한국의 혼-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공연’, 무형문화재 제72호 진도씻김굿 공연 20회, 무형문화재 제21호 승전무 공연 100회 공연 이상을 했고, 일본 21세기 미래박람회-키라라 박람회장 공연도 가진바 있다.

〈박전걸 기자〉

차(茶)는 나를 다스리고

신사임당상 수상한 한국차문화협회 이귀례 이사장

남을 배려...



신라시대 선덕여왕 때부터 즐겨 마시기 시작했다는 차는 우리 문화 여러 부문에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 차를 주제로 한 시가 쓰였고, 다구는 공예에 영향을 주었으며, 차를 마시는 정원이거나 다실이 생겨났다. 조선 실학자인 정약용은 유배지인 전남 강진에 다산초당(茶山草堂)을 열고 승려와 제자들과 함께 차를 나누며 학문을 논하고 교유를 했었다.

선조들의 격조 높은 차문화 생활

〈한국민족문화사전〉에 의하면 조선시대의 회화 중에는 차를 끓이는 장면이 흔히 등장한다고 전한다. 차가 그림의 주제가 되기도 했던 것이다. 특히 김홍도의 ‘시명도(試茗圖)’가 있고 초의의 ‘차공양도(茶供養圖)’가 전해지기도 한다. 김정희의 글씨 ‘명선(茗禪)’은 초의로부터 차를 선물받고 답하기 위하여 쓴 작품으로 유명하다.

고려시대 이후로 승려나 문인들 사이에는 차가 중요한 선물의 하나였고, 차선물을 받은 이들은 다시를 써서 화답하는 예가 많았다.

특히 이목(李穆)의 ‘다부(茶賦)’, 정약용의 ‘걸명소(乞茗疏)’, 초의의 ‘동다송(東茶頌)’, 범해(梵海)의 ‘다가(茶歌)’ 등은 뛰어난 작품으로 꼽힌다. 예로부터 우리나라 선비들은 차를 생활의 한 부분으로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차문화 보급에 왕성한 활동을 해온 한국차문화협회 이귀례 이사장(李貴禮·74). 어렸을 때부터 동학운동을 했던 할아버지로부터 행다법을 보고 익혔다. 1979년 한국차인회 창립 준비위원으로 본격적인 한국 차문화 보급 대열에 참여하기 시작한 이래, 1984년 차문화 동호회인 인설회를 구성했으며, 다신계(茶信契) 부회장(1988), 한국차문화협회 회장(1999)을 역임했고 2001년 한국차문화협회 3대 이사장으로 취임해 더욱 그 활동의 폭을 넓혀 왔다.

1994년부터 해외에서 우리 규방다례 시연과 전통 궁중의상 소개 행사를 가졌고, 국내에서는 도서 지역 등 문화 소외 지역 청소년들에게 차문화를 통한 예절교육에 힘써 왔다.



차는 나를 다스려 줍니다

이 이사장은 “차는 나를 다스려줍니다. 차를 통해 내가 나를 수양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키워 갑니다”라고 차문화 생활 예찬을 한다. 차를 달이며 나를 돌아보고 나 아닌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차를 마시며 이 차가 세상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되돌아보는 철학적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또 가천문화재단 부이사장으로 인륜의 기본이며 우리 전통문화의 핵심이 되는 아름다운 효 사상을 선양키 위해 1999년부터 진정으로 효를 실천하고 있는 효녀를 발굴하는 심청효행상을 제정, 매년 시상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효의 실행은 인간의 본분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고 남을 배려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 바로 효 사상의 핵심입니다”고 강조한다.

효행상 제정으로 효사상 전파

세태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산업시대에서 정보화시대인 지금에도 효 사상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될 근본 질서라는 설명이다.

이 이사장은 올해 훌륭한 여성에게 시상하는 ‘신사임당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지난 사십여 년간의

차생활을 바탕으로, 그리고 2년여간의 자료수집 끝에 <한국의 차문화>라는 차문화 종합교양서도 펴냈다. 제2회 초의문화상(1993), 명원차문화대상(2002), 인천광역시 교육대상(2002)을 수상했으며, 제29회 문화의 날 문화훈장보관장(2000)을 받았다.

현재 (사)한국차문화협회 이사장, 가천문화재단 부이사장, 가천박물관 관장, 가천·경인문화대학 학장, 2001·2002 한국방문의 해 명예홍보사절 등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박전걸 기자〉

- ◀ 앞 페이지 왼쪽 이귀례 이사장.
- ▶ 앞 페이지 오른쪽 이귀례 이사장이 펴낸 <한국의 차문화> 표지
- ▼ 아래 이귀례 이사장이 차생활 지도 시범과 강의를 하고 있다.



인천시 지회장에 허문명 부평문화원장



인천시지회는 전 김동순 지회장의 뒤를 이어 지난 7월 22일 임시총회에서 신임 지회장에 허문명 부평문화원장을 선임했다.

경상북도 지회장 이취임식



7월 18일 상주시청 강당에서 권용태 연합회장, 이의근 경북도지사를 비롯하여 상주시장, 문경시장, 정해창·안우만·송정호 씨 등 전 법무부장관, 각 지역 문화원장, 그리고 도의원과 지역기관 및 단체장을 비롯한 많은 문화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이창교 전 지회장과 이만희(사진)지회장의 이취임식을 가졌다.

서울 중구문화원장 이취임식

지난 8월 13일 중구구민회관 강당에서 김영남 전 원장과 남상만(南相晩) 신임 원장의 이취임식이 중구청장, 중구의회 의장 및 의원 그리고 많은 구민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신임 남 원장은 연세대 경영학과를 나오고 프린스호텔과 대림정(식당)을 운영하면서 중구문화원 개원 초부터 문화원 사업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현재는 간송장학회 이사장, 한국관광협회 이사를 겸하고 있다.

서울 강서문화원장에 이은승 씨 취임

강서문화원은 7월1일 지난 4월 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대한 이은승(李恩承)원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신임 이 원장은 지역사회 발전과 강서문화원 설립추진위원 등으로 그동안 문화원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금천문화원장에 천용근 씨 취임

금천문화원은 지난 6월27일 임시총회에서 제4대 원장에 천용근 씨를 추대하였다. 신임 천 원장은 청소년 선도를 포함하여 지역사회와 문화원 부원장으로 활동해 왔다.

우리문화·역사바로알기 - 강남문화원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19일까지 4회에 걸쳐 '청소년과 부모가 함께하는 우리문화·역사 바로알기 대특강-문화유적 답사'를 가졌다. 신봉승(극작가), 유홍준(명지대 교수), 정양모(문화재위원회 위원장), 이성무(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등 사계 권위자들이 초빙되어 매회 100여명의 문화가족과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우리문화·역사공부시간을 가졌다.



서울시 교육위원회 의장에 나영수 은평문화원장이 당선



서울시 교육위원을 겸임하고 있는 나영수 은평문화원장이 9월 2일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나 원장을 포함하여 2명이 입후보를 한 가운데 재직 위원 14명 중 11표를 얻어 압도적인 지지로 제4대 의장에 선임되었다.

개원 49주년 기념식 - 천안문화원

7월 10일 문화원 강당에서 개원 49주년을 맞아 많은 문화가족들과 함께 더욱 알찬 성장과 향토문화의 요람으로의 정진을 다지기 위한 문화행사를 가졌다.

토요예술무대 - 동작문화원



8월 30일 오후 3시 동작문화복지센터 4층 대강당에서 주민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요예술무대를 열고 동작문화원 예술단, 선무용단 등이 출연하여 태평무, 부채춤, 강강술래, 검무, 장고춤, 서도소리 등을 공연하였다. 동작구와 동작문화원은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본격 실시됨에 따라 동작문화원 문화학교를 중심으로 함께 참여하는 '토요예술무대'를 정기적으로 마련, 열린문화공간으로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한다.

개원 4주년 기념 - 영등포문화원

영등포문화원은 8월 7일 오후 3시 영등포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많은 문화가족과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4주년 기념식을 가지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문화창조를 위해 헌신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제5회 여성미술대전 - 대전 서구문화원

7월 24일 대전시 민회관 소강당에서 제5회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 입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영예의 대상은 문인화 부문 '파초'를 출품한 정재영씨, 최우수상은 한국화부문 '기다림'의 송형정씨와 서양화부문 '항해'의 김태영씨가 각각 수상했다. 이밖에 특선 54점, 입선 121점을 포함 총 178점이 입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대회는 예년에 비해 전체 출품수가 늘어났고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작품 완성도면에서도 수준 높은 작품들이 많이 출품되었다. 입선작은 7월 30일까지 대전시민회관 전시실에서 전시되어 많은 시민들이 참관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대상 : 정재영씨의 '파초'

제14회 대덕제 - 대구 남구문화원

대구 남구문화원은 제14회 대덕제를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대덕문화전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대덕제는 2003 대구하계U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경축행사로서 많은 구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특히 국립무용단 출신 신흥 퓨전예술단의 신명나는 공연이 눈길을 끌었다. 또 필리핀 전통 춤 공연단의 Sagkawan dance, 그리고 세계적인 타악 퍼포먼스의 거장이라 일컫는 카타 초청공연까지 이어져 대덕제 개최 이후 처음으로 국제규모의 행사를 치렀다.

한전기 원장 '지역분권과 문화정책' 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



대구 동구팔공문화원 한전기 원장은 지난 8월 5일 오후 2시 경북대 우당교육관에서 한국문화정책연구소가 주최한 '지역분권과 문화정책의 제과제' 1부 심포지엄에서 '문화예술 활동가 육성 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했다. 가야대학교 연극과 겸임교수로 있는 한 원장은 주제발표에서 '지역문화 활동가에 의한 지역문화 생산능력의 배양은 지역문화 활성화의 기본적 조건'이라 전제하면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본요건은 중앙정부가 실천해야 할 문화분권정책이며 문화민주주의 실현의지'라고 역설했다.

이어 지역의 대학과 지역공공문화시설의 연계를 통한 지역문화활동가 양성과 재교육 방안, 공공문화시설의 전문가연수과정 개설을 통한 인턴십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외영화페스티벌 - 대구북구문화원

대구 북구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돕기 위해 8월 28일부터 양일간 북구문화예술촌 운동장에서 야외 영화페스티벌을 가졌다. 가로 4m 세로 3m의 대형스크린을 운동장에 설치해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애니메이션, 감독 미야자키 하야오), 등이 상영되어 많은 지역주민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또 여름방학 기간인 7월26일부터 8월1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주말가족생활 도예체험교실'을 북구문화예술촌에서 열었다.



충효 청소년문화학교 개강 - 달성문화원

7월 28일 11시 현풍면사무소 강당에서 문화원과 문화관광부 공동주최로 조상의 충효정신과 전통예절을 가르침으로서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주인의식 고취를 위한 제18회 달성충효청소년 문화학교를 열었다.

성남문화원 사무실 이전

성남문화원은 8월 20일 문화원 사무실을 성남시 수정구 신흥1동 6926번지(전화 031-781-1020, 781-2902, 팩스 709-5246)로 이전했다.

향토사랑문화기행, 한국문학 외국어 낭송회 - 연수문화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고장의 뿌리를 찾고 체험할 수 있는 '주제가 있는 향토사랑 문화기행' 제5차 기행을 9월 24일부터 10월까지 매주 실시한다. 이 문화기행은 지역 초등학생들에게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리게 하는 뜻깊은 행사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광주북구문화원장에 이종철씨 취임

광주 북구문화원은 지난 8월9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제3대 원장에 이종철 부원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하였다. 이어 8월29일 문화원 2층 공연장에서 내외 귀빈과 문화가족이 모인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

제9회 제주작가 초대전 - 제주문화원

8월 22일부터 28일까지 제주해변공연장 전시실에서 미술 서예 사진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제9회 제주작가 초대전을 열었다. 이 전시회에는 제주도의 중견작가들과 제주도미술대전 초대작가 30여명의 작품을 전시했다.

'서계 박세당' 학술대회 - 의정부문화원

8월 29일 의정부 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문화관광부 8월의 문화인물로 선정된 서계 박세당의 기념사업으로 '서계사상의 창조적 계승'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한편 문화원은 서계 선생의 유품과 고문서 전시회를 8월29일부터 9월 1일까지 예술의전당에서 많은 문화가족이 관람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으며 지난 21일에는 장암동 서계묘역에서 추모대제를 지냈다.

평택문화 원장 이취임식



지난 6월23일 임시총회에서 회원의 만장일치로 추대된 신임 오용원 원장과 전임 유재호 원장의 이취임식이 8월 26일 오후 6시 평택남부문예회관에서 유재호 전 원장과 신임 오용원 원장의 이취임식이 내외 귀빈과 평택문화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공연과 축하연을 겸해 열렸다. 신임 오 원장은 서울보건대학 임상병리학과 성결대 지역사회개발학과를 졸업하고 두레푸드시스템의 대표이사과 문화원 부원장을 맡아 왔다.

연천문화원장 이취임식

지난 임시총회에서 경선을 통해 당선된 윤주길(尹柱吉) 신임 원장과 전임 서승후 원장의 이취임식이 8월29일 연천군민회관에서 내외 귀빈과 문화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신임 윤 원장은 문화원 설립 발기인 및 이사로 활동해 왔다.

검룡소 한강대제 - 태백문화원

8월 3일 오전 10시 한강의 발원지인 검룡소에서 제7회 한강대제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는데 이날 물 빨리 먹기, 물 많이 먹기, 물 속에서 숨 오래 참기 등의 참여이벤트를 함께 실시함으로써 한강대제에 참가한 일반 관광객에게도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청양문화원 원장 이취임식



8월 2일 문화원 강당에서 전 안중일 원장과 신임 정재권(鄭在權) 원장의 이취임식을 가졌다. 정원장은 취임사에서 청양은 문화적 혜택과 문화육구의 자극 요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이라면서 청양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가꾼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전제하면서 전통문화를 계승, 우리들의 문화에 접목시켜 황토색 짙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진력하겠다고 포부의 일단을 밝혔다.

제23회 금산인삼축제 - 금산문화원

8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인삼종합전시관 광장에서 제23회 금산인삼축제를 열었다. 금산인삼축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문화관광축제로서 국제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다. 신정교 금산문화원장이 축제집행위원장으로 활약한 이번 축제의 주제는 '건강, 웃음, 희망'으로 되어 있다. 또 지난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신비로운 물의 여행'이란 주제로 '2003 금강민속축제'를 금산군 부리면 평촌리 금강놀이마당에서 개최한바 있다.

진안문화원장에 최규영씨

진안문화원은 8월 13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2명의 원장 후보자 가운데 경선을 한 결과 최규영씨가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차기 원장으로 선임되었다. 향토사학가이며 문화원 이사이기도 한 최원장은 현재 안 일 원장과 함께 오는 9월 24일 이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전국 민속장터 체험 탐사 - 과천문화원

전국의 이름있는 민속5일장터와 그 지역 문화유적을 답사해 도농간(都農間) 문화를 이해하면서 지역문화를 느끼고 배우는 독특한 체험탐사 프로그램 실시했다. 8월 27일부터 '메밀꽃 필 무렵'의 작가 이효석 생가와 작품무대인 강원도 평창의 봉평장터 등을 현장 답사했다.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정착시켜 나간다고 한다.



조치원복숭아축제 - 조치원문화원

조치원문화원은 조치원복숭아축제추진위원회와 공동주관으로 8월 8일부터 이틀동안 연기문화예술회관에서 제1회 조치원복숭아축제를 개최했다. 이 축제는 농업인들의 땀과 노력으로 일구어낸 조치원 복숭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일환으로 복숭아 품평회, 야간영화제, 복숭아와 어울림, 소비자 즉석 장기자랑, 복사골 새싹공연, 군민화합 음악잔치 등의 행사를 가졌다.

익산문화원장 이취임식



7월 22일 오전 문화원 전실에서 채규정 익산시장을 비롯하여 문화가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임 이인호 원장의 이임식과 신임 김복현(金福賢) 원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김원장은 취임사에서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가 시대가 갈수록 잊혀지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 '지역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의 전통문화가 시대가 갈수록 잊혀지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 '지역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문화유적지 순례 - 담양문화원

5월 13일부터 6월 28일까지 초·중학생 545명을 대상으로 내고장 문화 알기와 애郷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를 실시했다.

신안문화원장에 김강민씨 추대



지난 7월16일 임시총회를 갖고 공식중임 문화원장에 김강민(金强敏) 신안문화원 부원장을 신임 원장으로 추대했다.

조선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신안군 비금면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 원장은 취임사에서 8백여개로 이루어진 신안지역 도서들의 문화·예술을 발굴하고 전승하는데 전력을 다 하겠다고 피력했다.

희망의 지킴이 양(羊) 순회전시회

- 장성문화원

국립민속박물관(관장 이종철)과 공동으로 7월 10일부터 17일까지 문화원에서 '희망의 지킴이, 양(羊)' 순회전시회를 개최했다. 이 전시회는 박물관과 학예사들' 프로그램의 하나로 기획되었다.



진도문화원장에 김정호씨 선출



지난 8월2일 대의원회의를 열고 원장선거를 실시하여 3명의 원장 후보자 가운데 2명이 사퇴하여 김정호씨가 무투표로 당선되었다. 신임 김원장은 8월27일의 취임식에서 회원 배가운동을 통해 문화원 확장에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남민속예술제 '연도 여자 상여소리'

- 진해문화원



지난 7월 19일부터 이틀 동안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32회 경남민속예술축제에

진해시 대표로 '연도 여자 상여소리'를 출연, 장려상을 수상했다. '연도 여자 상여소리'는 진해시 웅천동 연도섬에서 조상 대대로 이어져온 이 섬만의 독특한 장례풍습으로 부녀자들이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이 섬 여인네들의 곳곳한 생활의지를 잘 묘사해 주었다. 출연진은 강연석씨(연도주민·74) 등 70명이 출연했으며, 이용욱 전 울산대 교수와 김학곤 전 연도노인회장, 강연석 남명회 연도노인회 회원의 고증으로 재연되었으며 김만연 문화학교 강사가 지도했다.

충효예절과 현장체험 교육

- 문경문화원



문경문화원은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충효예절 및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

실시로 나라 사랑 정신과 국민윤리 의식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문화풍토와 애향심을 기르기 위한 교육으로 2003년도 충효예절교실을 실시하고 현장체험교육으로 선비의 고장 안동 도산서원과 오천군자리유적지 및 하회마을을 다녀왔다.

쓰레기 재활용 위한 만화전시회

- 김천문화원

국립민속박물관(관장 이종철)과 공동으로 7월 7일부터 16일까지 문화원에서 '김천문화원을 어떻게 활용할까요?'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 전시회는 날로 심각해져 가는 생활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성찰해보는 기회로서, 조상들의 쓰레기 재활용 지혜를 배워보고 이를 일상생활 속에 구현하기 위해 어린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로 꾸몄다.

전체 5부로 구성되어 있는 전시회는 21세기에 들어와서 새로운 조명을 받고 있는 '인간과 환경'이라는 화두를 깊게 성찰해보는 사색의 자리이자 환경과의 공존과 조화의 삶을 생각해보는 공간이 되었다.

바로접습니다

우리문화 7월호 56쪽 '경상북도지회 문화위나무국장 연수회' 사진은 경상북도지회 임시총회 사진이며, 57쪽 '서울시지회문화원직원연수교육 및 문화탐방' 사진은 문경문화원에서 실시한 문화유적 탐방으로 '윤강 이강년 선생 기념관'에서 촬영한 장면입니다.

제3차 전국 문화원 간사 교육 문화의 시대, 멋지게 변화자

문화원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간사들에 대한 정례교육이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천안 국립청소년수련원에서 전국적으로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전국 문화원에서 참여한 간사들은 적극적인 참여와 활발한 토론으로 알찬 연수교육이 되었다.



이날 권용태 전국문화원연합회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정보혁명과 무한경쟁이라는 새로운 문명의 시대를 맞으면서 생활문화의 확장과 더불어 문화의식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문화수요와 욕구를 수용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교양부문과 직무 관련을 적절히 배분해서 교육효과를 높이려는 의도로 마련되었으며, 모처럼 마련된 자리이니 서로간의 정보와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연수교육에는 문화관광부 이형호(전통지역문화

과) 서기관이 ‘정부의 지방문화정책’에 대한 지방문화정책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카피라이터 최윤희씨는 ‘멋지게 변화자’는 주제로 직장인의 자기혁신에 대한 이야기로 간사들의 의욕을 북돋았다.

또 최정학(인천 연수문화원) 원장은 ‘지방문화원 활성화’를 위한 문화원 종사자의 역할’을 통해 실무를 담당하는 간사들의 역할이 더없이 중요하며 변화의 시대에 걸맞는 문화촉매자로서의 기능을 다하자는 격려가 있었다.



문광부 이형호 서기관, 문화정책 설명

문화관광부 이형호(전통지역문화과) 서기관은 8월 25일 열린 ‘전국문화원 간사 연수교육’에 강사로 참여, ‘정부의 지방문화정책’을 주제로 지방문화정책에 대한 강의에서 지역별로 다양한 문화가 상호 조화를 이루며 발전해 나가야 민족문화가 발전될 것이며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대처해야...



전국 지방문화원 운영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무국장들의 전문성 제고와 문화역량 함양을 위한 전문교육을 9월 3일부터 6일까지 경주 교육문화회관에서 연합회 이영철(도봉문화원장)·김종기(수원문화원장)·고경재(양양문화원장)·조남식(영광문화원장) 부회장과 이만희(상주문화원장) 경북도지회장과 백익 문화관광부 예술국장, 경상북도 문공과장, 경주시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216개 지방문화원 및 시·도지회 사무국장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날 연수교육에 앞서 시인 장충렬씨의 시 낭송, 국악인 최윤연씨의 '한오백년' '아리랑' 민요로 문화선도자 사무국장들의 열띤 문화교육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김옥순씨의 살풀이춤으로 식전행사를 마무리해 연수교육을 더욱 뜻깊게 만들었다.

개회식에서 권용태 전국문화원연합회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문화와 지방분권의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변화와 도전이 시시각각 밀려오고 있

다”면서 “지방문화원의 존망은 사무국장 여러분들의 두 어깨에 달려 있으므로 사무국장들이 문화중심에 서 있을 때 전국 지방문화원의 현재가 있고, 또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문화창달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연수에서 백익 문광부 예술국장은 ‘정부의 문화정책방향’을 주제로 문화정책방향 설명과 지방문화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면서 문화원의 중추인 사무국장들의 분발과 헌신, 그리고 기탄 없는 정책제언 등을 당부했다.

또 성악가 임용균(한국종합예술학교) 교수는 ‘우리 가락에 깃든 한국인의 정서’를 주제로 우리 가곡과 동요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와 함께 웅장하고 멋들어진 목소리로 성악과 동요 등을 곁들여 열창해 좌중의 갈채를 받았다.

극작가 신봉승 선생은 ‘우리문화·역사 바로알기’에 대해 관혼상제(冠婚喪祭)를 중심으로 무너져 가는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해박한 지식과 거침없는 열변, 그리고 우리문화 되살리기에 사무국장들의 분발을 촉구해 좌중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최정학 인천 연수문화원장은 ‘지방문화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열띤 강의를 했으며, ‘문화행정 실무’를 진행한 이결재씨(공주시 문화관광과)는 신임 사무국장들에게 유용한 행정실무를 공주시역에 전승되어 오는 ‘육타령’을 부르기도 하면서 재미있게 교육을 이끌었다.

이어 ‘문화원 정관 해석 및 회의진행 요령’(김점동 동우S&C 대표)이라는 강연에 이어 문화원 육성 및 지역문화발전 등에 관한 분임토의, 그리고 경주지역 문화탐방을 실시했다.

다음에 연수교육 내용 중 백익 문광부 예술국장의 발표 내용과 최정학 연수원장의 교육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부〉

참여정부 지역문화발전정책



백 익 문화관광부 예술국장

인사말

사회자로부터 소개받은 문화관광부 예술국 예술국장 백익입니다.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전국 216개 문화원 및 16개 시도지회 사무국장 여러분을 천년의 고도이자 민족문화의 보고인 경주에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시고 불러주신 전국문화원연합회 권용태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지방문화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 사무국장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참여정부 출범 후 많은 논의를 거쳐 마련된 국가균형발전 방안의 개괄적인 내용과 지역문화정책입니다. 동 내용은 지역문화균형발전 및 지방문화원의 향후 역할과 과제와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분임토의 등 연수 프로그램에서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논의되고 제시된 의견은 정부의 지역문화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I. 지방주도의 균형발전계획 수립

□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

- 지역간 불균형 시정 및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거시적인 틀과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

획으로서 매 5년마다 수립

· 각 부처에 분산된 균형발전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

- 균형발전추진단이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계획을 토대로 수립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5개년계획의 실천을 뒷받침

□ 시·도별 지역혁신발전계획 수립

-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하고 특성화 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하여 수립
- 지방대학, 지역경제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혁신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참여기회 확대
- 지역혁신발전계획을 토대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을 배분함으로써 계획의 실효성을 강화

II. 지역문화 발전정책

1. 방 향

- 참여, 분권, 자율 3대 국정지표를 지방문화 분야에서 실천
-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수립을 위한 지역문화·관광정책 개발
- 지방문화원을 지역문화발전의 핵심거점화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문화관광관련 내용

□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법 제5조)

①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의 기간을 단위로 하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하 “국가균형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④ 국가균형발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육성에 관한 사항
3.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지방대학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지역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6. 지방문화·관광의 육성에 관한 사항
7.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8. 지역경제활성화에 관한 사항
9. 낙후지역개발촉진에 관한 사항
10. 소요예산 및 투자재원 조달·운영에 관한 사항
11. 기타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지방문화·관광의 육성(법 제1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문화적 육구충족을 통하여 삶의 질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방문화·관광의 육성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지방문화·관광 자원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2. 특색있는 지방문화의 육성과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3. 지방의 문화·관광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방대학의 문화창달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방문화·관광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2003년도 문화관광부 지역문화관련 주요사업

1) 전통과 예술이 살아 숨쉬는 특성화된 지역문화 육성

□ 문화·역사마을 만들기

- 마을단위 문화역사 복원·보존 참여로 문화창조력 강화
-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동참 여건 조성
- 사업추진 현황 : '02년 5개, '03년 16개 사업 선정

□ 지역적 특성과 역사성 있는 지역민속축제 활성화

- 지역의 특색있고 보존·전승 가치가 있는 민속축제 집중 육성
 - 지역축제를 애향심 고취, 주민 대통합의 장으로 승화
- 사업추진 현황('03년)
 - 16개 축제 지원 : 7개 축제(각 30백만원), 9개 축제(각 20백만원)

□ 문화수도(광주광역시) 건설 지원

- 대통령의 광주공원 선거유세('02.12.14) 공약
 - 예향 광주를 '문화수도'로 육성하겠음
- 추진방향
 - 1단계 : 국가균형발전전략과 연계 검토 추진('03년)
 - 행정적·실질적 '문화중심도시'로 지원 방안 검토
 - 2단계 : 지역특성화 문화콘텐츠 조성 지원('03~'04)
 - 민간문예진흥위원회 설립지원, 광주비엔날레·풍부한 회화자원 및 지방대학과 연계한 시각문화산업 도시육성 지원 등

□ 문화지구 지정

- 시·도지사가 조례 제정을 통해 문화지구 지정·운영

- 문화시설 조성지역, 문화예술행사 지속적 개최 지역 등
- 유해업종 시설 제한 및 설치장려 문화시설에 세제 지원

●추진방향

- 지자체의 문화지구 지정에 적합한 문화시설 지원 확대(현행 문화시설 확충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
- 광주 문화수도론에 의한 '문화지구' 지정·육성 검토
- 문화지구 평가(3년 주기)를 통한 우수지구 인센티브 지원 추진

□지방문화원 활성화

-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지방문화원을 지역문화의 구심체로 육성
 - 전문성 강화 및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문화원 육성
- 사업추진 현황('03년)
 - 지역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차등 지원(213개 문화원)
 - 지방문화원 전문인력(사무국장) 공개채용('03. 9월 완료)

2) 다양한 문화공간 확충으로 문화격차 해소

□지역문화의 산실이 될 문화공간 조성

- 지역전통을 살린 문예회관·도서관·문화의 집 등 문화기반시설의 균형 확충

※ 2011년 목표

- 공공박물관 500관, 공공도서관 750관, 지방문예회관 248관, 문화의 집 500개소
- '02까지 실적 : 공공박물관 339개소, 공공도서관 462개소, 지방문예회관 113개소, 문화의 집 123개소

●사업추진 현황('03년)

- 공공박물관 34관, 공공도서관 24관, 지방문예회관 26관, 문화의 집 10개소

□지역문화특성을 살린 체육·청소년 문화공간 확충

- 주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의 지역적 균형설치
 - 농어촌, 저소득층, 노인·여성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시설확충
 - 목표('03~'07) : 6개 종류 1,500개소
 - 생활체육공원 196개소,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 950개소, 농어민문화 체육센터 28개소, 국민체육센터 53개소, 잔디·우레탄운동장 250개소, 실내게이트볼경기장 23개소

●지방 전문체육시설 확충

- 지방체육활성화를 통한 엘리트체육 육성 및 국민체육 진흥
- 사업추진 현황('03년) : 17개 사업
 - 운동장 2개소, 체육관 3개소, 전국체전 시설 11개소, 전문시설(승마) 1개소

●청소년문화공간 확충

- 청소년들에게 문화육구 기회 제공 및 창의성 함양 기반조성
- 사업추진 현황('03년) : 51개 사업
 - 청소년수련관 31개소, 청소년문화의집 18개소, 청소년야영장 2개소

3) 지역문화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발전

□지방문화산업 육성

- 지방문화산업단지 조성·지원
 -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방문화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별 특화 첨단문화산업을 집적화(cluster)
 - 추진현황('03년)
 - 문화산업단지 지정절차 추진(7개 지역) : '02년(청주), '03년(부천, 대전, 광주, 춘천, 전주), '04년(경주)
- 지방문화콘텐츠산업 인력교육 지원
 - 음악, 캐릭터, 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 추진현황('03년)
- 사업공고 및 설명회 개최, 수행기관 신청 접수(14개처)

●국제영화제 육성 지원

- 한국영화의 해외홍보 기회제공 및 차별화된 국제영화제 육성

- 추진현황('03년)

- 부산영화제 10억,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5억, 전주국제영화제 5억, 광주국제영화제 5억

●지방언론 육성

- 현황 및 문제점
- 일부지역의 과다경쟁으로 지역경제 부담, 재무구조·경영실태 열악, 신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미약

※ 95개 종합일간지 중 73지방지('03. 4월), 시장점유율(중앙지 88% 이상)

- 추진방향

- 한국언론재단을 통한 지방언론지원사업 강화
- 가칭 '지역언론육성법' 제정 요구 관련,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조
- 지역언론사 현황·문제점 파악 및 발전방안 모색

□문화관광축제 개발 육성

●관광상품성 있는 축제를 국제적인 문화관광자원으로 육성

- 관광객 유치, 외화획득 가능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축제 지원 확대

●추진현황('03) : 30개 축제, 1,840백만원

- 최우수축제(3개, 각 130백만원), 우수축제(10개, 각 80백만원), 지역육성축제(10개, 각 50백만원), 예비축제(7개, 각 20백만원)

□관광자원개발 추진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관광지 개발, 문화관광자원 개발, 생태·녹색관광개발, 광역권 관광개발(남해안, 유교

문화권), 문화관광상품 개발 인프라 구축

●추진현황('03) : 6개분야, 210,355백만원

- 관광지 개발 : 6개소, 37,200백만원
- 문화관광자원 개발 : 75개소, 43,565백만원
- 생태·녹색관광 개발 : 14개소, 5,500백만원
- 남해안관광벨트 개발 : 44개소, 74,927백만원
- 유교문화권 개발 : 104개소, 48,163백만원
- 문화관광상품 개발 인프라 구축 : 3개소, 1,000백만원

Ⅲ. 맺는 말

우리는 지금 집권-집중시대에서 분권-분산시대로 나아가는 세계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기에 참여정부는 그동안 분권-분산의 장애물이 되었던 외적요인(강력한 중앙집권체제, 수도권 일극 집중 등)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감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의 기초조건을 충족하고, 궁극적으로 지방의 특성화 발전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본격적인 분권화 개혁이 추진되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은 지방 스스로가 자율, 혁신, 참여를 통해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의존에서 벗어나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고 주민 속으로 더욱 가까이 가려는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식전환을 토대로 지방문화원이 문화분야 지역혁신체계의 중심이 되어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이 중심이 되어 지방의 문화적 역량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시민사회의 다양한 NGO, 지식인, 언론인들과 횡적 연대를 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무국장 여러분들의 활동을 크게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문화원, 위기인가 기회인가?



최정학 인천 연수문화원장

지방문화원의 위기라는데...

지방문화원의 위기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온다. 안에서도 나오고, 바깥에서도 들린다. ‘지방문화의 시대’가 외쳐지는 이 때에 등장하는 문화원 위기론은 우리를 매우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안에서는 국가의 지방문화원에 대한 지원정책 부재 및 지방자치단체의 마인드 결여로 인해 문화원이 고사되고 있다는 의미의 위기론이며, 바깥에서는 문화원의 무기력과 운영능력부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30년간 지역을 지키며, 향토문화자원을 발굴하고, 보존하고, 선양해왔으며,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우리의 피땀 어린 노력과 상관없이 문화원에 대한 평가절하가 일반화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이야 한다는 것이다. 위기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위기의 내용을 점검하고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해 가야

‘위기가 기회로 전환’ 될 수 있는 것이다. 위기를 피해가려고 하면 시간만 늦출 뿐 종점은 몰락이다. 그러나 위기를 감사로 받아들여 개선해 나가면 더욱 큰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경영난 해결이 지방문화원 살리는 첫걸음

지방문화원의 고통은 무엇보다도 경제적 어려움에서 온다. 대부분의 지방문화원들은 예산부족에 허덕이며, 특히 인력부족과 경상비 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본 운영이 힘들다 보니 많은 사업을 수행하기에도 벅찬 것이 현실이다. 수많은 영역과 장르의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려면 기획력과 행정력을 겸비한 문화 전문인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데, 부족한 예산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이러한 문화원의 경영위기는 쉽게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농촌형 문화원들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도시형 문화원들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는 않다. 문화원에도 경영마인드가 도입되어야 하고 자체 수익확보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모색되어야 하고 지역의 후원자그룹도 확대해 나가야 하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이다.

정부가 문화원에 대한 명확한 역할을 상정하고 있다면, 민간사회단체 보조하는 방식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정부의 지역문화 활성화에 대한 의지와 정책적인 지원 없이, 고사 직전의 지방문화원이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의 향토문화자원발굴과 개발이라는 마인드가 강력하게 서있지 않는 한 문화원의 표류는 끝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지역내 문화적 비전과 리더십을 세워야

지방문화원들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대안을 가지고 지역을 총체적으로 견인해야 한다. 해당 단체장들이나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문화예술인 및 모든 문화적 자원들을 움직여내야만 한다. 이것이 지역에서의 문화적 리더십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화원들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지역전체의 문화진흥에 대한 대안을 관철시키기는커녕, 당장 지방문화원에 시급한 한두 가지를 해결하기도 어려운 것이 지방문화원의 현실이다.

지방문화원은 지역전체의 문화현실을 진단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 청사진을 가져야 한다. 지역의 정체성 확보와 함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정체성과 비전을 확산해가고, 공유해가면서 지역에 건강한 영향력과 리더십을 형성해가야 한다. 지역의 문화적 청사진에 맞게 지역사회 구성요소들에게 역할을 분배해 가며, 커뮤니티를 주도해야 한다.

또한 지역의 각 문화적 주체들이 각자의 고유한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도록 지역의 문화예술인들

을 포함한 지역의 문화적 주체들 모두를 위해 앞장서 주어야 한다.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의 갈증은 무엇이며 숙원은 무엇인지를 헤아려서 그 문제를 지역사회 전체에 제기하여 풀어나가야 한다.

지역의 정치인들이나 의원들 및 오피니언 리더들을 지역문화의 현장에 나오게 하고, 문제해결을 약속 받거나 그들이 해야 할 역할을 부가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의 문화적 여론을 주도하면서 문화예술인 및 주민들과 함께 감시하여야 한다. 앞에서는 도와줄 것을 선언하지만 실제로는 공약(空約)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지역에 산적한 문화적 사안들을 놓고 문화원만 문제를 해결하고 빠져나가는 것은 정말 옳지 못하다. 함께 풀어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다른 문화단체와 예산경쟁을 벌이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 오히려 함께 연대해야 한다. 그들의 활동을 돕지는 못할망정 예산이라도 많이 배정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문화기획력과 전문성의 확보 노력

지방문화원은 그 지역의 문화적 구심이요, 지역 정체성 형성의 보고요, 지역사회 평생교육의 근간이요, 지역문화진흥을 견인하는 핵심주체다. 이러한 문화원의 자기역할수행을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향토문화자원 발굴과 보존 및 개발을 위해서도, 지역문화진흥과 사회교육을 위해서도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문화기획자, 문화촉매자로서의 전문성 부족은 문화원과 주민들과의 결합에 장애요소가 된다. 주민들의 삶 속에 파고들어 주민들의 문화적 역량을 제고시키고, 그들의 영혼을 일깨워야 하는데, 대부분의 문화원이 주민들과 결합하고 있는 수준은 미약하기 그지없다. 농촌형 문화원의 경우와 도시형의 경우 모두 이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민들에 대한 문화수요 조사, 지역내 문화기반시설

이나 문화적 자원들에 대한 조사, 기타 각종 문화 지표조사 등도 제대로 수행되지 않은 채, 감각과 경험에 의존해서 전개하는 문화사업의 당연한 귀결이다.

문화기획력의 부족은 문화예술인들의 활동공간을 마련해주고 그들의 창작의지를 높여 수준높은 작품활동이 이뤄지도록 매개하는 일을 어렵게 한다. 광범한 문화적 지식과 기획능력, 홍보능력이 없이는 수많은 장르의 문화예술활동과 문화인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힘들어진다. 전시 공연 문학 등 분명 여러 분야의 행사는 개최하고 있지만 문화예술인들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게 된다. 각 장르에 대한 인식부족과 작가들에 대한 분별력 부족, 비평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행사에 따른 후유증으로 이어지기 쉽다. 문화기획력의 부족은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문화적 리더십을 약화시키며, 매니아층과도 괴리되는 현상을 낳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은 우리 고장에서 이뤄지는 순수예술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서울로 대도시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지방문화원이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활동무대를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또한 신인들을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 역할은 각종 문화단체의 몫이 될 것이다. 문화예술인들은 자신들의 활동무대가 필요하고, 따라서 자신들과 매니아를 연결시켜줄 고리로서 문화원을 찾는 것이다. 이 기능(문화촉매 기능, 문화기획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원을 떠나고, 다른 대안을 찾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강력한 문화원 비판자가 될 것이며, 새로운 대안 문화단체를 결성하며 문화원과 경쟁할 것이다. 문화원 폐지론자가 되어 마이크를 잡게 될 수도 있으며 문화원의 가장 큰 위협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문화기획력을 높이기 위해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문화예술인들을 견인할 수 있다. 그래야만 대중과 빠르게 결합될 수 있다. 문화원종사자들의

전문성 제고가 시급하다. 자체교육을 위한 예산배정과 여건확보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문화원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문화원들 서로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각 시·도지회의 역할이 이 점에서 강하게 대두된다. 최근 전문협 차원에서 이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이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도 필요한 실정이다.

체계적 · 과학적 향토문화유산 관리

향토문화자산의 활용에 대안이 없는 것도 큰 문제다. 지역에 대해 가장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문화원은 지역정보화를 앞서서 주도하거나 이끌어가고 있지 못하다. 향토문화유산을 연구 보존시키는데 앞장서 왔으면서도 그것을 디지털시대에 맞게 지역사회교육에 활용하거나, 지역의 관광자원개발과 관광산업육성으로 연결시키는 일에도 큰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한 상태다.

이렇게 되면 지방의 대학이나 교육청들이 이 일들을 수행해 갈 것이다. 지방대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지방문화원의 가장 전통적인 영역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향토문화자산의 수집, 보존, 연구사업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되어야 한다. 그간의 연구노력들을 잘 관리하여 D/B화하고, 디지털시대에 맞도록 지역향토교육으로 전환시키고,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에 문화원이 앞장서야 한다. 지역주민과 각급 학교, 지역사회 각 구성요소들에게 향토교육을 확대시켜 나가고, 다양한 매체를 개발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지역공동체의 미래청사진이 이 연구와 보급을 통해 개발된다. 향토사연구는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 확보와 비전 창출에 있기 때 문이다. 향토교육을 많이 하면 할수록 지역사회에

대한 리더십은 저절로 강화될 수밖에 없다. 지역 사회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지역사회를 인도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 아니가?

지역사회교육의 중심에 문화원이 서야

문화원은 다양한 사회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촉진하고, 주민들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해주며, 주민들에게 인생의 본질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평생교육기관이다. 지역사회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자원과 인적자원을 연결하고 있는 문화원에게 이 기능을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재 지방문화원들의 현실은 지역사회교육에 있어 당연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게 하고 있다. 서울지역과 일부 대도시의 문화원 문화학교를 제외하고는 지역사회 교육분야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대부분 취미교양 강좌 수준의 문화학교 운영을 극복하고 있지 못하며, 동아리 활동 위주의 교육이 중심이 되고 있다. 농촌지역의 문화원일 경우 지리적 여건이나 주민들의 연령, 직업문제 등에 의하여 사회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지역사회교육에서 문화원이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감각과 경험에 의존하는 교육운영이 되어서는 주민들의 신뢰를 받는 지역사회교육을 감당할 수 없다. 변화하는 사회교육과 평생교육의 여건을 읽어 나가고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 지역의 모든 사회교육기관의 네트워크를 주도하고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문화원은 이 일을 하기 위해 설립 되었기 때문이다.

민주적 운영으로 내부 활력과 주민 신뢰를 구축해야

투명하고 민주적인 행정과 운영으로 문화원이

활력을 찾고 주민들로부터 신뢰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대부분 문화원들은 지난한 어려움 속에서도 대쪽같은 경영으로 모범을 보여왔다. 문화원들의 행정과 회계처리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된 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민주적 운영에 대해서는 문제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일부 지역 언론들에 문화원의 문제가 지적되는 경우가 있어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는데 대부분은 집행부 갈등이나 임원간의 대립 등의 문제다. 문화원 내부의 공개적 민주적 운영은 문화원의 힘을 강대하게 만든다. 원장과 사무국이 같은 비전과 동일한 마인드로 통일되어 있다면 웬만한 위기가 문제될 것이 없다.

외부 여건과 환경의 문제보다 내부적인 요인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은 것이다. 집행부가 똘똘 뭉쳐 힘이 있다면, 그리고 매사에 공개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한다면, 이사진 등 임원단을 주체화시키고 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21세기의 지방문화원과 황금 같은 기회

우리가 가져야 할 위기의식은 문화원의 존재이유와 역할에 대한 위기의식이다.

존재 이유에 바르게 답하고 있는가에 대한 위기의식이다. 정체성과 비전에 관한 위기의식이다. 위기와 기회가 혼재된 시기일수록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들인가를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위기의 원인들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 바른 위기의식은 자기반성과 자기점검을 가져오며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며, 기회를 열매로 현실화시킬 것이다.

비전과 전문성이 겸비된 강한 체력의 '준비된 문화원'에게는 지금이 최고의 황금기회인 것이다. 21세기- 위기의 시대이자 기회의 시대다.

□ 국제비엔날레 □

2003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국제 초대 작가전



세계공예예술의 진흥은 물론 공예상품 개발과 수출촉진, 공예의 교육적 기능 확산을 위해 청주시가 주최하고 청주 국제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위원장 한대수)가

주관하는 2003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가 오는 10월 2일부터 19일까지 충북 청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다.

세계 유일의 공예종합비엔날레로 출범한 이 비엔날레는 올 주제를 '쓰임'으로 정하고 국제초대작가전, 국제공예공모전, 거리공예프로젝트, 생활공예명품전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전시는 물론 주제공연, 3D애니메이션 상영, 해외예술단 공연 등 다채로운 특별행사를 마련, 국제 예술문화 축제로 꾸민다.

조직위측은 이번 비엔날레는 세계적 비엔날레로 도약을 위해 수준 높은 작가의 참여를 유도해 비엔날레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산업형 비엔날레로 추진해 기업관 운영과 바이어 초청 무역상담 등을 통해 실용성도 가미한다는 복안이다. 또 체험을 통한 공예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 직접 체험프로그램도 마련, 공예문화에 대한 이해도 증진시킬 계획이다.

조직위는 모든 시민이 함께하는 비엔날레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예술 사회단체 참여를 유도하고 시내 전역을 행사장화한다는 방침이다.

2003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생활 속으로' 주제로 다양한 특별전

전라북도가 주최하고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회(위원장 최승범)가 주관하는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가 9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전북 전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과 전북예술회관 등지에서 열린다.

이번 서예전북비엔날레는 '생활 속으로'라는 주제로 서예를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고 그러한

생활 속의 활기를 바탕으로 한국 서예의 세계화 추진을 위한 밑그림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그런 뜻으로 이번 비엔날레에는 본전시인 한·중·일 삼국서예

의 역사와 현재, 한국서예-한국서예정예작가전, 중국서예-중국서예전, 일본서예-일본서예전 등과 세계 각국 미술가들에게 서예작품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외국 미술가가 서예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세계미술가서예전, 한글서예의 위상 제고와 세계화를 위해 한글서체별로 작가를 선정, 전시하는 한글서예의 새 지평전, 우리나라 명승지를 주제로 한국 한시(漢詩)를 각 지역 작가가 써서 대형 병풍으로 제작 전시하는 '서예로 떠나는 한국기행전' 등 많은 특별전과 일반인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써 보고 즐기는 비엔날레가 될 전망이다.



□ 연극 □

서산에 해 지면은 달 떠온단다

극단 실험극장 대본/최창근 연출/김순영

출연/오현경 이승호 김도형 김소리

삶의 진실을 추구하는 작품을 무대에 올려왔던 극단 실험극장이 동아연극상 작품상을 수상한 젊은 작가 최창근과 연출가 김순영, 중진배우 오현경이 함께 손을 잡고 만든 황혼녘에 들려주는 아버지의 이만구천구백날 불꽃놀이 같은 삶의 이야기 '서산에 해지면 달 떠온단다'를 공연한다.

역사의 거대한 격랑 속에서 부침을 거듭하면서도 꺾히지 않고 삶을 이어가는 1930년대 민초들의 이야기인 이 작품은 자연의 순리를 좇아 생명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착하고 소박한 사람들의 강물처럼 아름답고 슬픈 인생찬가. 작품 무대는 1930년대 초 한강의 마포나루. 그러나 그때



그 땅위에 뿌리를 내리고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70여 년이 훨씬 더 지난 지금,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결코 무관한 것만은 아니다. 역사의 문제는 결국 인간의 문제로 되 돌아오기 때문

세계 신화에서 여성의 상징은 보통 인내와 고통의 결집체이거나, 또는 질투와 욕정의 화신, 그리고 무력을 가진 천계와 지계의 매개자로 그려진



이다.

* 공연일시 : 9월 20일(토) ~ 9월 28일(일)

* 공연시간 : 평일 7시 30분/ 토 4시 30분,
7시 30분/일 3시, 6시

* 공연문의 : 02)764-5262

□ 발 레 □

유화의 노래

전홍조 발레단 안무/전홍조 총연출/안병순

대본/최효민 출연/허인정, 김소연, 김현주, 이영일, 정운식, 최영현

고려시대 이규보의 동명왕편과 삼국유사 등에 나오는 주몽의 일대기, 그 주변에 대한 묘사가 적힌 고구려 건국 이야기는 수많은 상장을 지니고 있다.

기본적인 영웅신화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시적인 전개와 주인공들의 고난과 갈등, 환상적인 천계와 지계의 결합과 조화가 중화(中華)중심의 역사에서 탈피한 뚜렷한 자주적 사관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어느 나라 신화 못지않은 웅장한 구조를 견지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아름다운 묘사와 등장인물의 뚜렷한 개성으로 완벽한 한 편의 아름다운 대서사시로 평가되고 있다.

다. 이것도 일종의 신화의 전형적인 모티브에 근거한다.

한국의 대표적인 건국신화이자 영웅서사시인 동명왕편의 도입 부분(天子 해모수를 만난 유화의 수태)을 확대하고 유화의 수태와 일생을 지켜보는 다른 자매들(훤화, 위화)들의 숨은 캐릭터를 새로운 여성성에 대한 동시대 페미니즘적 관점, 정신분석학적인 성적 본능에 대한 탐구, 욕망이론으로 극적 대비 형식을 담아 표현한다.

그리고 동서양과 고금을 막론하고 여성성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기대와 희망을 오늘날 여성들의 왜곡된 사고방식과 비인간적인 모습(낙태 등)에 중첩하여 유화와 자매들이 인생의 갈등 구조를 짓고 푸는 과정에 대입시켜 모성애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담아낸다.

*공연일시 : 2003년 9월 17일(수) 오후 8시

*장소 :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대극장

*공연문의: 2263-4680 (공연기획 MCT)

□ 국 악 □

대하창극 삼국지 적벽가

국립창극단

적벽가는 중국의 역사소설 삼국지연의를 원전으로 적벽강에서의 싸움과 그 앞뒤로 벌어지는 이야기를 판소리로 짠 것으로, 판소리 다섯 마당 가운데 가장 호방하고 힘



찬 남성적 소리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춘향가나 심청가, 수궁가나 흥보가와 달리 지금까지 창극으로 만들어진 경우는 거의 없다. 1985년 국립극장 소극장에서 분창형식의 창극으로 올려

진 것이 최초였고, 그 이후에도 몇몇 도막 창극을 제외한 이렇다 할 창극 적벽가는 올려지지 않았다. 적벽가가 기교보다는 힘, 무게, 깊이로 한꺼번에 요구하는 서술이 있는 소리인 만큼 이를 잘 소화해내는 소리꾼들이 많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전쟁 장면과 같은 장대한 스케일을 무대화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 동안 누구도 엄두를 내지 못했던 이 작품을 국립창극단이 연출가 김홍승과 손을 잡고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 올리게 되었다.

한국 창극사에 새로운 기념비를 세우게 될 창극 삼국지 적벽가. 단순히 대형 창극이라는 외형뿐 아니라 음악과 내용에서도 충실한, 무대예술로서 여느 장르도 해낼 수 없는 독특한 경쟁력을 지닌 한국 창극 작업의 현재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작품이 될 것 같다.

* 장 소 :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 기 간 : 9월 29일(월)~10월 5일(일)

월~목 19:30/금~일 16:00

* 공연문의 : 02)2274-3507

□ 가족극 □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

극단 유 예술감독/유인촌 출연/최인경, 이해은, 임혜숙, 조영규, 신유진 외

가족극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는 어린이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작품. 그래서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주제가 쉽고 재미있게 표현되며 관객 (어른



과 어린이)은 연극적 재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각각의 상상력을 통해 공연을 관람하게 된다.

이 연극의 재미있는 연극적 놀이는 도구의 활용, 움직임이 없는 대도구들은 거의 없고 연기자와 함께 춤을 추기도 하고 마술적인 무대 연출을 위해 활용되는가 하면, 대도구들의 배치에 의해서 극의 배경이 바뀌기도 한다.

재미있는 연극적 놀이 두 번째는 무용의 활용. 다양한 무대언어의 경험을 제공하고 시각적인 즐거움을 최대한 만끽할 수 있도록 했다. 동화 속의 신비함을 다소 추상적이기까지 한 춤에 가까운 동작들로 표현하여 인간의 몸이 얼마나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는지의 상상력을 시각적 즐거움으로 극대화시킨다.

재미있는 연극적 놀이 세 번째는 음악의 활용. 서정성을 풍부하게 담았다. 가능한 많은 배경음악과 효과를 삽입하여 해설의 단조로움에 리듬감을 부여하였고, 서정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장면에서는 몸짓(무용)과 함께 노래로서 감성을 강조한다. 서울과 수원공연에서 전석 매진이 라는 기록을 세웠던 화제의 작품. 이 여세를 몰아 지방순회에 나선다.

* 공연일정

- 대전시 9/27~9/28 대전 우송예술관

- 강원도 10/03~10/04 강릉대학교 문화관

- 인천시 10/11~10/12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경기도 10/18~10/19 경기도문화예술회관 대극장

* 홈페이지 : <http://www.dream25.net>

평택의 祠宇, 齋室, 旌門



평택문화원에서는 <평택의 사우(선현들의 위패를 모신 사당) 재실(제사를 준비하는 곳) 정문(충신·효자·열녀의 행적을 기리는 문)>을 발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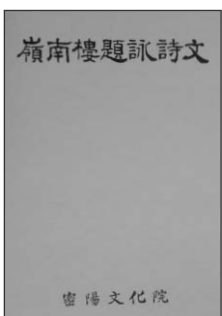
이외에 정문과 열녀비를 비롯해서 효자정문에 이르기까지 해당 인물의 생애와 일화, 유래 등을 사진과 함께 수록해 놓고 있다.

巨濟文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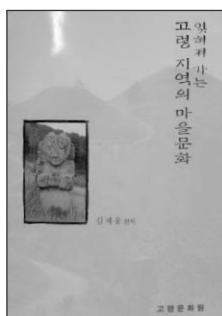
거제문화원에서는 <거제문화>를 발간하였다. 거제지역의 유인도 10여개를 연차적으로 조사하도록 짜여져 있는데 칠전도의 역사와 마을 현황, 칠전도의 생활경제와 사회의 식구조 및 지명·세시풍속·민속·민요·방언의 어휘자료에 이르기까지 칠전도의 모든 것이 수록되어 있다.

嶺南樓題詠詩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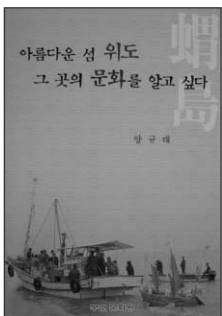
밀양문화원에서는 정경주(경성대) 교수와 이운성(향토사학자) 선생에게 위촉하여 <영남루제영시문>집을 발간하였다. 밀양의 상징인 영남루는 영남 제일의 시루(詩樓)로서 시판에 전해지는 시는 모두 명편 걸작으로 정평이 나 있다. 고려·조선시대에 걸쳐 당대의 대학자들과 문장가들이 지은 제영시를 위시해서 영남루의 내력과 전설을 수록하고 있다.

잊혀져가는 고령지역의 마을문화



고령문화원에서는 문화원 이사들의 도움을 받아 김재용(계명대 한국학연구원) 연구원이 집필한 <잊혀져가는 고령지역의 마을문화>를 발간하였다. 지명에서 말해 주듯이 고령은 높은 정신의 고향이란 뜻으로 대가야의 터전이다.

아름다운 섬 위도 그곳의 문화...



부안문화원에서는 <아름다운 섬 위도 그곳의 문화를 알고 싶다>를 발간하였다.

제1부 위도 변천의 과거와 오늘, 제2부 숨쉬는 위도 문화와 역사, 제3부 희망찬 위도 개발 소리, 제4부 떠 있는 황금의 섬, 제5부 위도를 지켜 온 정부기관 등으로 엮어 있다.

나주이야기



나주문화원에서는 <나주이야기>를 발간하였다. 나주시가 근대와 현대로 내려 오면서 지역의 역사적인 사건과 옛날 모습의 사진 등을 담았고 시민들의 증언편에서는 '일제의 가혹한 공출' '징용·징병·정신대' '광주학 생독립운동'에 대한 얘기를 비롯해서 나주배의 재배에 이르기까지 많은 얘기를 수록하고 있다.

의령의 토박이말



의령문화원은 이 고장의 사투리 약 4,500개를 품사별로 구분하여 수록한 <의령의 토박이말>을 발행했다.

이 책에 수록된 토박이말은 오랫동안 향토자료 수집을 위해 허원장이 직접 군내 방방곡곡을 다니며 현장에서 수집한 자료들로서 옛 시절의 정겹고 소박하면서 인정미가 넘치는 구어(口語)가 대

부분이다. 각 장마다 일상생활에서 토박이말이 중심이 된 예문도 제시해 이런 말도 있다가 싶은 옛 시절을 돌아보게 만든다.

허원장은 오늘날 표준말을 상용하면서 토박이말이 하나 둘 잊혀지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또한 우리 지역 사람들의 기질이나 정서, 그리고 생활풍습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학술적인 가치가 크다고 생각해 발행하게 되었다고 발행 계기를 설명했다.

작은 자료집이지만 향토를 사랑하고 우리 고장의 빛깔과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정서가 물씬 묻어나는 말이라면서 더 많은 것을 수집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천안의 숨결을 찾아서



천안문화원에서는 향토문화 유적 관련 자료집으로 <천안의 숨결을 찾아서>를 발간하였다. 향토사학자인 황서규 씨와 향토사연구위원들의 도움으로 발간된 이 책의 내용은 천안지역의 국보를 비롯한 보물급 문화재들과 각종 자료, 향토유적 등을 조사·연구·보완·정리한 것으로 국가지정문화재와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향토유적, 관우누정과 고적유사 등의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구·보완·정리한 것으로 국가지정문화재와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향토유적, 관우누정과 고적유사 등의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임윤지당(任允摯堂)

원주문화원에서는 원주의 인물 조선의 여성 성리학자 <임윤지당>을 발간하였다.

남성 중심의 유교문화가 성행했던 조선시대에 여성 성리학자로 명성을 높였던 임윤지당의 일대기를 초·중등학생들이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책으로 엮어 펴냈다.



원주 강원관찰사 시문학



원주문화원에서는 구지현 교수(연세대)에 의해 자료 수집·정리된 <원주 강원관찰사 시문학>을 발간하였다.

원주는 조선시대 강원 행정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강원감영이 있던 곳으로 당시 관찰사 여섯 분의 감정이나 삶의 행적을 담은 시문학집이다.

고성이야기

고성문화원에서는 차주문 위원(고성문화원 향토자료조사·연구위원회)의 글과 그림으로 엮은 <만화-고개골의 고성이야기>를 발간하였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역사적인 고성의 인물과 사료를 중심으로 엮은 만화로서 고성 관련 고서 비교, 조선시대 고성의 재해 일람, 북고성의 순으로 수록하였다.



장승생각



동작문화원에서는 문화대학 문학반 수강생들의 동인지로 <장승생각>을 발간하였다.

문예창작반 강사로 있는 맹문재 선생과 시인 나희덕 선생의 초대시에 이어 54편의 시와 15편의 산문이 각각 게재되어 있다.

花城吟社(화성음사)

횡성문화원에서는 화성음사 회원들이 창작한 한시집(제8집)을 발간하였다. 횡성의 전통문화인 한학과 한시의 맥을 계승·발전시키는데 그 의미를 갖는다는 이 책은 한시 구절 아래 한글로 해석을 달아 놓고 있다.



史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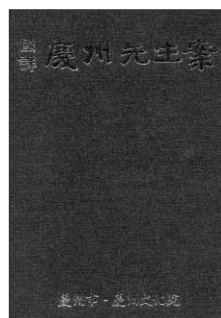
울진문화원 부설 울진역사연구소에서는 우리 역사의 갖은 고난 가운데서도 꿋꿋이 고장을 지켜온 울진 선인들의 삶의 흔적을 올바르게 간직하고 재구성한다는 창립정신에 따라 그동안 울진문화 유적을 답사하고 옛 문헌들을 참고하여 <사향(史香)> 창간호를 발간하였다.

간하였다.

책의 내용은 울진의 역·월에 대한 소고, 정립사지에 대하여, 최익한의 생애에 대한 소고, 울진지역의 봉수 조사 보고를 비롯해서 울진군 문화유적 지표조사 등 다양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國譯 慶州先生案

경주문화원에서는 경주시와 공동으로 <경주선생안>을 발간하였다. '선생안'이란 중앙과 지방의 관아와 기관에서 전임 관원의 성명, 직관명, 도임과 이임 그리고 특기사항을 적어 놓은 책으로 일명 책안(冊案)이라고도 한다. 작성시기를 기준으로 등재인물이 현임자의 전임자라는데서 선생안이라고 이름 붙여졌다고 한다. 이 책에는 고려 초부터 바뀌어 온 지방관의 칭호와 인사를 비롯해서 몽고의 침입과 왜구의 창궐, 임진왜란, 병인양요 등이 경주지방에 미친 영향과 대처한 일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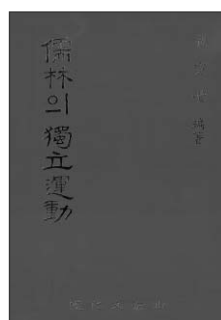
온양·아산 마을사



온양문화원에서는 <온양·아산 마을사>를 발간하였다. 제1편에서는 전 온양시 6개동 마을의 이모저모, 제2편 온양온천 생활문화의 뿌리, 제3편 새로 제정된 온양온천 관내 도로구간 및 도로명, 제4편 1980년대 이전의 기록으로 보는 온양의 옛모습 등으로 엮여져 있다.

儒林의 獨立運動

산청문화원에서는 <유림의 독립운동>을 발간하였다. 공훈록 현황, 미추서자 명단, 유림의 수난, 자금모집, 결사대의 전과, 당시의 공판 기록 등 독립운동의 비사를 수록하고 있다.



조선의 뒷골목 풍경 - 강명관 저 | 푸른역사



이 책에 인용된 자료들은 <백범일지> <황성신문> <조선왕조실록>에서 조선시대 개인 문집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이 자료들을 읽고 해석하는 저자의 자세는 마치 탐정이나 추리소설가의 그것과 흡사하다. 하나의 주제를 꼬투리 삼아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광범위하게 섭렵하며 금금증을 풀어나간다. 그 과정에서 옛날의 기록들은 생생한 현장보고서로 다시 태어난다.

저자인 강명관씨는 현재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저서로 <조선 후기 여행 문학 연구>, <조선시대 문학예술의 생성공간>, <조선 사람들, 혜원의 그림 밖으로 걸어 나오다>가 있고, 편저로 고미숙과 공동 작업한 <근대계몽기 시기자료집>이 있다.

살아 있는 한국사(전 3권) - 이덕일 저 | 휴머니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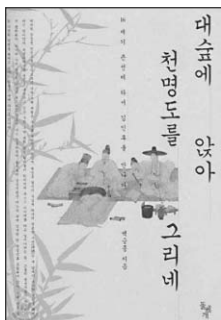
현재 학계의 통설은 우리나라 최초의 고대국가의 성립을 한반도에서 청동기유물이 출토되는 B.C. 10~8세기 경으로 잡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군조선의 본무대가 한반도가 아니라 만주대륙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는 주장. 만주대륙의 청동기유물은 이미 B.C. 20세기를 넘어서고 있다. 따라서 일연이 삼국유사에서 제기한 B.C. 23세기는 고조선 건국연대가 사실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삼국사기가 고려 집권층의 편이에 따라 편찬된 것이라는 '판재 역사서'에 따라 신라는 4세기 후반 내물왕, 백제는 3세기 후반 고이왕, 고구려는 1세기 후반~2세기 초인 태조왕 때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지만 이는 별다른 근거가 없는 일제 식민사학에 따른 정치적인 견해에 불과하다는 것. 현재의 정설은 우리 고대사를 삼국사로 파악한 반면 삼국사의 시작은 삼국사기 불신론에 따라 늦게 잡음으로써 외국학자들에게 한국사의 시작을 A.D. 3~4세기로

보게 만드는 결정적인 오류를 낳게 했다.

저자 이덕일 박사는 기존 역사학의 울타리를 뛰어넘는 인간 중심의 사관으로 기술한 저서를 통해 역사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현재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소장. 저서로 <운부 1,2,3>, <사도세자의 고백> 등이 있다.

대숲에 앉아 천명도를 그리네 - 백승중 저 | 돌베개



문묘(文廟)에 배향(配享)된 동국십팔현(東國十八賢) 가운데 유일한 호남 유림인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1510~1560) 벗이기도 한 퇴계(退溪) 이황(李滉)과 더불어 16세기 성리학계의 쌍벽으로 손꼽히는 하서는 정조에 의해 동방의 주염계(周濂溪)라는 평을 받은 일세의 거유(巨儒)였다. 그가 25년간 써내려간 일기인 <일록>이나 <주역관상편>(周易觀象篇), <서명사천도 西銘事天圖> 등의 귀중한 사료들이 화재로 소실되어 그간 하서에 관한 깊이 있는 학문적 접근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 책은 천명도(天命圖) 등에 근거해 밀도 있는 가상 토론과 대화를 통해 생동감 있고 입체적인 인물로 되살려 놓았다.

저자 백승중씨는 우리나라 미시사(Microhistory) 연구의 개척자로 손꼽힌다. <그 나라의 역사와 말>, <동독 도편수 레셀의 북한 추억>, <아버지 난 누구예요>, <한국사회사연구> 등을 저술했다. 현재 서강대학 교수.

문화원은 지역문화의 구심점

-문화원 직원은 자질 갖춘 전문인이어야-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자리잡고 있는 광진문화원(원장 이동표)은 전국 문화원 중에서도 주민들의 참여 열기가 높다. 지난 96년 구청의 작은 사무실에서 개원, 98년말 현재 위치로 옮겨왔다. 처음에는 6층 건물 중 5, 6층만 사용했으나 현재는 건물 전부를 문화원에서 쓰고 있다. 그만큼 문화강좌라든가 문화원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일년 예산 9억원, 180개 문화강좌는 놀랄 정도다. 광진문화원의 이선우 사무국장에게 그 운영의 노하우를 들어봤다. <편집자>



“구민이 필요로 하는 문화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 발전시켜 온 결과 지금은 180개의 문화강좌를 운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문화원이 여러 기능을 갖고 있지만 지역 주민에게 문화인이 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원 스스로 자립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때 문화원을 운영하는 모든 문화인들이 자기역량을 발휘하고 자존심을 지켜갈 수 있다고 봅니다.

획일적인 문화원 운영에서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적극 수용하는 문화사업을 진행하여 지역마다 다른 지역주민들의 특성에 맞는 문화강좌를 개발하여 진행한다면 충분한 자립의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선우 사무국장의 확고한 운영지침이자

참여 열기가 높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 광진문화원의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재 광진문화원 운영에는 연간 9억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라 생각합니다. 문화원 직원들은 문화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전문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강좌안내를 담당하는 도우미도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이 문화인으로서의 소양을 키우는데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130여명의 강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문화강좌를 통해 문화원의 한 가족이 되고 이를 통해 문화원은 지역주민들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질향상은 곧 문화원이 주어진 환경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원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 다양한 강좌와 문화강좌를 중요시하는 이유, 새로운 강좌를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가?

지역문화활동은 주민들을 위해 열려 있어야 하며 지역주민들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획일적인 교육으로 인해 자기 재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삶의 가치와 행복을 찾고 기초질서를 지키고 덕과 인격을 겸비한 문화인으로서 자질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문화강좌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화원에서는 문화강좌 외에도 다양한 행사, 향토자료조사 등의 일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역주민이 꾸준히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문화강좌입니다.

구민 중 황재순님은 몇 해 전 고회전을 통해 지난 5년 동안 30여 작품을 그려 전시한 뜻깊은 일이 있었습니다. 비록 늦은 나이에 미술에 입문했지만



그분 역시 삶의 가치와 행복을 얻었다는 소감을 들었을 때 문화강좌가 주민 개개인에게 취미 이상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직장인을 위한 강좌를 열고 있고, 앞으로는 주5일제 실시에 따른 청소년을 위한 문화강좌도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문화강좌의 개발은 장기적인 강좌와 단기적인 강좌를 병행하여 최대한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항상 신규강좌를 개발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내용을 토대로 문화강좌를 개발합니다. 문화강좌는 학교교육, 사교육에서 담당할 수 없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데 역점을 둡니다. 이외에도 계절별,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한 탄력적인 문화강좌를 병행하여 현실성과 다양성을 갖춘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문화원에서 하는 문화강좌는 어떠해야 하며 이를 위한 강사에 대한 정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원에서 하는 문화강좌는 백화점, 언론사, 사회교육원 등에서 하는 문화강좌와는 그 목적이 다릅니다.

문화원의 문화강좌는 문화 자체가 목적이고 사회교육, 재교육을 통해 지역주민의 잠재적인 문화활동의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강좌가 되기 위해서 강사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문성을 갖고 있는 강사는 많습니다. 하지

만 문화원에서의 강사는 자기 전문분야에 대한 기술적인 강의보다 더 중요하게 강좌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전달해야 할 것이 바로 문화인으로서의 소양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강사를 위한 소양교육을 통해 항상 이를 강조하고 새롭게 강좌를 열 경우에도 지역주민들을 문화인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는 소명의식을 가진 강사를 우선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강사들 중에서 능력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전임제를 두어 강사들에게도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줄 뿐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참여문화를 일으킬 수 있었던 원동력은?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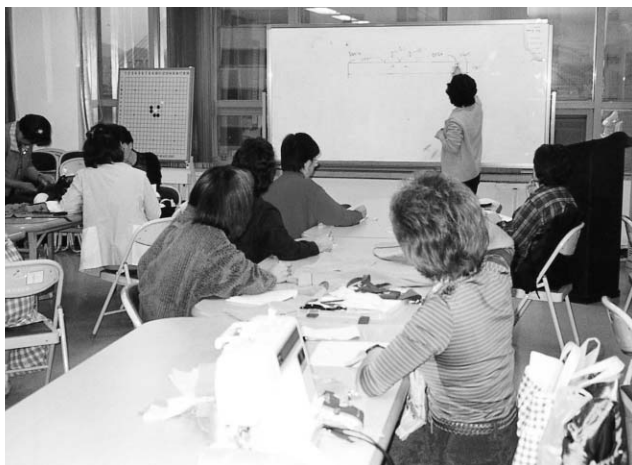
문화사업을 활성화시키면 그것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주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비즈니스 정신으로 직접 주민들에게 찾아가 왜 문화강좌를 들어야 하는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며 정기적으로 문화강좌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참여률을 높일 수 있게 되었고 문화시설 활용률이 250%에 이르렀고 4,000여명의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180개의 다양한 문화강좌에는 참여율이 112%에 이를 정도로 활성화될 수 있었습니다.

문화전도사로서의 사명을 갖고 지역주민을 찾아가는 것이 곧 지역주민이 찾아올 수 있게 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또한 언제나 새로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규강좌 개설과 강좌에 변화를 주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여 직접 참여하는 길이 중요합니다.

〈정경식 기자〉



● 이달의 문화인물

문화관광부는 이 달의 문화 인물로 유정(惟政 : 1544~1610년) 스님을 선정했다.



임란의 승장 사명당 유정(惟政)스님

유정 스님의 호는 사명당(四溟堂). 조선중기의 고승으로 1592년(선조 25년) 임진왜란 때 승병을 모집, 휴정(休靜)의 휘하로 들어가 도원수 권율(權慄)과 의령(宜寧)에서 왜군을 격파했다. 전공으로 당상관(堂上官)의 위계를 받았으며 선조가 죽은 뒤 해인사(海印寺)에 머물다가 그곳에서 입적했다.

초서를 잘 썼으며 밀양의 표충사(表忠祠), 묘향산

의 수충사(酬忠祠)에 배향되었고 저서로는 <사명당대사집>, <분충서난록> 등이 전한다.

스님은 중종 39년(1544) 밀양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유학을 익혔다. 그러나 이에 만족치 않고 16세 때 직지사에 출가하여 18세 때는 승과에 합격한다. 출가 이후 그는 당대의 문사들과 널리 교류하였으며 교단 내에서 선종 수사찰인 봉은사 주지에 천거될 만큼 두각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32세 때 모든 명리를 떨쳐버리고 묘향산의 휴정 문하로 들어가 수행에만 전념하여 43세 때는 마침내 무상의 법을 깨닫는다. 49세 때 임진왜란을 당해서 그는 의승군을 이끌며 구국애민의 선봉에 힘쓴다.

이렇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기 10여년, 유정은 64세에 비로소 다시 산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광해군 2년(1610) 67세를 일기로 생애를 마쳤다.

사명당 문화인물 특별전 개최

유정은 호국대성(護國大聖)으로까지 불리지만, 유정의 위상이 이로써 충분히 설명되지는 않는다. 그는 한국불교사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서산 법맥의 적통(嫡統)으로서도 확고한 위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유정은 그의 호 사명으로 일반에게 더 친숙하며, 그의 행적에 대해서도 역사적 사실보다는 이른바 '사명대사 이야기'가 일반에 회자되기도 했다.

(사)사명당기념사업회(회장 박권희)는 19일부터 24일까지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 건봉사 사명당 기념관에서 '사명당 문화인물 특별전'을 열고 21일에는 강원도 고성문화의 집에서 사명당 축하행사와 학술회의 등을 개최했다.

회의도 경쟁력이다 ②



김 점 동

회의자문 동우에스엔씨 대표

위임장의 양식과 위임장 소지한 회원의 의견수

위임장 형식은 원장이 발송한 위임장 양식이나 본인이 직접 작성한 양식이나 어느 경우도 무방하며 6하원칙에 의한 내용이면 되나 백지위임장인 경우는 반드시 수임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해 제출하면 되고 이 회원은 표결시에 2표를 행사하게 된다. 또, 다른 회원이 수임한 위임장에 위임회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찬성·반대·기권의사를 기재해 제출했다면 접수처에서는 사전에 체크해 해당 안건의 표결시에 이를 반영해야 하고 이 위임장을 소지한 회원은 1표만 행사하면 된다.

위임해 주고 직접 참석하면 위임장은 무효

그리고 다른 회원에게 위임장을 써준 회원은 총회장에 입장할 수 없고, 위임을 했더라도 본인이 직접 총회에 참석하면 위임장에 대한 효력은 없어지므로 회원이 직접 참석했는데도 해당 위임장이 출

석수에 이중 계산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위의 방법들을 통한 접수사무는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총회에서는 집행부와 회원간의 신뢰를 쌓는 측면에서 매우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민감한 사안이 아닌 총회의 경우는 접수처에서 회원임을 명확히 알고 있다면 약식의 접수사무, 즉 참석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고 입장을 시켜도 무방할 것이다.

회의안건을 명시하라

표준정관 제30조에 의하면 총회에서 다룰 안건은 보통의 경우 이사회에서 마련토록 되어 있고 제22조 소집특례에 의해 재적 이사의 과반수 또는 재적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 3분의 1 이상이나 감사에 의한 총회 소집요구 때에도 회의목적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안전 준비는 신중하게

총회에 상정할 안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안전을 다룰지 실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통상 정기총회는 결산총회이며 예산총회이다. 반드시 정

해진 시기에 정기총회를 개최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거기에 더해 정관의 변경이 필요할 때는 정관일부 변경의 건을 추가하고 임원의 개선이 필요하면 임원 선임의 건을 추가하는 등 정관에 정한 총회의 기능에 속하는 안전들을 준비한다.

소집통지한 안전외는 다룰 수 없다

이사회에서 총회에 상정하기로 의결을 거친 안전외는 총회장 즉석에서 “긴급동의” 형식으로 발의하지 못하고 기타사항에서 다루면서 건의나 다음 총회에 안전으로 다루어달라는 의견제시로만 그칠 뿐 이므로 신중히 생각해 안전을 마련한다.

상정이 애매한 안전은 일단 상정하기로 의결해 둔다

금번 총회에서 다루어야 될 안전인지 아닌지 애매한 안전들은 일단 이사회에서 안전으로 다루겠다는 결의를 해 두고 총회일까지 그 사유가 소멸되면 철회하겠다는 결의도 동시에 해 두고 통지를 한 뒤 총회장에서 상정 사유가 소멸된 것을 공지하고 안전을 철회할 수 있다.

즉석에서 “긴급동의요!”

이것은 회의에서 다룰 안전을 구성원들에게 미리 공시해 줌으로써 예측을 가능토록 하여 회의에 임하는 준비기간을 갖게 한다는 뜻이 있으며 회의 안전을 즉흥적으로 결정하거나 몇몇 인사들에 의해 즉석에서 소위 “긴급동의” 형식으로 변칙 상정시킴으로써 오는 각종 폐해를 방지하는 장치이다.

기타사항은 그야말로 기타사항

또한 임원의 선임 등 중요한 사항을 독립 안전으로 다루지 않고 “기타사항”에 포함시킴으로써 불명확한 상태로 구성원에게 회의소집 통보를 해서는 안 된다.

기타사항은 논의나 건의는 할 수 있지만 어떠한 의결도 할 수 없는 회순이다. 단지 집행부에서만 안전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 문화원 총회의 특성을 감안해 다수 회원들이 다음 총회에서 이러이러한 안전을 다루어 줄 것을 건의하고 이를 회원들이 찬성하면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 상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회원과 집행부간의 의사소통 차원에서 무방할 것이다.



즉 2주일 전에 통지한 안건 외에는 총회에서 의결할 수 없고, 통지한 안건이라 하더라도 이사회 의사결정 또는 총회중 이사회를 개최해 의결을 거쳐 철회할 수 있다. 총회중에 이사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총회를 정회하고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이 되므로 사전에 상정이 애매한 안건은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하면서 부대조건으로 상정사유가 소멸되면 철회할 수도 있다는 결의를 해 두면 될 것이다.

중요 안건은 그 요령도 통지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특별결의사항인 정관 변경과 같은 가중된 의결요건인 '재적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안건은 통지시에 그 요령을 동봉해 발송하는 것이 좋다. 물론 그 외의 안건도 구체적인 서류를 사전에 발송한다면 회원들로서는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안건명을 명시한 소집통지서 발송

총회일 14일전까지 구성원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하기 위해서는 총회일 3주간 전까지는 이사회 심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통상 법률에 기재되어 있는 '14일전'의 개념은 '2주간전'으로 해석하고 발송일과 접수일을 제외

하면 16일이 소요된다. 어떤 회의체든지 이 통지방법과 절차에 하자가 발생하면 결의 자체에 하자가 발생하므로 통지기간 준수는 매우 중요하다.

통지기간 미준수는 결의취소의 소(訴) 대상

표준정관 제21조제4항에 회의 안건을 명기하고 한 것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원으로 하여금 회의에서 어떤 의제(議題)와 의안(議案)이 다루어진다는 것을 예측하게 함으로써 본인이 직접 참석해 회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할 것인지 또는 위임하거나 불참할지 여부를 결심하도록 하며 통지하지 아니한 안건은 다루지 않는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회원의 권리행사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참고로 상법에서는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한 안건을 다루거나 소집절차·방법을 위반하면 '결의취소의 소'의 대상이 되고 그 소의 제기는 결의일로부터 2개월이다.

의사정족수(議事定足數)

의사정족수를 광범위하게 풀어보면 일반 안건인 경우 개의하는 시간 현재의 출석회원수가 재적회원수의 과반수에 달하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개의

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이며 의사정족수가 미달된 채로 회의를 진행하다가 안건을 의결해야 할 시간 현재의 재석수(在席數)가 재적회원수의 과반수에 달해야 의사정족수를 충족한다는 뜻이며 표결의 경우에도 투표마감시간 현재의 재석수가 과반수에 달해야 의사정족수를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원보고 당시 정족수가 끝까지 유효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성원보고 당시의 회원 숫자(과반수 출석)는 회의를 개회하기 위한 의사정족수이며 회의 도중에 의결을 하고자 할 때는 그 시간 현재의 회원 숫자(재석수)가 재적회원의 과반수에 달하는지가 중요한 요건이다.

가령 오전 10시에 재적회원의 과반수가 출석해 개회가 되었지만 오전 11시에는 귀가 또는 잠시 총회장을 이탈한 회원이 생기거나 늦게 참석한 회원이 있을 수 있는 바, 늦게 출석한 회원은 출석수에 추가하면 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귀가한 회원이 많아 회의의 의사정족수인 재적회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개의(성원보고) 당시에 재적회원의 과반수가 출석해 성원이 되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표결을 해 과반수(또는 3분의 2이상) 찬성이면 통과된 것으로 하는 잘못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므로 총회의 의장과 사무국은 성원보고 당시 출석회원들의 총회장 입·퇴장을 점검해 아주 귀가하는 회원 등은 다른 회원에게 위임을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석회원수가 재적회원수의 과반수에 미달인 채로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서울시의회에서도 재적의원 과반수가 재

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을 해 의결을 다시 하는 해프닝이 벌어진 경우도 있다.

지금까지 혹 잘못 처리한 의결이 있었다면 지난 간 것은 어쩔 수 없이 유효하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나 앞으로는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할 것이다.

의결(議決)과 의결정족수(議決定足數)

합의체가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 또는 결정된 결론을 가리키는 말이 의결이다.

어떤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이 가결이고 반대하는 의결이 부결이다. 또한 의결은 내부적인 의사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외적인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우리 지방문화원의 일반 안건의 의결은 다수결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의결정족수는 구성원 재적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성립되고 가부동수(可否同數)인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가부동수인 때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 회의체는 의장에게 의결권을 주지 않고 공정한 의사진행을 요청하는 경우이며 반드시 결정을 지어야 할 사안에서 가부동수일 때 그 결정권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산이나 정관의 변경 같은 중요한 안건은 출석 회원이 아닌 재적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의결요건이 대폭 강화되어 있으므로 총회의 출석률이 재적회원수의 최소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고 그 전원이 찬성해야 하는 안건이어서 만약 의결을 하려고 하더라도 수백명의 회원이 있는 문화원은 그 현실성이 매우 희박하다.

격월간 **우리문화**

2003년 9·10월호 (통권 166호)

발행처

전국문화원연합회
우편번호 121-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www.kocf.or.kr
전화 : 02)704-2311~3
팩스 : 02)704-2377

등 록

라36627(1984.7.12)

발행 · 편집인

권 용 태

편집주간

채 강 희

디자인 · 인쇄

한컴닷컴

서울시 중구 저동2가 7-2

저동빌딩 302호

전화 : 02)2277-7411

팩스 : 02)2264-0070

題字 / 선우 이무희

편집위원

신찬균 불교TV문화원 고문
김 중 광주 서구문화원 원장
전택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이종인 한국문화행정연구소 소장
이홍재 한국정보문화센터 소장

정가 3,000원

편집을 끝내고

우리문화는 특집으로 ‘우리 역사·문화 재조명’을 마련했습니다. ‘역사는 정체성을 일깨운다’ (신봉승 극작가), ‘문화유산도 손길이 닿아야 오래간다’ (유홍준 명지대 교수), ‘자연의 변화에서 터득한 예술과 과학’ (정양모 문화재위원장), ‘정체성 없는 세계화는 식민국 전략’ (이성무 전 국사편찬위원장) 등을 실었습니다. 특집에서 사계의 권위자들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우리 역사·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것에서 세계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부터 시작하는 ‘생활문화,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특별기획을 신습니다. 혼례문화, 여가문화를 시작으로 왜곡된 각종 생활문화를 전반적으로 짚어나가는 이 특별기획은 2개 분야씩 선정, 권위자들로 하여금 집필케 할 예정입니다.

또 ‘재외동포의 정체성 확립’ (고병익 전 서울대 총장), ‘우리 가락에 깃든 한국인의 정서’ (황병기 이화여대 명예교수)를 실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학계·예술계 원로로서 많은 영향을 끼친 두 분의 기고문은 **우리문화**의 지면을 더욱 빛나게 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문화** 편집진은 지면을 더욱 알차고 풍성하면서도 전통문화의 길잡이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격려,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우리문화는 우리 선조의 자랑스러운 고유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문화는 독자들에게 널리 열려있는 광장입니다. 세계화 시대 우리 역사·문화를 지키고 가꾸려 하는 독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다른 곳에 발표하지 않은 원고(문화정책 제언 : 200자 원고지 5매 이내, 역사·문화 답사기 : 200자 원고지 15매 이내)를 보내주시면 성심껏 신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진자료를 보내줄 때는 가능한 한 인화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독자 여러분의 쓴 소리나 충고·조언도 귀담아 듣겠습니다.

보내실곳

우편번호 121-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우리문화 편집실 / 전화 : 02)704-2311~3 / 팩스 : 02)704-2377 / 이메일 : achae@naver.com

난계 박연
(1378~1458)



제36회

난계국악축제

충북 영동에서 국악의 맛을 느낄 수 있는 향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The 36th NANGYE Traditional Korean Music Festival



우리소리

행사일정

- 제29회 전국난계국악경연대회
- 제36회 전국남녀시조경향대회
- 난계박연선생 송모제
- 축등퍼레이드
- 개막식
- 불꽃놀이
- 난계추모 무용
- 국악과 전통복식의 만남
- 난계국악축제 개막 축하공연
- 난계거리퍼레이드
- 일본예술단 공연
- 미디어속의 국악
- 난계국악단 정기공연
- 퓨전 국악의 향연
- 전국국악기전시/국악기연주체험
- 국악기제작체험

일시 : 2003. **10.4 ~ 10.7**

장소 : 충북 영동군 일원

주최 : 영동군, (사)난계기념사업회

후원 : 문화관광부, 충청북도, 한국관광공사